

5
055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1991년 12월

문화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귀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관한 위원과의 '91. 8.19일자 조사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991. 12. 18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팀대표 교수 최 평 길

<연 구 진>

연구기관명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책임자 : 최평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강용기 (서남대학교 교수)

박상주 (연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남기범 (연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우권 (연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노승용 (연세대 행정학 석사)

문영은 (연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박석희 (연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1
1. 조사의 목적	1
2. 모집단의 구성	1
3. 표본추출방법 및 표본구성	3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6
5. 조사기간	8
제 2 장 일반적 배경	9
1. 응답자의 분야별 분포	9
2. 응답자의 성별 분포	10
3.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10
4.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11
5. 응답자의 결혼 여부	12
6. 응답자의 출신지역별 분포	12
7. 응답자의 현 거주지역별 분포	13
8. 응답자의 행정단위별 거주 분포	13
9.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	14
제 3 장 생활환경 및 경제적 여건	15
1. 주거형태	15
2. 주택소유 유형	15
3. 정규직장의 유무	16
4. 직업의 종류	17
5.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수입	18
6.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수입	19
7.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지출	20
8.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지출	21

제 4 장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태도	22
1. 문화예술인이 인식하는 발전분야	22
2.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24
3.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26
4. 작품발표 기회	28
5. 직업 만족도	30
6.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	32
제 5 장 분야별 예술활동 실태	34
1. 문학분야	34
(1) 문학분야의 활동부문	34
(2) 문학분야의 첫 활동방식	34
(3) 문학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35
(4) 문학분야의 연간(1990. 7. 1-1991. 6. 30) 작품활동	36
2. 조형예술분야	38
(1) 조형예술분야의 활동부문	38
(2) 조형예술분야의 첫 활동방식	38
(3) 조형예술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39
(4) 조형예술분야의 연간(1990. 7. 1-1991. 6. 30) 작품활동	41
3. 디자인분야	45
(1) 디자인분야의 활동부문	45
(2) 디자인분야의 첫 활동방식	45
(3) 디자인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45
(4) 디자인분야의 연간(1990. 7. 1-1991. 6. 30) 작품활동	48
4. 양악분야	50
(1) 양악분야의 활동부문	50
(2) 양악분야의 첫 활동방식	50
(3) 양악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51
(4) 양악분야의 연간(1990. 7. 1-1991. 6. 30) 작품활동	53
5. 국악분야	57
(1) 국악분야의 활동부문	57
(2) 국악분야의 첫 활동방식	57

(3) 국악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57
(4) 국악분야의 연간(1990. 7. 1-1991. 6. 30) 작품활동	60
6. 무용분야	63
(1) 무용분야의 활동부문	63
(2) 무용분야의 첫 활동방식	63
(3) 무용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63
(4) 무용분야의 연간(1990. 7. 1-1991. 6. 30) 작품활동	66
7. 연극분야	69
(1) 연극분야의 활동부문	69
(2) 연극분야의 첫 활동방식	69
(3) 연극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69
(4) 연극분야의 연간(1990. 7. 1-1991. 6. 30) 작품활동	71
8. 영화분야	73
(1) 영화분야의 활동부문	73
(2) 영화분야의 첫 활동방식	73
(3) 영화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73
(4) 영화분야의 연간(1990. 7. 1-1991. 6. 30) 작품활동	75
9. 연예분야	77
(1) 연예분야의 활동부문	77
(2) 연예분야의 첫 활동방식	77
(3) 연예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77
(4) 연예분야의 연간(1990. 7. 1-1991. 6. 30) 작품활동	79
제 6 장 결론 및 제언	82
1. 분석결과의 요약	82
(1)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82
(2) 생활환경 및 경제적 여건	83
(3)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태도	84
(4) 분야별 예술활동 실태	88
2.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과 제언	94
부 록	96

표 목 차

<표 2-1> 응답자의 분야별 분포	9
<표 2-2> 응답자의 성별 분포	10
<표 2-3>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10
<표 2-4>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11
<표 2-5> 응답자의 활동분야별 교육수준	11
<표 2-6> 응답자의 결혼여부	12
<표 2-7> 응답자의 출신지역별 분포	13
<표 2-8> 응답자의 현거주지역별 분포	13
<표 2-9> 응답자의 행정단위별 거주 분포	13
<표 2-10>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	14
<표 3-1> 응답자의 주거형태별 분포	15
<표 3-2> 응답자의 주택소유 유형별 분포	15
<표 3-3> 정규직장의 유무	16
<표 3-4> 활동분야별 정규직장 유무	16
<표 3-5> 직업의 종류	17
<표 3-6> 월평균 수입	18
<표 3-7> 활동분야별 월평균수입	18
<표 3-8>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수입	19
<표 3-9> 활동분야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수입	20
<표 3-10> 일년간 월평균 지출	20
<표 3-11>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지출	21
<표 4-1> 문화예술인이 인식하는 가장 발전한 분야	22
<표 4-2> 활동분야별 가장 발전한 분야	22
<표 4-3> 연령별 가장 발전한 분야	23
<표 4-4>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24
<표 4-5> 활동분야별 사회적 대우에 관한 의견	24
<표 4-6> 성별 사회적 대우에 관한 의견	25
<표 4-7> 연령별 사회적 대우에 관한 의견	26

<표 4-8>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26
<표 4-9> 활동분야별 자신의 생활수준에 관한 평가	27
<표 4-10> 연령별 자신의 생활수준에 관한 평가	28
<표 4-11> 작품발표 기회	28
<표 4-12> 활동분야별 작품발표 기회에 관한 평가	29
<표 4-13> 연령별 작품 발표기회에 관한 평가	30
<표 4-14> 직업 만족도	30
<표 4-15> 활동분야별 직업 만족도	31
<표 4-16> 연령별 직업 만족도	32
<표 4-17>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	32
<표 4-18> 활동분야별 창작활동 장애요인	33
<표 5-1-1> 문학분야의 활동부문	34
<표 5-1-2> 문학분야 부문별 통산 발표작품수	35
<표 5-1-3> 문학분야 부문별 통산 간행책수	35
<표 5-1-4> 문학분야 부문별 연간 발표작품수	36
<표 5-1-5> 문학분야 부문별 연간 간행책수	37
<표 5-2-1> 조형예술분야의 활동부문	38
<표 5-2-2>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통산 개인작품전수	39
<표 5-2-3>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통산 단체작품전수	39
<표 5-2-4>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통산 발표작품수	40
<표 5-2-5>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41
<표 5-2-6>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연간 개인작품전수	41
<표 5-2-7>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연간 단체작품전수	42
<표 5-2-8>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연간 발표작품수	43
<표 5-2-9>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43
<표 5-3-1> 디자인분야의 활동부문	45
<표 5-3-2> 디자인분야 부문별 통산 개인작품전수	45
<표 5-3-3> 디자인분야 부문별 통산 단체작품전수	46
<표 5-3-4> 디자인분야 부문별 통산 발표작품수	46
<표 5-3-5> 디자인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47

<표 5-3-6> 디자인분야 부문별 연간 개인작품전수	48
<표 5-3-7> 디자인분야 부문별 연간 단체작품전수	48
<표 5-3-8> 디자인분야 부문별 연간 발표작품수	49
<표 5-3-9> 디자인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49
<표 5-4-1> 양악분야의 활동부문	50
<표 5-4-2> 양악분야 부문별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51
<표 5-4-3> 양악분야 부문별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51
<표 5-4-4> 양악분야 부문별 통산 창작작품수	52
<표 5-4-5> 양악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53
<표 5-4-6> 양악분야 부문별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53
<표 5-4-7> 양악분야 부문별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54
<표 5-4-8> 양악분야 부문별 연간 창작작품수	55
<표 5-4-9> 양악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55
<표 5-5-1> 국악분야의 활동부문	57
<표 5-5-2> 국악분야 부문별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57
<표 5-5-3> 국악분야 부문별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58
<표 5-5-4> 국악분야 부문별 통산 창작작품수	59
<표 5-5-5> 국악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59
<표 5-5-6> 국악분야 부문별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60
<표 5-5-7> 국악분야 부문별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61
<표 5-5-8> 국악분야 부문별 연간 창작작품수	61
<표 5-5-9> 국악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62
<표 5-6-1> 무용분야의 활동부문	63
<표 5-6-2>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63
<표 5-6-3>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64
<표 5-6-4>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창작작품수	65
<표 5-6-5>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65
<표 5-6-6> 무용분야 부문별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66
<표 5-6-7> 무용분야 부문별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67
<표 5-6-8> 무용분야 부문별 연간 창작작품수	67

<표 5-6-9> 무용부문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68
<표 5-7-1> 연극분야의 활동부문	69
<표 5-7-2> 연극분야 부문별 통산 발표 및 참여작품수	69
<표 5-7-3> 연극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70
<표 5-7-4> 연극분야 부문별 연간 발표 및 참여작품수	71
<표 5-7-5> 연극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71
<표 5-8-1> 영화분야의 활동부문	73
<표 5-8-2> 영화분야 부문별 통산 발표 및 참여작품수	73
<표 5-8-3> 영화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74
<표 5-8-4> 영화분야 부문별 연간 발표 및 참여작품수	75
<표 5-8-5> 영화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75
<표 5-9-1> 연예분야의 활동부문	77
<표 5-9-2> 연예분야 부문별 통산 창작작품수	77
<표 5-9-3> 연예분야 부문별 통산 방송프로그램 출연수	78
<표 5-9-4> 연예분야 부문별 통산 공개행사 출연수	79
<표 5-9-5> 연예분야 부문별 연간 창작작품수	79
<표 5-9-6> 연예분야 부문별 연간 방송프로그램 출연수	80
<표 5-9-7> 연예분야 부문별 연간 공개행사 출연수	81

그림 목차

<그림 2-1> 응답자의 분야별 분포	9
<그림 2-2> 응답자의 성별 분포	10
<그림 2-3>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10
<그림 2-4>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11
<그림 2-5> 응답자의 결혼 여부	12
<그림 2-6> 응답자의 행정단위별 거주 분포	13
<그림 2-7>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	14
<그림 3-1> 응답자의 주거형태별 분포	15
<그림 3-2> 응답자의 주택소유 유형별 분포	16
<그림 3-3> 정규직장의 유무	16
<그림 3-4> 직업의 종류	17
<그림 3-5>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수입	18
<그림 3-6>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수입	19
<그림 3-7>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지출	21
<그림 3-8>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지출	21
<그림 4-1> 문화예술인이 인식하는 가장 발전한 분야	22
<그림 4-2>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24
<그림 4-3>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27
<그림 4-4> 작품발표 기회	29
<그림 4-5> 직업 만족도	31
<그림 4-6>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	33
<그림 5-1-1> 문학분야의 첫 활동방식	34
<그림 5-1-2> 문학분야 1인당 통산 발표작품수	35
<그림 5-1-3> 문학분야 1인당 통산 간행책수	36
<그림 5-1-4> 문학분야 1인당 연간 발표작품수	36
<그림 5-1-5> 문학분야 1인당 연간 간행책수	37
<그림 5-2-1> 조형예술분야의 첫 활동방식	38
<그림 5-2-2> 조형예술분야 1인당 통산 개인작품전수	39
<그림 5-2-3> 조형예술분야 1인당 통산 단체작품전수	40
<그림 5-2-4> 조형예술분야 1인당 통산 발표작품수	40

<그림 5-2-5> 조형예술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41
<그림 5-2-6> 조형예술분야 1인당 연간 개인작품전수	42
<그림 5-2-7> 조형예술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전수	42
<그림 5-2-8> 조형예술분야 1인당 연간 발표작품수	43
<그림 5-2-9> 조형예술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44
<그림 5-3-1> 디자인분야 첫 활동방식	45
<그림 5-3-2> 디자인분야 1인당 통산 개인작품전수	46
<그림 5-3-3> 디자인분야 1인당 통산 단체작품전수	46
<그림 5-3-4> 디자인분야 1인당 통산 발표작품수	47
<그림 5-3-5> 디자인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47
<그림 5-3-6> 디자인분야 1인당 연간 개인작품전수	48
<그림 5-3-7> 디자인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전수	48
<그림 5-3-8> 디자인분야 1인당 연간 발표작품수	49
<그림 5-3-9> 디자인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49
<그림 5-4-1> 양악분야의 첫 활동방식	50
<그림 5-4-2> 양악분야 1인당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51
<그림 5-4-3> 양악분야 1인당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52
<그림 5-4-4> 양악분야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	52
<그림 5-4-5> 양악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53
<그림 5-4-6> 양악분야 1인당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54
<그림 5-4-7> 양악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54
<그림 5-4-8> 양악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	55
<그림 5-4-9> 양악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56
<그림 5-5-1> 국악분야의 첫 활동방식	57
<그림 5-5-2> 국악분야 1인당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58
<그림 5-5-3> 국악분야 1인당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58
<그림 5-5-4> 국악분야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	59
<그림 5-5-5> 국악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60
<그림 5-5-6> 국악분야 1인당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60
<그림 5-5-7> 국악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61
<그림 5-5-8> 국악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	62

<그림 5-5-9> 국악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62
<그림 5-6-1> 무용분야의 첫 활동방식	63
<그림 5-6-2> 무용분야 1인당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64
<그림 5-6-3> 무용분야 1인당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64
<그림 5-6-4> 무용분야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	65
<그림 5-6-5> 무용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66
<그림 5-6-6> 무용분야 1인당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66
<그림 5-6-7> 무용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67
<그림 5-6-8> 무용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	68
<그림 5-6-9> 무용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68
<그림 5-7-1> 연극분야 첫 활동방식	69
<그림 5-7-2> 연극분야 1인당 통산 발표 및 참여작품수	70
<그림 5-7-3> 연극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70
<그림 5-7-4> 연극분야 1인당 연간 발표 및 참여 작품수	71
<그림 5-7-5> 연극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72
<그림 5-8-1> 영화분야의 첫 활동방식	73
<그림 5-8-2> 영화분야 1인당 통산 발표 및 참여작품수	74
<그림 5-8-3> 영화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74
<그림 5-8-4> 영화분야 1인당 연간 발표 및 참여작품수	75
<그림 5-8-5> 영화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76
<그림 5-9-1> 연예분야의 첫 활동방식	77
<그림 5-9-2> 연예분야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	78
<그림 5-9-3> 연예분야 1인당 통산 방송프로그램 출연수	78
<그림 5-9-4> 연예분야 1인당 통산 공개행사 출연수	79
<그림 5-9-5> 연예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	80
<그림 5-9-6> 연예분야 1인당 연간 방송프로그램 출연수	80
<그림 5-9-7> 연예분야 1인당 연간 공개행사 출연수	81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한국의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일반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문화예술부분중 한국예술문화인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국예술문화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가 주관하여 작성하는 문화통계연감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통계의 성격상 지정통계가 아닌 일반통계이며 보고통계가 아닌 조사통계라고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조사통계는 두 가지 목적하에서 수행되었는데 첫째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상황을 서술하는 학문적인 목적으로, 둘째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자료의 실천적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조사는 89년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후속연구로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현황, 창작활동, 생활환경, 만족도 등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동안 문화지표는 UNESCO 한국위원회와 한국예술문화진흥원의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 최종보고서」(1986)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이를 모태로 1989년 「문화예술통계자료집」(1989)이 출간되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선행자료를 토대로 수행된 것이다.

본 조사를 통해 한국예술문화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모집단의 구성

한국의 문화지표체계(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예진흥원,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 1986)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는 1.문학, 2.조형예술, 3.디자인, 4.음악(양악, 국악), 5.무용, 6.연극, 7.영화, 8.연예의 8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고 있다. 본 조사도 이를 기준으로 문화예술의 영역을 위의 8가지 범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문화예술인이라고 할 것인데 본 조사에서 문화예술인의 모집단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회원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문학부분에는 문인협회회원이, 조형예술부분에는 미술인 협회와 사진작가협회회원이, 디자인 부분에는 건축가협회회원과 미술인 협회중의 디자인 분과회원이 이에 포함되었다. 음악의 경우 서양음악을 주도하는 음악인 협회와 국악을 주도하는 국악인 협회회원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며 무용, 연극, 영화, 연예는 각 협회회원이 조사대상이 되었다. 모집단의 분포는 전국이며 체계적 무작위 추출 방법에 의해 지역안배가 이루어지게끔 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문화예술인이라함은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로 한정하며 그 중에서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가입된 1. 한국건축가협회 2. 한국국악협회 3. 한국무용협회 4. 한국문인협회, 5. 한국미술협회 6. 한국사진작가협회 7. 한국연극협회 8. 한국연예협회 9. 한국영화인협회 10. 한국음악협회의 10개 단체의 등록된 회원을 그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조사의 모집단은 1990. 12. 31 현재 44,728명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1990년 연말보고서)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원현황 >

1990. 12. 31. 현재

협 회	회원 규모	구성비
1. 문 인 협 회	2,273명	5.08%
2. 미 술 협 회	6,678	14.93
3. 건 축 가 협 회	830	1.86
4. 사 진 작 가 협 회	2,198	4.91
5. 음 악 협 회	4,313	9.64
6. 국 악 협 회	6,226	13.92
7. 무 용 협 회	2,107	4.71
8. 연 극 협 회	2,507	5.60
9. 영 화 인 협 회	1,649	3.68
10. 연 예 협 회	15,947	35.65
계	44,728명	100.00

* 자료출처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1990년 연도말 보고서.

그러나 이러한 각 단체의 구성 문화지표체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미술협회와 사진협회는 조형예술분야에 속하지만 각각 독립된 단체로 등록되어있으며, 음악분야는 음악협회(양악), 국악협회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디자인분야는 건축가협회와 미술협회의 디자인 분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상 문화지표의 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단을 재구성하였다.

〈모집단의 구성〉

- (1) 문 학 : 문학인의 모집단은 문인협회회원으로 2,273명이다.
- (2) 조형예술 : 조형예술은 미술협회회원(6,687)과 사진협회회원(2,198)을 합한 숫자에서 디자인 전공자인 286명을 제외한 것으로($6,678 + 2,198 - 286 = 8,590$) 모집단은 8,590명이다.
- (3) 디자인 : 건축가협회회원(830)과 미술분야의 디자인 전공자(286)를 합한 숫자로 1,116명.
- (4) 음 악 : 음악협회회원과 국악협회회원수를 합한 것($(4,313 + 6,226 = 10,539)$)으로 음악인 모집단은 총 10,539명이다.
- (5) 무 용 : 무용협회회원 2,107명이 모집단임.
- (6) 연 극 : 연극인협회 회원 2,507명이 모집단임.
- (7) 영 화 : 영화인 협회 회원 1,649명임.
- (8) 연 예 : 연예인 협회 회원 15,947명임.

3. 표본추출방법 및 표본구성

(1) 전체 표본 수의 결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원을 모집단으로 하는 총 3,000명이지만 조사시 누락과 표본대상자의 유고를 고려, 약 10%를 더한 3,300명을 조사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 분야별 표본수의 산정

본 조사에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총 가입회원수에 대한 각 분야협회별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표본할당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분야별 표본수를 배정하였다. 본 조사에서 유의할 점은 연예분야의 구성원이 전체 모집단의 약 35.7%를 차지하여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점유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목적상 문화예술분야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연예인 부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므로, 연예인분야에 한하여 표본수 할당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였다. 즉, 연예분야의 모집단 크기는 원래 크기의 10%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표본크기는 조정된 모집단크기의 10%수준으로 삭감조정하였다. 문화예술인 전체 평균치를 구할 경우는 인원수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할 것이기 때문에 분석상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여타의 모든 분야의 표본수는 회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예분야의 조정 표본수: 모집단 15,947명의 약 10%인 1,600명을 모집단크기로 간주하여 1,600의 10%인 160명을 표본수로 결정함.

2) 전체 모집단 44,726명에서 연예인분야 모집단 15,947명을 제외하면 $44726-15947=28,779$ 즉, 연예분야를 제외한 전체모집단은 28,779명이 된다. 한편 연예분야의 당초 표본할당수는 1,176이었으나 160으로 삭감 조정했으므로 여기서 남게 된 여분의 표본수인 $1,016(1176-160=1016)$ 을 연예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최초 할당표본수에다 더해 줘야 한다.

이에 따라 연예를 제외한 나머지분야들 각각의 모집단 수가 조정된 전체모집단수 (28779)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다음의 공식에 따라 최종 조정 표본수를 계산한다.

3) 연예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조정 표본수 = 각 분야의 최초할당 표본수 + (각 분야의 조정된 구성비율 x 1016)

예) 문학분야: 조정된 구성비 = $2273 \div 28779 = 0.0790$

조정된 표본수 = 최초할당수(168) + $(0.0790 \times 1016) = 248$

(3) 모집단 및 표본현황

1)최초할당 표본수

분 야	모집단규모	*구성비	표본수
문 학	2,273명	5.08%	168명
조형예술	8,590	19.21	634
디 자 인	1,116	2.50	84
음 악	10,539	23.56	777
무 용	2,107	4.71	155
연 극	2,507	5.61	185
영 화	1,647	3.68	121
연 예	15,947	35.65	1,176
계	44,726명	100.00%	3,300명

* 여기서의 구성비는 연예분야를 포함한 전체모집단수 (44,726명)에 대해 각분야 모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임.

2)조정된 표본수

① 연예 분야

분 야	조정된 모집단크기	할당 비율	조정된 표본수
연 예	1,600명	10.00%	160명

② 나머지 분야

분 야	모집단규모	*조정된 구성비	조정된 표본수
문 학	2,273명	7.90%	248명
조형예술	8,590	29.85	937
디 자 인	1,116	3.88	124
음 악	10,539	36.62	1,149
무 용	2,107	7.32	229
연 극	2,507	8.71	274
영 화	1,647	5.72	179
계	28,779명	100.00%	3,140명

* 여기서의 조정된 구성비는 연예분야를 제외한 총모집단수(28,779명)에 대해 각 분야 모집단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4) 표본의 추출방법

본 조사에서는 기본적인 샘플링방법으로 체계적 무작위 추출(systematic random sampling)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모집단의 각 요소에 순서를 매겨놓고 무작위로 결정된 숫자를 출발점으로 일정간격을 두고 추출해 나가되 처음에 결정되는 숫자는 1과 추출간격수 사이에 있는 정수가 되게끔 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각 협회의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들에 대해 일련번호를 매긴 다음, 일정한 간격을 산정하여, 그 간격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나갔다. 여기서 추출간격은 각 분야별 할당표본수로써 당해분야의 회원수를 나눈 값으로 정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최초 조사대상자는 난수표를 통해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이와 같은 체계적 무작위 추출방법을 채택했으므로 실제 샘플링과정에서 표본의 추출간격이 모집단의 어떠한 주기적 순서와도 관련을 맺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5) 표본의 지역간 안배

표본의 지역간 안배에 있어서는 첫째, 회원명부가 지역구분 없이 무작위로 작성되어 있는 분야에는 (4)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둘째, 회원명부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분야에는 그 분야에 할당된 표본수에 대한 당해 분야 각 지역 회원수의 비율을 통해 지역별 조사대상자수를 산정한 다음, (4)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6) 각 분야 표본의 장르간 안배

분야내의 장르간 안배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 할당된 표본수에 대한 당해 분야내 하위장르별 회원수의 비율을 통해 장르별 조사대상자수를 산정한 다음 (4)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설문서의 작성과 사전예비조사(pre-test)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크게 4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항목을 설문서를 통해 작성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첫째, 문화예술인의 일반적 배경, 둘째, 문화예술인의 생활환경 및 경제적 여건, 셋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태도, 네째, 문화예술 각 분야별 예술활동실태를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문서를 보완 수정하고 그 설문서는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문항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설문서를 작성하였다.

(2) 조사원의 모집과 교육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은 약 200명 가량이며 각각 15-17 명 정도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지역별, 분야별 책임조사원을 임명하였는데 조사실무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재학생 이상의 연구조원을 해당 책임조사원으로 선정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3시간의 소정교육과 1-2회의 면접실습을 하였다.

(3) 실제조사의 수행

조사원이 해당분야의 해당인원의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한 다음 약속시간을 정하고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1 대 1 면접조사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대상자가 해외출장이나 사실상의 유고 상태에 있을때는 여분으로 추출된 표본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대치하여 조사하였다.

(4) 수집자료의 정확성검사

일단 수집된 자료된 조사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감독자가 표본의10%내에서 조사의 오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 각 부분 지표별 백분비, 평균등을 구하고 일차자료는 다시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지수별 분포를 비교하였다. 교차상관관계 분석의 경우 Chi-Square 검증방법을 통해 유의도가 0.05%이하인 분할표(cross-tabulation)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난 자료는 문화예술인 및 통계 자문위원을 구성 자문세미나를 실시, 통계적인 의미와 효과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5. 조사기간

본 조사는 1991년 8월 19일부터 1991년 12월 20일까지를 총 연구기간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선발된 조사원(총 194명)들에게 1991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에 걸쳐, 당초 연구계획대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 가운데 표본으로 선정된 3,300 명의 주소가 적힌 명단과 함께 3,300 부의 설문지를 배부완료하였다. 이들 조사원 전원은 설문조사를 위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일정 부수씩의 설문지(일인당 평균 17부)와 조사대상자명단, 조사원지침서, 신분확인서를 지급받아 설문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원들에게 부여한 설문조사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10일-20일간 정도였다. 이에 따라 설문지의 1차 회수완료는 11월 중순(11일-16일)중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설문조사 착수 이후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보다 본 조사의 표본추출에서 의거한 1차 자료 즉, 문화예술인 회원명부가 정확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본 조사는 한국예술문화단체 가입회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각 협회별 회원명부를 표본추출원(sampling frame)으로 삼았다. 그러나 조사착수이후, 회원명부상에 기재된 회원들의 주소는 정확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조사원들은 표본으로 선정된 문화예술인 중 각각 할당받은 17명씩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조사대상자명단에 의해 대상자들을 방문, 조사하였으나 명단에 표시된 주소와 현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조사원 사전교육시 동사무소, 복덕방, 전화번호상의 추적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것을 주지시켰으나, 이어나 전화번호 변경 이외에도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이 경우 조사원이 대상자를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해외에 나가 있거나 출장 중이어서 설문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예술활동 중단, 정부활동에 대한 막연한 불신 및 기타 사유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체계적 무작위추출방법으로 15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재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차 설문조사의 회수가 완료된 것은 1991년 12월 10일 경이었다.

제 2 장 일반적 배경

1. 응답자의 분야별 표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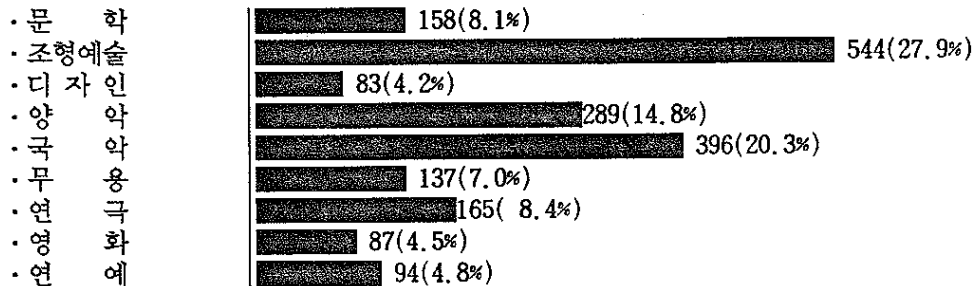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 조사된 분야별 표본수와 구성비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 나타난 표본 구성비는 당초 계획된 조사표본 구성비와 거의 같다.

<표 2-1> 응답자의 분야별 분포

분 야	빈 도 (%)
문 학	158 (8.1)
조형예술	544 (27.9)
디 자 인	83 (4.2)
양 악	289 (14.8)
국 악	396 (20.3)
무 용	137 (7.0)
연 극	165 (8.4)
영 화	87 (4.5)
연 예	94 (4.8)
계	1953 (100.0)

응답자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형예술 (27.9%)과 국악분야(20.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양악(14.8%), 연극(8.4%), 문학 (8.1%) 등의 순이다.

<그림 2-1> 응답자의 분야별 분포



응답수 : 1953

2. 응답자의 성별 분포

<표 2-2> 응답자의 성별 분포

성 별	빈 도 (%)
남	1260 (64.6)
여	690 (35.4)
무 응 답	3 -
계	1953 (100.0)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약 6.5 대 3.5로 나타났다.

<그림 2-2> 응답자의 성별 분포



응답수 : 1950 무응답수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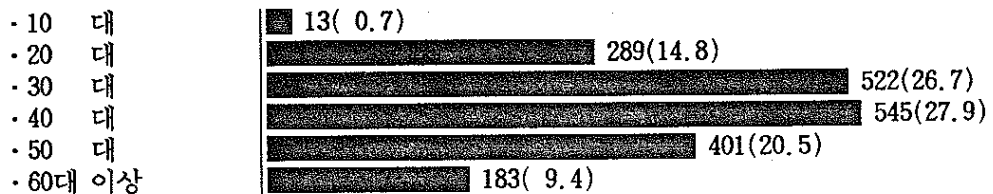
3.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표 2-3>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연 령	빈도 (%)
10 대	13 (0.7)
20 대	289 (14.8)
30 대	522 (26.7)
40 대	545 (27.9)
50 대	401 (20.5)
60대 이상	183 (9.4)
계	1953 (100.0)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에서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75.1%), 60대는 소수이고 극소수이지만 10대 연령층도 분포되어 있다.

<그림 2-3>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응답수 :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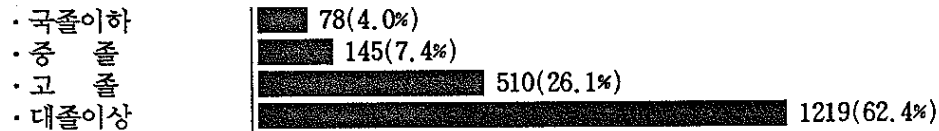
4.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표 2-4>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학 력	빈도 (%)
국졸이하	78 (4.0)
중 졸	145 (7.4)
고 졸	510 (26.1)
대졸이상	1219 (62.4)
무 응 답	1 -
계	1953 (100.0)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다수(62.4%) 이고, 고졸수준도 상당수 있으며, 중졸이하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림 2-4>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응답수 : 1952 무응답수 : 1

<표 2-5> 응답자의 활동분야별 교육수준

활동분야	교육수준				단위 : % 계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문 학	.6	.6	14.5	84.3	8.1
조형예술	2.0	2.8	18.6	76.6	27.8
디 자 인			1.2	98.8	4.3
양 악			2.8	97.2	14.8
국 악	16.2	27.1	38.0	18.7	20.2
무 용			38.0	62.0	7.0
연 극		1.2	35.8	63.0	8.5
영 화		13.8	52.9	33.3	4.5
연 예	2.1	8.5	74.5	14.9	4.8
계	4.0	7.4	26.1	62.4	100.0

(무응답수 : 1)

Chi-Square	D.F.	Significance
983.24138	24	.0000

활동분야별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국악, 영화, 연예 분야는 고졸이 가장 많고 그 외 모든 분야는 대졸이상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중에서도 무용과 연극분야에 비해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양악 분야는 대졸이상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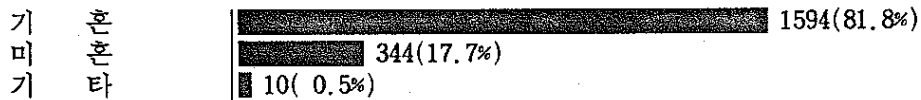
5. 응답자의 결혼여부

<표 2-6> 응답자의 결혼여부

결혼여부	빈도 (%)
기혼	1594 (81.8)
미혼	344 (17.7)
기타	10 (0.5)
무응답	5 -
계	1953 (100.0)

응답자의 결혼여부를 보면 대다수(81.7%)가 기혼자 였으며, 미혼자는 소수(17.7%)였다.

<그림 2-5> 응답자의 결혼여부



응답수 : 1948 무응답수 : 5

6. 응답자의 출신지역별 분포

<표 2-7> 응답자의 출신지역별 분포

출신지역	빈도 (%)
서울	457 (23.4)
부산	113 (5.8)
대구	83 (4.3)
인천	57 (2.9)
광주	79 (4.0)
대전	46 (2.4)
경기도	108 (5.5)
강원도	134 (6.9)
충청도	71 (3.6)
충남	127 (6.5)
경북	103 (5.3)
경남	155 (7.9)
전북	163 (8.3)
전남	176 (9.0)
제주	27 (1.4)
이탈리아	45 (2.3)
해외, 기타	5 (0.3)
무응답	4 -
계	1953 (100.0)

응답자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상당부분(23.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전남(9.0%), 전북(8.3%), 경남(7.9%) 등의 순이다.

7. 응답자의 현 거주지역별 분포

<표 2-8> 응답자의 현 거주지역별 분포

현거주지역	빈도 (%)
서울	788 (40.5)
부산	143 (7.3)
대구	78 (4.0)
인천	83 (4.3)
광주	92 (4.7)
대전	61 (3.1)
경상	148 (7.6)
충청	73 (3.7)
강원	47 (2.4)
충남	56 (2.9)
경북	44 (2.3)
경남	107 (5.5)
전북	126 (6.5)
전남	71 (3.6)
제주	32 (1.6)
무응답	4 -
계	1953 (100.0)

응답자의 현거주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응답자의 거의 절반(40.5%)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7.6%), 부산(7.3%), 전북(6.5%) 경남(5.5%)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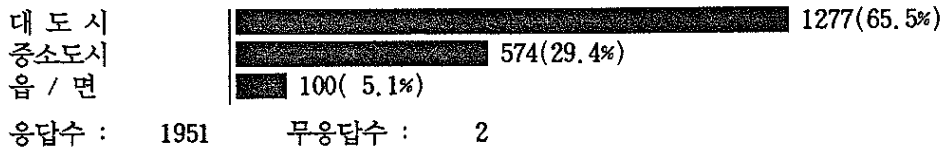
8. 응답자의 행정단위별 거주 분포

<표 2-9> 응답자의 행정단위별 거주 분포

행정단위	빈도 (%)
대도시	1277 (65.5)
중소도시	574 (29.4)
읍 / 면	100 (5.1)
무응답	2 -
계	1953 (100.0)

응답자의 대부분(65.5%)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읍/면 거주자는 극소수이다.

<그림 2-6> 응답자의 행정단위별 거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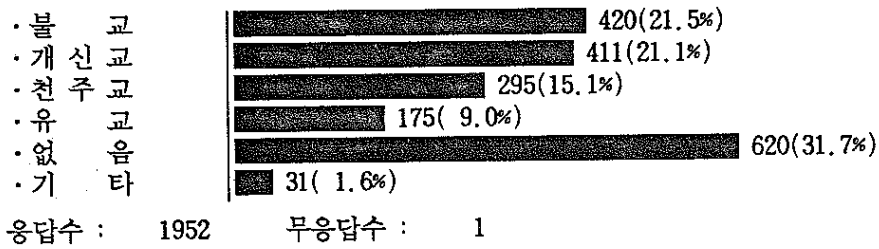
9.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

<표 2-10>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

종 교	빈 도 (%)
불 교	420 (21.5)
개 신 교	411 (21.1)
천 주 교	295 (15.1)
유 교	175 (9.0)
없 음	620 (31.7)
기 타	31 (1.6)
무 응 답	1 -
계	1953 (100.0)

응답자의 종교분포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1.7%), 불교(21.5%)와 개신교(21.1%)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2-7>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



제 3 장 생활환경 및 경제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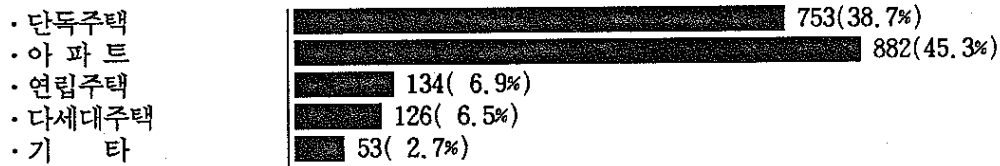
1. 주거형태

<표 3-1> 응답자의 주거형태별 분포

주거형태	빈 도 (%)
단독주택	753 (38.7)
아 파트	882 (45.3)
연립주택	134 (6.9)
다세대주택	126 (6.5)
기 타	53 (2.7)
무 응 답	5 -
계	1953 (100.0)

주거형태별 응답자의 분포는 단독주택과 아 파트가 대부분(84%) 이고, 그외의 주거형태는 소수(16.0%)이다.

<그림 3-1> 응답자의 주거형태별 분포



응답수 : 1948 무응답수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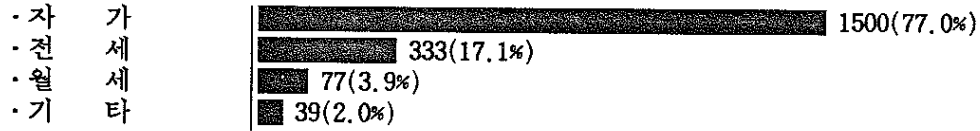
2. 주택소유 유형

<표 3-2> 응답자의 주택소유 유형별 분포

주택소유형태	빈 도 (%)
자 가	1500 (77.0)
전 세	333 (17.1)
월 세	77 (3.9)
기 타	39 (2.0)
무 응 답	4 -
계	1953 (100.0)

응답자의 주택소유 유형은 자가라는 응답이 많지만(77%), 무주택유형으로 응답한 사람도 상당수(23%) 이다.

<그림 3-2> 응답자의 주택소유 유형별 분포



응답수 : 1949 무응답수 : 4

3. 정규직장의 유무

<표 3-3> 정규직장의 유무

정규직장	빈 도 (%)
있 다	1403 (72.4)
없 다	536 (27.6)
무 응 답	14 -
계	1953 (100.0)

응답자의 정규직장 유무를 보면 정규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72.4%) 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부분(27.7%) 되었다.

<그림 3-3> 정규직장의 유무



응답수 : 1943 무응답수 : 11

<표 3-4> 활동분야별 정규직장 유무

정규직장	단위 : %			정규직장	단위 : %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활동분야				활동분야			
문 학	66.5	33.5	8.1	무 용	90.5	9.5	7.1
조형예술	82.0	18.0	27.9	연 극	70.3	29.7	8.5
디 자 인	94.0	6.0	4.3	영 화	54.0	46.0	4.5
양 악	89.9	10.1	14.8	연 예	79.8	20.2	4.8
국 악	40.2	59.8	20.0	계	72.3	27.7	100.0

(무응답수 : 10)

Chi-Square D.F. Significance
345.12035 32 .0000

국악과 영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는 정규직장을 가졌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이다. 영화는 정규직장을 갖지 못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46%), 특히 국악은 정규직장을 갖지 못 했다는 응답자가 가졌다는 응답자보다 오히려 높은 비율(59.8%)을 보여주고 있다.

4. 직업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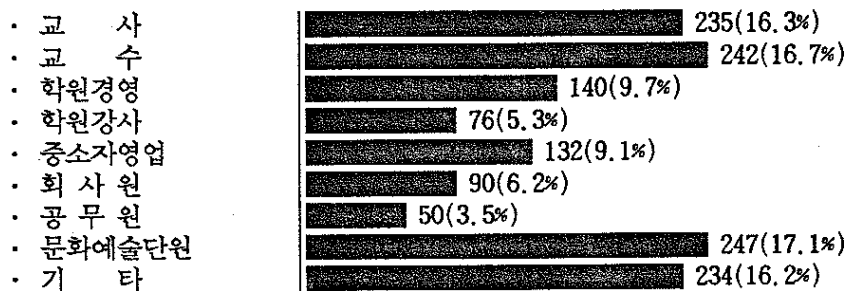
<표 3-5> 직업의 종류

정규직업	빈 도 (%)
교 사	235 (16.3)
교 수	242 (16.7)
학원경영	140 (9.7)
학원강사	76 (5.3)
중소자영업	132 (9.1)
회 사 원	90 (6.2)
공 무 원	50 (3.5)
문화예술단원	247 (17.1)
기 타	234 (16.2)
무 응 답	507 -
계	1953 (100.0)

응답자의 정규직업분포를 살펴보면 교수와 교사등 교직이 가장 많으며(33%), 문화예술단원, 학원경영, 중소기업, 회사원, 학원강사, 공무원의 순이다. 기타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사람도 상당수(16.2%)이다.

여기서 무응답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에 응답한 사람도 직업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림 3-4> 직업의 종류



응답수 : 1446

무응답수 :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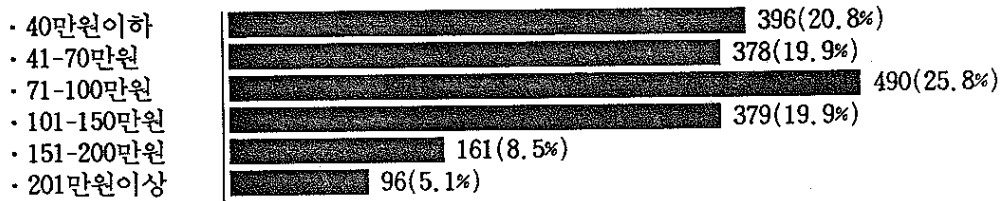
5.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수입

<표 3-6>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수입

월평균수입	빈도 (%)
40만원이하	396 (20.8)
41-70만원	378 (19.9)
71-100만원	490 (25.8)
101-150만원	379 (19.9)
151-200만원	161 (8.5)
201만원이상	96 (5.1)
무응답	53 -
계	1953 (100.0)

응답자의 지난 일년간(1990.7.1-91.6.30) 월
평균 수입 분포를 살펴보면, 150만원 이하에서
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고소득
인 151만원 이상의 응답자도 소수 있다.

<그림 3-5>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수입



응답수 : 1900 무응답수 : 53

<표 3-7> 활동분야별 월평균수입

활동분야	월평균 수입						단위 : % 계
	40만원 이하	4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문 학	12.2	20.5	26.9	25.0	10.3	5.1	8.2
조형예술	10.3	18.7	28.8	23.9	11.4	6.9	28.2
디 자 인	9.1	5.2	11.7	32.5	27.3	14.3	4.1
양 악	7.1	10.7	50.2	23.1	5.3	3.6	14.8
국 악	58.9	22.5	10.7	3.1	2.6	2.1	20.1
무 용	11.5	16.8	13.7	52.7	5.3		6.9
연 극	17.0	30.3	27.3	12.7	9.1	3.6	8.7
영 화	20.5	36.1	9.6	8.4	9.6	15.7	4.4
연 예	11.1	26.7	35.6	14.4	8.9	3.3	4.7
계	20.8	19.9	25.8	19.9	8.5	5.1	100.0

(무응답수 : 53)

Chi-Square	D.F.	Significance
770.08532	40	.0000

활동분야별 월평균 수입을 조사한 결과, 문학, 조형예술, 양악, 연예 분야는 71-1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디자인과 무용 분야는 101-150만원 사이의 응답률이 가장 높아 비교적 고소득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연극, 영화, 그리고 국악 분야에서는 비교적 저소득이라 할 수 있는 70만원 이하의 응답자 비율이 높다. 특히, 최저소득인 4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매우 높은 비율(58.9%)을 차지하고 있는 국악분야는 본 조사에서 다른 우리나라 문화예술인 후생차원의 여러 측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불리한 여건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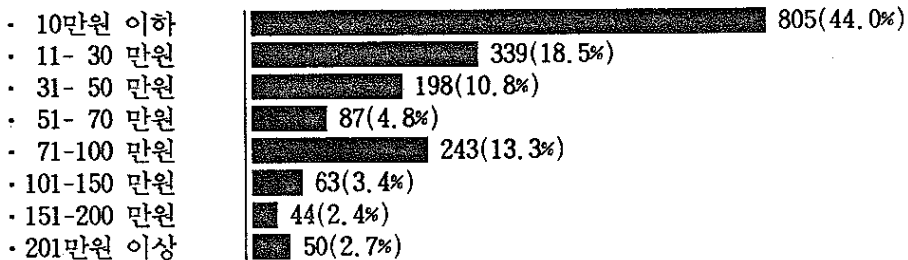
6.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수입

<표 3-8>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수입

월평균수입	빈도 (%)
10만원 이하	805 (44.0)
11-30 만원	339 (18.5)
31-50 만원	198 (10.8)
51-70 만원	87 (4.8)
71-100 만원	243 (13.3)
101-150만원	63 (3.4)
151-200만원	44 (2.4)
201만원이상	50 (2.7)
무응답	124 -
계	1953 (100.0)

응답자의 예술활동과 관련된 월평균수입을 살펴보면 10만원 이하가 대다수(44.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11-30만원(19.9%), 71-100만원(12.4%), 31-50만원(10.8%)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관련 수입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6>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수입



응답수 : 1829

무응답수 : 124

〈표 3-9〉 활동분야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수입

예술활동 관련수입 활동분야	10만원	11-30	31-50	51-70	71-100	101-150	151-200	201만원	단위 : % 계
	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문 학	36.9	46.5	9.6	1.3	1.3	1.9	1.3	1.3	8.6
조형예술	52.0	17.3	13.0	3.4	7.3	2.1	1.7	3.2	29.0
디 자 인	22.7	16.0	14.7		22.7	10.7	4.0	9.3	4.1
양 악	36.3	18.3	6.4	2.4	28.3	4.4	2.4	1.6	13.7
국 악	69.6	12.4	9.0	4.5	1.7		1.7	1.1	19.4
무 용	19.2	10.4	8.8	7.2	52.0	.8	1.6		6.8
연 극	46.3	20.7	9.1	7.3	6.7	4.3	3.7	1.8	9.0
영 화	5.7	14.9	19.5	10.3	19.5	11.5	4.6	13.8	4.8
연 예	13.1	14.3	14.3	17.9	17.9	14.3	7.1	1.2	4.0
계	44.0	18.5	10.8	4.8	13.3	3.4	2.4	2.7	100.0

(무응답수 : 12)

Chi-Square	D.F.	Significance
705.43046	56	.0000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을 보면, 대체로 10만원 이하의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관련수입이 사실상 주소득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디자인, 무용, 영화, 연예 분야는 비교적 높은 수입으로 볼 수 있는 7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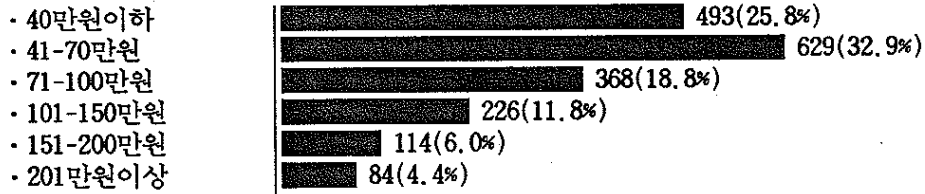
7.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지출

〈표 3-10〉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지출

월평균지출	빈 도 (%)
40만원이하	493 (25.8)
41-70만원	629 (32.9)
71-100만원	368 (19.2)
101-150만원	226 (11.8)
151-200만원	114 (6.0)
201만원이상	84 (4.4)
무 응 답	39 -
계	1953 (100.0)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지출을 살펴보면, 70만원 이하가 대부분(58.8%)이다. 극소수이나 201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림 3-7> 일년간 월평균 지출



응답수 : 1914 무응답수 :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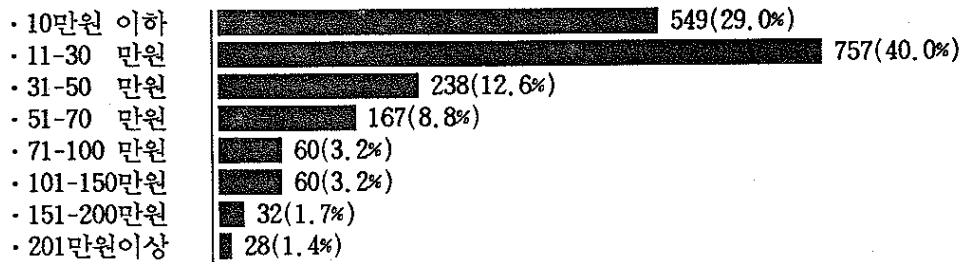
8.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지출

<표 3-11>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지출

월평균지출	빈도 (%)
10만원 이하	549 (29.0)
11-30 만원	757 (40.0)
31-50 만원	238 (12.6)
51-70 만원	167 (8.8)
71-100 만원	60 (3.2)
101-150만원	60 (3.2)
151-200만원	32 (1.7)
201만원이상	28 (1.4)
무응답	62 -
계	1953 (100.0)

예술활동과 관련된 월평균 지출은 30만원 이하가 대부분(69%)이고,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6.3%).

<그림 3-8>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지출



응답수 : 1891 무응답수 : 62

제 4 장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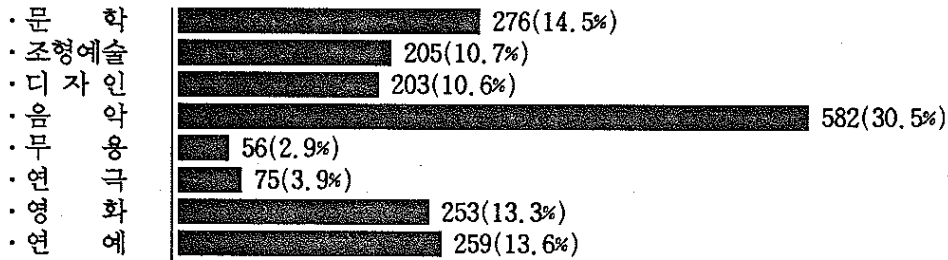
1. 문화예술인이 인식하는 발전 분야

<표 4-1> 문화예술인이 인식하는 가장 발전한 분야

분 야	빈 도 (%)
문 학	276 (14.5)
조형예술	205 (10.7)
디 자 인	203 (10.6)
음 악	582 (30.5)
무 용	56 (2.9)
연 극	75 (3.9)
영 화	253 (13.3)
연 예	259 (13.6)
무 응 답	44 -
계	1953 (100.0)

응답자가 인식하는 문화예술분야별 발전정도는 음악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30.5%), 그 다음으로 문학(14.5%), 연예(13.6%), 영화(13.3%) 등의 순이다.

<그림 4-1> 문화예술인이 인식하는 가장 발전한 분야



응답수 : 1909 무응답수 : 44

<표 4-2> 활동분야별 가장 발전한 분야

발전분야 \ 활동분야	문 학	조형예술	디 자 인	음 악	무 용	연 극	영 화	연 예	단위 :
문 학	52.6	5.2	5.2	16.2	1.9	1.3	7.8	9.7	
조형예술	15.1	29.2	11.8	16.6	.8	2.9	9.2	14.5	
디 자 인	14.8	19.8	34.6	13.6			2.5	14.8	
양 악	5.9	2.1	16.8	52.8	1.0	2.4	7.7	11.2	
국 악	4.9	1.3	3.6	58.4	4.9	5.5	8.1	13.2	
무 용	11.7	2.9	7.3	15.3	8.8	2.9	46.0	5.1	
연 극	21.0	8.0	12.3	18.5	3.1	11.1	9.9	16.0	
영 화	9.2		6.9	11.5			48.3	24.1	
연 예	10.8		7.5	23.7	10.8	8.6	18.3	20.4	
계	14.5	10.7	10.6	30.5	2.9	3.9	13.3	13.6	1

(무응답수 : 44)

Chi-Square	D.F.	Significance
1112.09037	56	.0000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활동분야와 교차분석해 본 결과, 대체로 자기가 속한 분야를 가장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예외적으로 무용인들은 영화(46%)분야를, 연극인들은 문학(21%)분야를, 그리고 연예인들은 음악(약 24%)분야를 가장 발전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표 4-3> 연령별 가장 발전한 분야

연령	발전분야	단위 : %								계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10대		15.4		7.7	7.7	7.7	7.7	38.5	15.4	
20대		7.4	3.5	19.3	26.7	3.9	5.6	17.9	15.8	14.
30대		12.8	10.9	8.1	33.0	2.8	3.6	13.4	15.4	26.
40대		18.0	10.7	9.1	30.0	3.5	4.1	11.1	13.5	28.
50대		14.7	12.7	11.6	34.4	1.6	1.6	13.2	10.3	20.
60대이상		19.1	18.5	6.7	24.2	2.8	6.7	10.1	11.8	9.
계		14.5	10.7	10.6	30.5	2.9	3.9	13.3	13.6	100.

(무응답수 : 4)

Chi-Square	D.F.	Significance
117.86043	35	.0000

발전된 예술분야에 관한 연령별 의견을 보면,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음악을 가장 발전된 분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10대에서는 영화(38.5%)가 가장 발전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예와 문학이 최빈 응답 범주가 되고 있다. 한편, 음악 다음으로 응답이 많은 분야는 20대는 디자인, 30대는 연예, 40대 이상은 문학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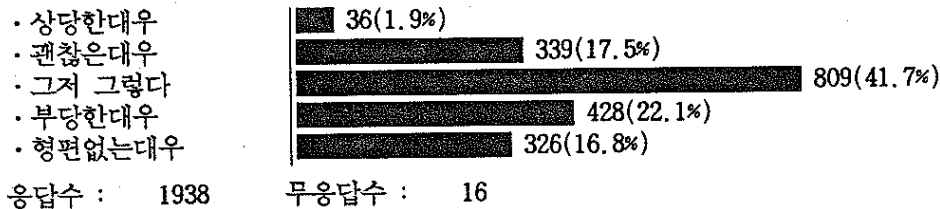
2.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표 4-4〉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사회적대우	빈 도 (%)
상당한대우	36 (1.9)
관찰은대우	339 (17.5)
그저그렇다	809 (41.7)
부당한대우	428 (22.1)
형편없는대우	326 (16.8)
무응답	15 -
계	1953 (100.0)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대우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저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41.7%). 그리고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다고 한 경우가 38.9%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사회적 대우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표 4-5〉 활동분야별 사회적 대우에 관한 의견

사회적 대우	단위 : %					계
	상당한 대우를 받고있다	관찰은 대우를 받고있다	그저그런 편이다	좀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있다	
문 학	1.3	18.5	41.4	25.5	13.4	8.1
조형예술	1.7	17.9	48.1	21.8	10.4	27.7
디 자 인	6.0	31.3	54.2	7.2	1.2	4.3
양 악	3.5	41.1	37.3	14.3	3.8	14.8
국 악	1.0	7.7	26.8	23.2	41.3	20.2
무 용		8.0	70.1	18.2	3.6	7.1
연 극	1.8	7.9	40.0	25.5	24.8	8.5
영 화		5.7	42.5	46.0	5.7	4.5
연 예	3.2	11.7	31.9	27.7	25.5	4.9
계	1.9	17.5	41.7	22.1	16.8	100.0

(무응답수 : 15)

Chi-Square	D.F.	Significance
493.67302	32	.0000

활동분야별로 사회적 대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분야는 디자인과 양악이었으며, 나머지 분야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국악은 대다수가(41.3%)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인 가운데 사회적 대우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예술인은 양악인들인 반면, 사회적 대우에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예술인은 국악인들이라 할 수 있다.

<표 4-6> 성별 사회적 대우에 관한 의견

단위 : %

성별	사회적 대우	상당한 대우를 받고있다	괜찮은 대우를 받고있다	그저 그런 편이다	좀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있다	계
남 자	1.9	15.0	38.3	22.6	22.2	64.8	
여 자	1.8	21.8	48.1	21.3	7.0	35.2	
계	1.9	17.4	41.8	22.1	16.8	100.0	

(무응답수 : 18)

Chi-Square	D.F.	Significance
88.04037	8	.0000

성별과 사회적 대우에 관한 의견을 교차분석한 결과, 남자보다는 오히려 여자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사회적 대우에 있어 상대적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문화예술인에 관한 한 남녀의 차별대우 현상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표 4-7> 연령별 사회적 대우에 관한 의견

연령	사회적 대우	단위 : %					계
		상당한 대우를 받고있다	괜찮은 대우를 받고있다	그저 그런 편이다	좀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있다	
10 대		7.7	15.4	38.5	38.5		.7
20 대		1.7	24.2	36.0	27.0	11.1	14.9
30 대		1.9	21.7	38.6	19.8	17.9	26.6
40 대		2.6	18.2	46.1	17.1	16.0	28.1
50 대		1.3	9.1	44.7	21.2	23.7	20.4
60대이상		.6	11.0	40.3	36.5	11.6	9.3
계		1.9	17.5	41.7	22.1	16.8	100.0

(무응답수 : 15)

Chi-Square	D.F.	Significance
98.32833	20	.0000

사회적 대우에 관한 연령별 의견을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그저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대체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30-50대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이는 특히 50대(23.7%)에서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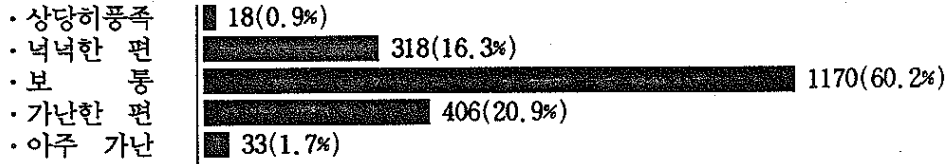
3.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표 4-8>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생활수준	빈도 (%)
상당히풍족	18 (0.9)
넉넉한편	318 (16.3)
보통	1170 (60.2)
가난한편	406 (20.9)
아주가난	33 (1.7)
무응답	8 -
계	1953 (100.0)

응답자의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60.2%)이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인식이 넉넉하다는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응답수 : 1945 무응답수 : 8

<표 4-9> 활동분야별 자신의 생활수준에 관한 평가

생활수준	단위 : %					계
	상당히 풍족한 편이다	넉넉한 편이다	보통이다	가난한 편이다	아주 가난하다	
문 학	.6	24.2	63.1	10.8	1.3	8.1
조형예술	2.0	18.7	63.1	14.3	1.9	27.8
디 자 인		27.7	65.1	7.2		4.3
양 악		35.9	59.2	4.2	.7	14.8
국 악	.5	5.8	41.3	49.1	3.3	20.3
무 용	.7	7.3	86.1	5.1	.7	7.0
연 극		5.5	69.1	24.2	1.2	8.5
영 화		4.6	50.6	44.8		4.5
연 예	3.2	7.4	71.3	14.9	3.2	4.8
계	.9	16.3	60.2	20.9	1.7	100.0

(무응답수 : 8)

Chi-Square	D.F.	Significance
474.84107	32	.0000

국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악은 「가난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양악, 무용은 생활수준이 넉넉한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국악, 연극, 영화, 연예 분야는 가난한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10> 연령별 자신의 생활수준에 관한 평가

연령	생활수준					계
	상당히 족족한 편이다	넉넉한 편이다	보통이다	가난한 편이다	아주 가난하다	
10 대		7.7	76.9	15.4		7
20 대	.7	8.7	68.5	19.0	3.1	14.9
30 대	.6	16.6	58.8	22.1	1.9	26.6
40 대	1.3	20.8	59.6	17.5	.9	28.0
50 대	1.0	18.8	53.8	24.8	1.8	20.6
60대이상	1.1	9.9	65.4	22.5	1.1	9.4
계	.9	16.3	60.2	20.9	1.7	100.0

(무응답수 : 8)

Chi-Square	D.F.	Significance
46.46936	20	.0007

전 연령층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는 많은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은 넉넉한 편보다는 「가난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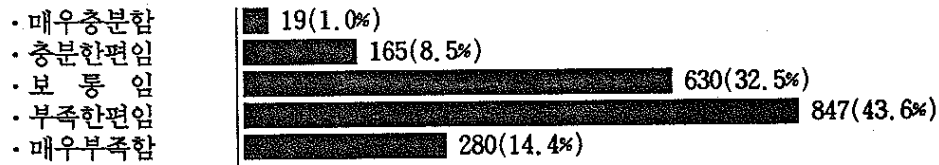
4. 작품발표 기회

<표 4-11> 작품발표 기회

작품발표기회	빈 도 (%)
매우충분함	19 (1.0)
충분한편임	165 (8.5)
보 통 임	630 (32.5)
부족한편임	847 (43.6)
매우부족함	280 (14.4)
무 응 답	12 -
계	1953 (100.0)

응답자의 작품발표기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면, 부족하다고 한 경우가 절반이상(58%)이고 보통이다 라고 대답한 경우도 높은 비율(32.5%)을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대다수는 작품발표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림 4-4> 작품발표 기회



응답수 : 1941 무응답수 : 12

<표 4-12> 활동분야별 작품발표 기회에 관한 평가

단위 : %

활동분야	발표기회 :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충분한 편이다	보통 정도이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	계
문 학			7.7	34.6	45.5	12.2	8.0
조형예술	2.0		15.7	36.2	40.1	5.9	27.9
디 자 인	1.2		20.7	48.8	28.0	1.2	4.2
양 악	1.0		5.6	50.3	37.1	5.9	14.7
국 악	.3		3.8	25.2	30.8	39.9	20.2
무 용			4.4	12.4	76.6	6.6	7.1
연 극			1.8	20.0	67.3	10.9	8.5
영 화				33.3	59.8	6.9	4.5
연 예	3.2		11.7	19.1	43.6	22.3	4.8
계	1.0		8.5	32.5	43.6	14.4	100.0

(무응답수 : 12)

Chi-Square	D.F.	Significance
501.42803	32	.0000

활동분야별 작품발표기회에 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디자인과 양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국악분야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13> 연령별 작품발표 기회에 관한 평가

연령	단위 : %					계
	발표기회 매우 충분하다	충분한 편이다	보통 정도이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	
10 대		15.4	7.7	61.5	15.4	.7
20 대		5.2	35.2	44.9	14.6	14.8
30 대	1.4	10.1	24.0	50.4	14.1	26.6
40 대	.9	10.7	34.9	38.6	14.9	28.0
50 대	.8	6.5	33.3	42.5	17.0	20.6
60대이상	2.2	6.6	44.8	38.7	7.7	9.3
계	1.0	8.5	32.5	43.6	14.4	100.0

(무응답수 : 12)

Chi-Square	D.F.	Significance
60.46503	20	.0000

작품발표 기회에 대한 연령별 평가를 보면, 10-40대까지는 「부족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50대 이상은 보통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작품발표 기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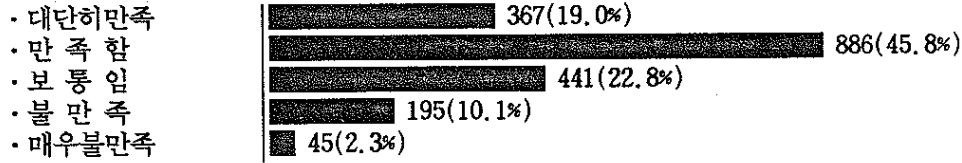
5. 직업 만족도

<표 4-14> 직업 만족도

만족도	빈도 (%)
대단히만족	367 (19.0)
만족함	886 (45.8)
보통임	441 (22.8)
불만족	195 (10.1)
매우불만족	45 (2.3)
무응답	19 -
계	1953 (100.0)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활동분야에 대해 갖는 직업으로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또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대부분(87.6%)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은 사회적 대우나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에 비해 직업만족도가 훨씬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4-5> 직업 만족도



응답수 : 1934 무응답수 : 19

<표 4-15> 활동분야별 직업 만족도

만족도	단위 : %					계
	대단히 만족함	만족 스러운 편	그저 그렇다	만족 스럽지 않은 편	전혀 만족스럽 지 않다	
문 학	23.9	39.4	23.2	12.3	1.3	8.0
조형예술	15.3	46.9	26.1	10.2	1.5	27.8
디 자 인	12.0	59.0	27.7	1.2		4.3
양 악	16.1	57.9	20.4	5.6		14.7
국 악	37.5	24.0	22.4	11.7	4.3	20.3
무 용	5.9	77.9	11.8	3.7	.7	7.0
연 극	17.0	44.8	22.4	8.5	7.3	8.5
영 화	5.7	64.4	14.9	14.9		4.5
연 예	4.3	30.9	31.9	27.7	5.3	4.9
계	19.0	45.8	22.8	10.1	2.3	100.0

(무응답수 : 19)

Chi-Square	D.F.	Significance
317.96588	32	.0000

활동분야별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은 분야에 상관 없이 자신의 활동분야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대우, 생활수준 및 작품발표 기회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국악분야에서 조차 직업으로서의 만족도가 높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직업 만족도에는 외적인 보상보다는 예술활동자체에서 얻는 내적인 만족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표 4-16> 연령별 직업 만족도

연령	만족도	단위 : %					계
		대단히 만족함	만족 스러운 편	그저 그렇다	만족 스럽지 않은 편	전혀 만족스럽 지 않다	
10 대		8.3	75.0	8.3		8.3	.6
20 대		9.0	60.8	17.0	11.5	1.7	14.9
30 대		19.1	46.3	24.1	8.8	1.8	26.6
40 대		18.6	51.2	20.6	7.4	2.2	28.1
50 대		26.4	32.5	27.7	11.3	2.0	20.5
60대이상		20.0	31.7	25.0	17.8	5.6	9.3
계		19.0	45.8	22.8	10.1	2.3	100.0

(무응답수 : 19)

Chi-Square	D.F.	Significance
111.06785	20	.0000

모든 연령층에서 「만족스러운 편」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다. 대체로 보아 연령층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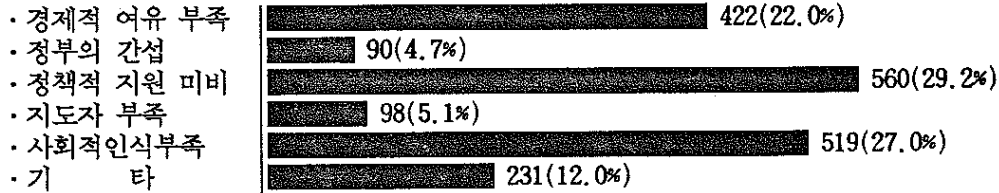
6.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

<표 4-17>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

장애요인	빈도 (%)
경제적여유부족	422 (22.0)
정부의 간섭	90 (4.7)
정책지원 미비	560 (29.2)
지도자 부족	98 (5.1)
사회적인식부족	519 (27.0)
기 타	231 (12.0)
무 응 답	33 -
계	1953 (100.0)

응답자가 인식하는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은 정책적·제도적 지원 미비(29.2%), 사회적 인식부족(27.0%), 경제적 여유부족(22.0%)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기타가 상당 비율(12%)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에는 시간부족, 복수응답 등이 대부분이다.

<그림 4-6>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



응답수 : 1920 무응답수 : 33

<표 4-18> 활동분야별 창작활동 장애요인

장애요인 활동분야	단위 : %						계
	경제적 여유가 없다	정부의 간섭이 많다	정책적 제도적 지원미비	지도자가 부족하다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기 타	
문 학	24.7	3.2	29.9	2.6	24.0	15.6	8.0
조형예술	26.2	2.8	28.6	4.5	30.1	8.0	28.1
디 자 인	33.3	3.7	37.0	6.2	17.3	2.5	4.2
양 악	12.3	14.0	34.7	3.2	11.6	24.2	14.8
국 악	17.4	1.3	20.3	9.4	47.4	4.2	20.0
무 용	12.9		18.2	2.3	19.7	47.0	6.9
연 극	24.4	7.3	40.9	5.5	15.9	6.1	8.5
영 화	40.2	5.7	33.3		19.5	1.1	4.5
연 예	23.4	5.3	35.1	8.5	23.4	4.3	4.9
계	22.0	4.7	29.2	5.1	27.0	12.0	100.0

(무응답수 : 33)

Chi-Square	D.F.	Significance
501.23066	40	.0000

문학, 디자인, 양악, 연극, 연예 분야는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조형예술과 국악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영화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에, 무용은 「기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작품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강화 되어야겠고, 특히 조형예술과 국악분야의 경우 우리 국민의 사회문화적 예술수용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분야별 예술활동 실태

1. 문학분야

(1) 문학분야의 활동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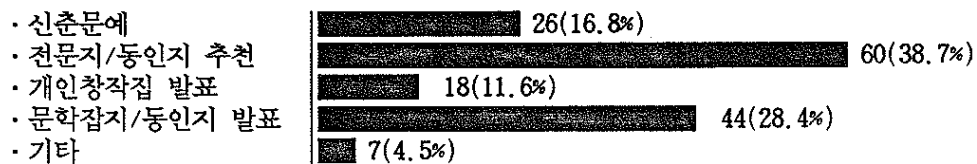
〈표 5-1-1〉 문학분야의 활동부문

분 야	빈도수 (%)
시	64 (41.0)
시 조	10 (6.4)
소 설	26 (16.7)
수 필	30 (19.2)
희 곡	5 (3.2)
아 동	16 (10.3)
평 론	3 (1.9)
기 타	2 (1.3)
무 응 답	2 -
계	158 (100.0)

응답자 총 158명의 각 활동부문별 비율을 살펴보면, 시부문이 가장 높은 비율(41.0%)로 집계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수필, 소설의 순이다.

(2) 문학분야의 첫 활동방식

〈그림 5-1-1〉 문학분야의 첫 활동방식



응답수 : 155 무응답수 : 3

문학인은 전문지나 동인지 추천으로 등단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38.7%)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학잡지 및 동인지 발표, 신춘문예 등에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문학분야가 비교적 많은 전문지를 갖고 있고 추천방식이 다원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개인창작집 발표는 11.6%에 불과해 문학인의 등단 유형이 신춘문예등 주로 공개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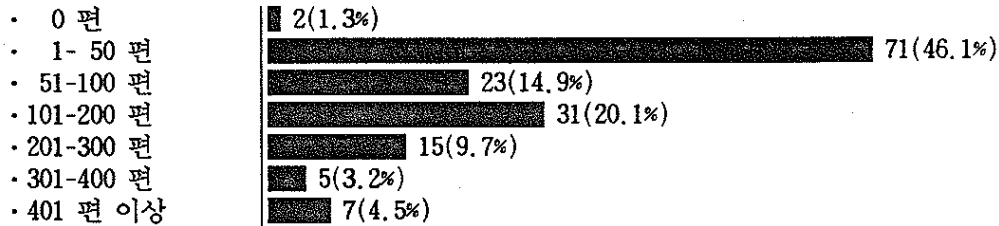
(3) 문학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표 5-1-2> 문학분야 부문별 통산 발표작품수

부 문	평균발표작품수
시	158.2 (63)
시 조	155.0 (10)
소 설	45.8 (25)
수 필	66.5 (30)
회 곡	17.2 (5)
아동문학	215.6 (16)
평 론	76.7 (3)
기 타	115.0 (2)
Total	121.1 (154)

아동문학이 약 216편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 시조의 순이다.

<그림 5-1-2> 문학분야 1인당 통산 발표작품수



응답수 : 154 무응답수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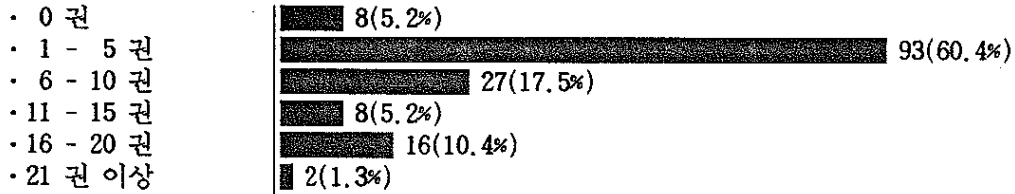
문학인들의 통산 발표작품수는 1인당 평균 약 121편으로 집계되었다. 통산 평균이 50편 이하인 작가가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표 5-1-3> 문학분야 부문별 통산 간행책수

부 문	평균간행책수
시	5.2 (63)
시 조	6.9 (10)
소 설	10.0 (25)
수 필	5.0 (30)
회 곡	5.8 (5)
아동문학	8.4 (16)
평 론	8.7 (3)
기 타	0 (2)
계	6.4 (154)

부문별 통산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소설 부문이 10.0권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평론, 아동문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3> 문학분야 1인당 통산 간행책수



응답수 : 154 무응답수 : 4

문학인은 등단이후 1인당 평균 6.4권의 책을 간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등단이후 1권도 발표하지 않은 작가도 있으며(5.2%), 5권이하인 작가가 대부분(65.6%)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다작으로 볼 수 있는 21권이상을 발표한 작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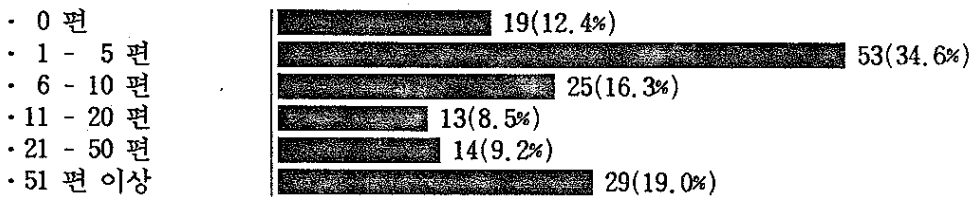
(4) 문학분야의 연간(1990.7.1-1991.6.30) 작품활동

<표 5-1-4> 문학분야 부문별 연간 발표작품수

부 문	평균발표작품수
시	38.3 (63)
시 조	16.5 (10)
소 설	2.6 (24)
수 필	7.0 (30)
회 곡	4.0 (5)
아동문학	52.8 (16)
평 론	1.3 (3)
기 타	0.0 (2)
계	24.2 (153)

지난 한해동안 부문별 평균발표 작품수를 비교해보면 아동문학이 52.8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 시조, 수필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림 5-1-4> 문학분야 1인당 연간 발표작품수



응답수 : 153 무응답수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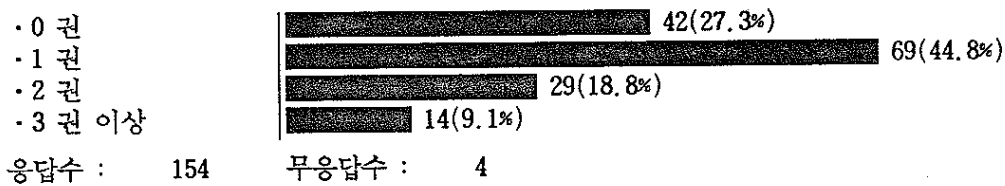
지난 한해동안 1인당 평균 발표작품수는 24.3편으로 집계 되었다. 51편 이상으로 다작한 작가가 비교적 높은 비율(19.0%)을 차지하고 있으나, 1편도 발표하지 않은 작가도 적지않은 비율(12.4%)을 차지하고 있어 작품활동의 편중성이 엇보인다. 전체의 6할 이상이 연간 10편이하의 작품발표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문학분야 부문별 연간 간행책수

부 문	평균간행책수
시	1.0 (63)
시 조	0.8 (10)
소 설	1.1 (25)
수 필	1.9 (30)
회 곡	1.4 (5)
아동문학	1.5 (16)
평 론	0.7 (3)
기 타	6.0 (2)
계	1.3 (154)

지난 일년간 1인당 평균 간행책 수가 가장 많은 부문은 수필(1.9권)이며, 가장 적은 부문은 평론(0.7권)이다.

<그림 5-1-5> 문학분야 1인당 연간 간행책수



지난 1년간 1권 이상의 창작집을 간행한 작가는 7할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전체평균은 1인당 1.3권을 간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권도 간행하지 않은 작가도 상당히 높은 비율(27.3%)을 차지하고 있다.

2. 조형예술분야

(1) 조형예술분야의 활동부문

<표 5-2-1> 조형예술분야의 활동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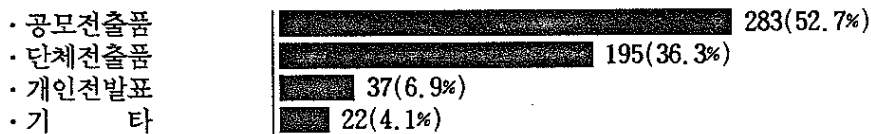
부 문	빈도수 (%)
서 양 화	168 (31.1)
한 국 화	78 (14.4)
판 화	8 (1.5)
서 예	45 (8.3)
조 각	48 (8.9)
공 예	35 (6.5)
사 진	156 (28.8)
평 론	2 (0.4)
기 타	1 (0.2)
무 응 답	3 -
계	544 (100.0)

응답자 총 544명의 각 활동부문별 비율을 살펴보면, 서양화와 사진 양부문이 상당부분의 비율(약 60%)을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한국화, 조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조형예술분야의 첫 활동방식

<그림 5-2-1> 조형예술분야의 첫 활동방식



응답수 : 537 무응답수 : 7

조형예술인들의 활동 시작은 공모전출품에 의한 경우가 높은 비율(52.7%)을 점하고 있다. 이는 매우 높은 공개 경쟁을 통한 입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단체전 출품이 비교적 높은 비율(36.3%)인데 반하여, 개인전 발표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6.9%) 단체활동이 두드러지는 면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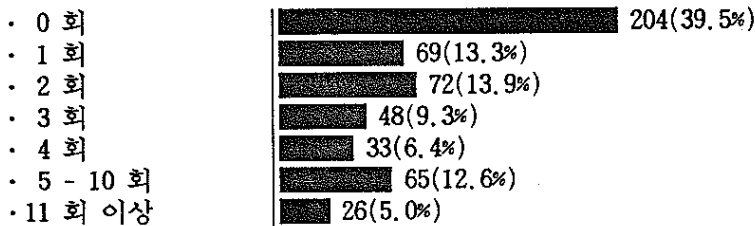
(3) 조형예술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표 5-2-2>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통산 개인작품전수

부 문	평균개인작품전수
서양화	3.8 (164)
한국화	3.2 (75)
판화	3.1 (8)
서예	2.5 (45)
조각	2.3 (44)
공예	2.2 (35)
사진	1.5 (143)
평론	0 (2)
계	2.7 (516)

서양화가 3.8회로 가장 빈번한 개인작품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한국화, 판화 등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2> 조형예술분야 1인당 통산 개인작품전수



응답수 : 517 무응답수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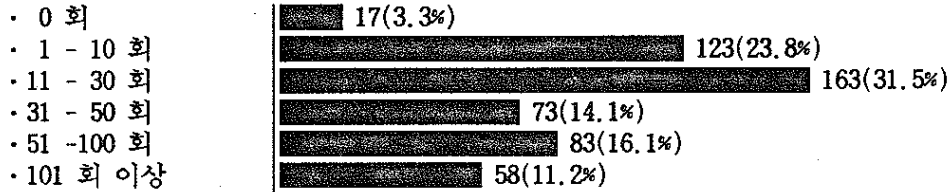
1인당 평균 통산 개인전수는 2.7회로 집계 되었다. 한번도 개인전을 갖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비율(39.5%)을 보이고 있어 개인전 활동이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2-3>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통산 단체작품전수

부 문	평균단체작품전수
서양화	64.1 (164)
한국화	45.4 (75)
판화	46.6 (8)
서예	73.9 (45)
조각	46.6 (44)
공예	28.9 (35)
사진	35.2 (143)
평론	0 (2)
계	49.8 (516)

부문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부문은 서예로 통산 73.9회로 나타났고, 서양화도 64.1회로 비교적 많은 단체전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으로 판화, 조각, 한국화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5-2-3> 조형예술분야 1인당 통산 단체작품전수



응답수 : 517 무응답수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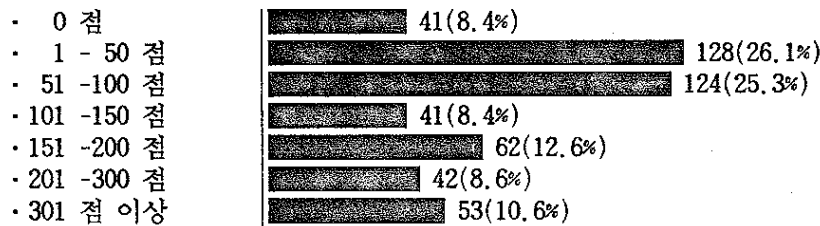
1인당 평균 통산 단체전수는 49.8회로 집계 되었다. 개인전과는 달리 단체전 활동은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고, 101회 이상이 비교적 높은 비율(11.2%)을 차지하고 있어, 조형예술분야의 예술활동이 단체전의 양상으로 보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4>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통산 발표작품수

부 분	평균발표작품수
서 양 화	175.7 (154)
한 국 화	125.9 (66)
판 화	122.5 (8)
서 예	178.2 (43)
조 각	93.4 (44)
공 예	164.3 (35)
사 진	118.0 (138)
평 론	0 (2)
계	143.2 (490)

서예가 가장 많은 약 178점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서양화, 공예가 비슷한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화, 판화, 사진이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5-2-4> 조형예술분야 1인당 통산 발표작품수



응답수 : 491 무응답수 :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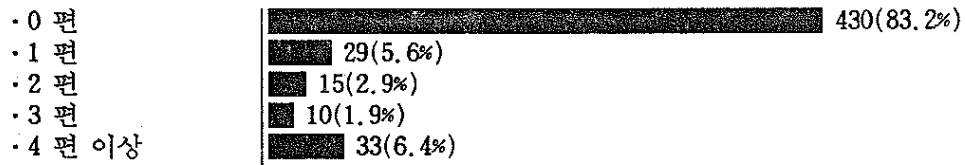
조형예술분야의 1인당 평균 통산 작품수는 약 143점으로 집계 되었다. 100점 이하가 대부분을(약 60%) 차지하고, 301점이상 다작의 경우는 10.6% 이다.

<표 5-2-5>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부 문	평균논문수/간행책수
서양화	0.8 (164)
한국화	3.6 (75)
판화	5.4 (8)
서예	0.5 (45)
조각	0.2 (44)
공예	1.1 (35)
사진	0.6 (143)
평론	162.0 (2)
계	1.8 (516)

평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간행 활동은 극히 미미하다. 다만, 판화부문의 활동이 다소 엇보인다(5.4편).

<그림 5-2-5> 조형예술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응답수 : 517 무응답수 : 27

조형예술인의 1인당 평균 간행활동은 약 1.8편으로 집계되었다. 조형예술인의 간행활동은 매우 저조하여 1편이라도 발간한 경우는 16.8%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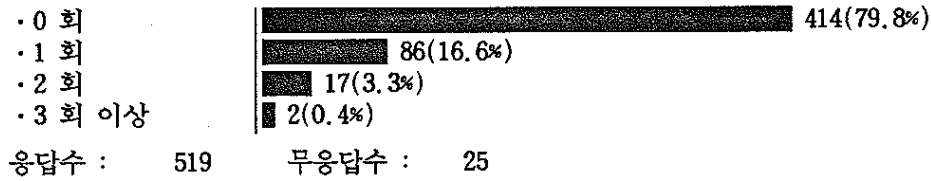
(4) 조형예술분야의 연간(1990.7.1-1991.6.30) 작품활동

<표 5-2-6>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연간 개인작품전수

부 문	평균개인작품전수
서양화	0.2 (165)
한국화	0.4 (76)
판화	0.5 (8)
서예	0.3 (45)
조각	0.4 (44)
공예	0.2 (35)
사진	0.1 (143)
평론	0.0 (2)
계	0.2 (518)

지난 한해동안 개인작품전이 가장 빈번했던 부문은 판화로 0.5회이고, 한국화, 조각, 서예 부문이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5-2-6> 조형예술분야 1인당 연간 개인작품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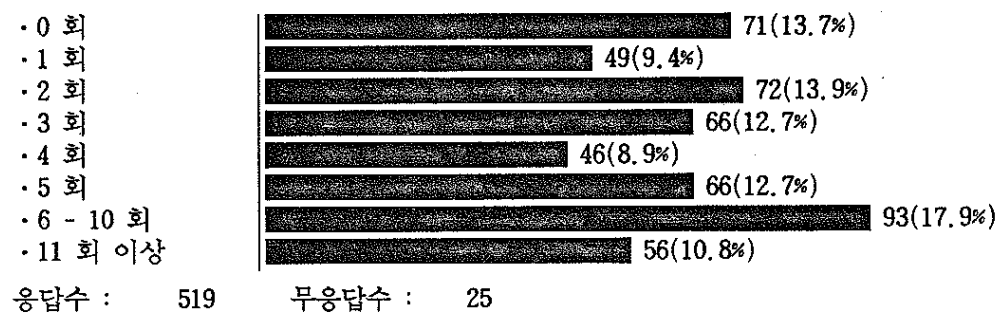
지난 한해동안 1인당 평균 개인 작품전수는 0.2회로 집계되었다. 개인전 활동은 매우 저조하여 거의 대다수(79.8%)가 개인전을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연간 단체작품전수

부 문	평균단체작품전수
서 양 화	7.1 (165)
한 국 화	6.5 (76)
판 화	4.6 (8)
서 예	5.8 (45)
조 각	4.8 (44)
공 예	3.8 (35)
사 진	3.4 (143)
평 론	0 (2)
계	5.4 (518)

서양화가 7.1회로 지난 한해동안 가장 빈번한 단체작품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화, 서예 부문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5-2-7> 조형예술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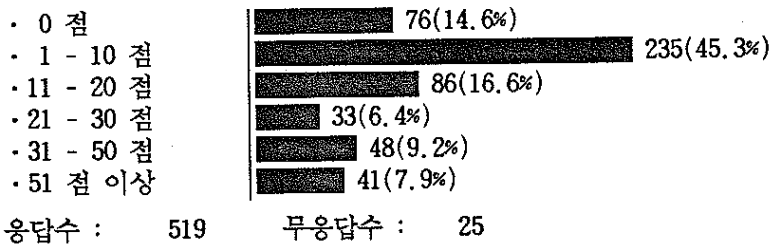
연간 1인당 평균 단체전 활동은 5.4회로 집계되었다. 5회이하가 대부분(71.3%) 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5-2-8>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연간 발표작품수

부 문	평균발표작품수
서 양 화	19.8 (165)
한 국 화	26.5 (76)
판 화	21.8 (8)
서 예	18.4 (45)
조 각	15.0 (44)
공 예	18.9 (35)
사 진	13.0 (143)
평 론	0 (2)
계	18.3 (518)

지난 한해동안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한 분야는 한국화로 26.5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판화, 서양화, 공예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5-2-8> 조형예술분야 1인당 연간 발표작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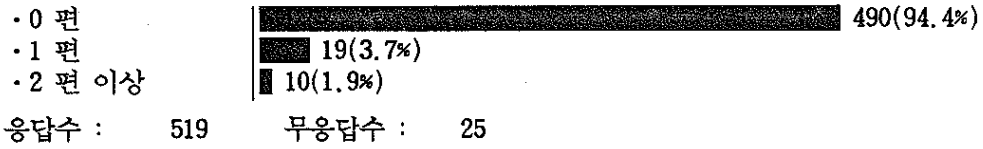
지난 한해동안 1인당 평균 발표작품수는 18.3점으로 집계되었다. 10점 이하에 많은 분포(약 60%)를 보이고 있으며, 한 점도 발표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9> 조형예술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부 문	평균논문수/간행책수
서 양 화	0.16 (165)
한 국 화	0.05 (76)
판 화	1.13 (8)
서 예	0.04 (45)
조 각	0.02 (44)
공 예	0.11 (35)
사 진	0.12 (143)
평 론	12.00 (2)
계	0.17 (518)

평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활동은 극히 미미하다. 판화부문이 약 1.1회로서 여타 부문에 비해 활발한 편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5-2-9> 조형예술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지난 한해동안 관련서적 및 논문 간행활동은 약 0.2편으로 집계되었다. 1편이라도 발간한 조형예술인은 5.6%에 불과했다.

3. 디자인분야

(1) 디자인분야의 활동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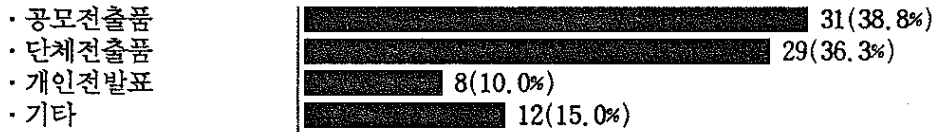
<표 5-3-1> 디자인분야의 활동부문

부 문	빈도수(%)
건축	31 (37.3)
시각	25 (30.1)
산업	21 (25.3)
평론	5 (6.0)
기타	1 (1.2)
계	83 (100.0)

응답자 총 88명의 각 활동부문별 비율을 살펴보면, 건축디자인이 가장 많은 비율(37.3%)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평론 순이다.

(2) 디자인분야의 첫 활동방식

<그림 5-3-1> 디자인분야 첫 활동방식



응답수 : 80 무응답수 : 3

디자인분야 예술인들은 공모전 출품과 단체전 출품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방식이 대부분(약 75%)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개인전 보다는 공개경쟁이나 집단활동 방식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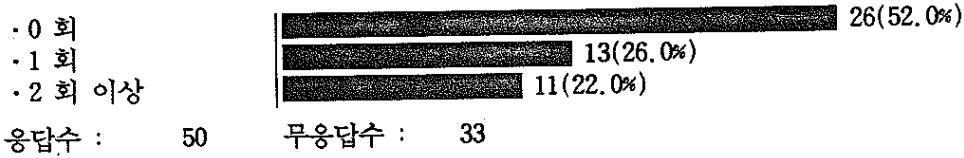
(3) 디자인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표 5-3-2> 디자인분야 부문별 통산 개인작품전수

부 문	평균개인작품전수
건축	0.4 (19)
시각	0.6 (16)
산업	4.0 (15)
계	1.6 (50)

개인작품전은 산업디자인 부문이 4회로 가장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인전의 활동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2> 디자인분야 1인당 통산 개인작품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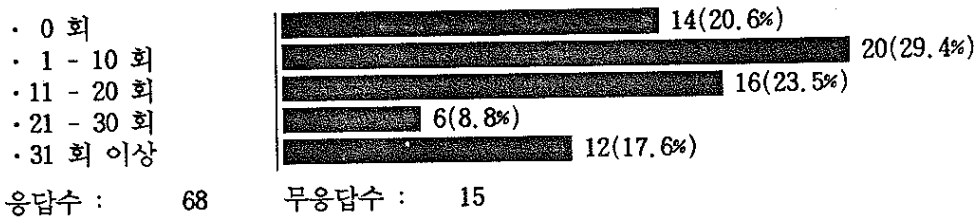
한번도 개인전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52%) 것으로 집계 되었다. 디자인분야 예술인들이 개인전에 상당히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3-3> 디자인분야 부문별 통산 단체작품전수

부 문	평균단체작품전수
건축	5.0 (27)
시각	48.9 (19)
산업	66.4 (17)
평론	0.6 (5)
계	32.3 (68)

산업디자인 부문과 시각디자인 부문의 단체전 활동은 활발한 편이나, 건축을 비롯한 여타 부문의 활동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3> 디자인분야 1인당 통산 단체작품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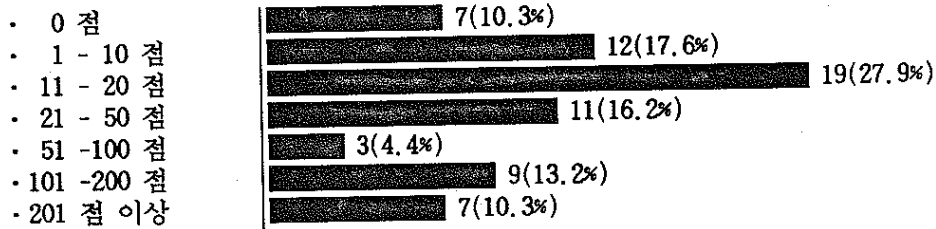
1인당 통산 단체전수는 32.3회로 집계되었다. 단체전 활동은 회수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한번도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분포(20.6%)를 차지하고 있다.

<표 5-3-4> 디자인분야 부문별 통산 발표작품수

부 문	평균발표작품수
건축	48.0 (27)
시각	63.2 (19)
산업	133.4 (17)
평론	0.6 (5)
계	70.1 (68)

산업디자인 부문의 작품수가 133.4점으로 가장 많은 작품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 시각디자인, 건축디자인의 순이다.

<그림 5-3-4> 디자인분야 1인당 통산 발표작품수



응답수 : 68 무응답수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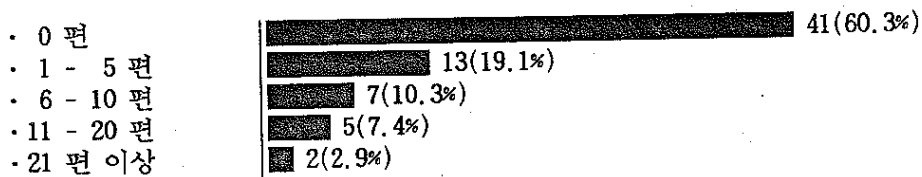
1인당 평균 작품수는 20점 이하가 대부분(약 56%)이나, 101점 이상인 경우도 비교적 높은 분포(약 24%)를 보이고 있다.

<표 5-3-5> 디자인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부 문	평균논문수/간행책수
건 축	3.0 (27)
시 각	0.3 (19)
산 업	1.9 (17)
평 론	25.4 (5)
계	3.6 (68)

평론부문이 25.4편의 간행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외 부문에서는 건축디자인, 산업디자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3-5> 디자인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응답수 : 68 무응답수 : 15

전혀 간행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60.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1편 이상을 간행한 경우는 1할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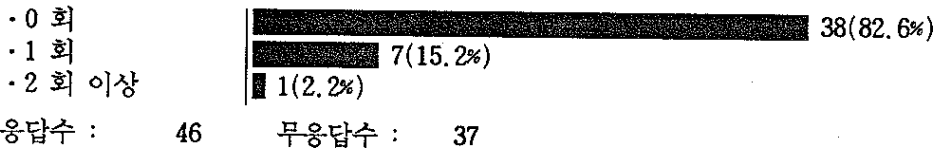
(4) 디자인분야의 연간(1990.7.1-1991.6.30) 작품활동

<표 5-3-6> 디자인분야 부문별 연간 개인작품전수

부 문	평균개인작품전수
건축	0.2 (19)
시각	0.1 (16)
산업	0.4 (11)
계	0.2 (46)

지난 한해동안 가장 많은 개인전 활동을 한 산업디자인 부문도 0.4회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개인전 활동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6> 디자인분야 1인당 연간 개인작품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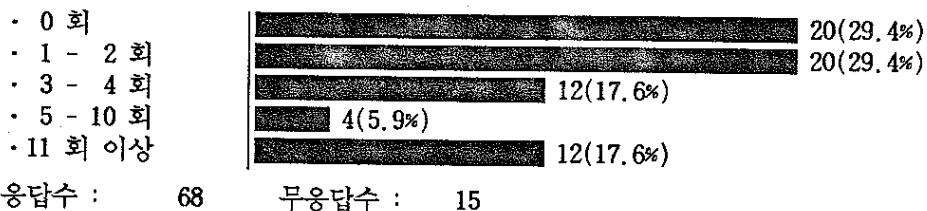
지난 한해동안의 개인전 활동은 1인당 평균 0.2회로 집계되었다. 한번도 개인전 경험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82.6%)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디자인분야 부문별 연간 단체작품전수

부 문	평균단체작품전수
건축	0.7 (27)
시각	8.1 (19)
산업	10.7 (17)
평론	0.0 (5)
계	5.2 (68)

지난 한해동안 단체전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부문은 산업디자인으로서 10.7회 정도로 집계되었다. 그외에는 시각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별 뚜렷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7> 디자인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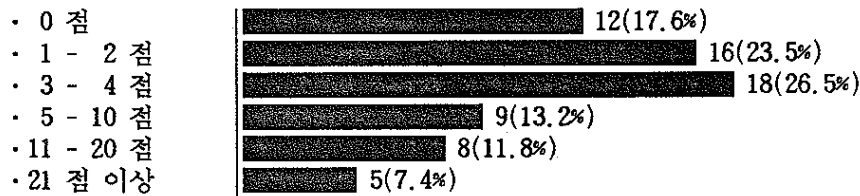
지난 한해동안 1인당 평균 단체전 활동은 5.2회 정도로 집계되었다. 1-2회가 가장 많은 비율(29.4%)로 나타났다. 단체전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높은 비율(29.4%)을 차지하고 있으나, 11회 이상의 경우도 비교적 높은 분포(17.6%)를 보이고 있다.

<표 5-3-8> 디자인분야 부문별 연간 발표작품수

부 문	평균발표작품수
건축	3.3 (27)
시각	8.1 (19)
산업	15.3 (17)
평론	0.2 (5)
계	7.4 (68)

지난 한해동안 가장 활발한 작품활동을 부문은 산업디자인으로 15.3점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각디자인, 건축 디자인 순이다.

<그림 5-3-8> 디자인분야 1인당 연간 발표작품수



응답수 : 68 무응답수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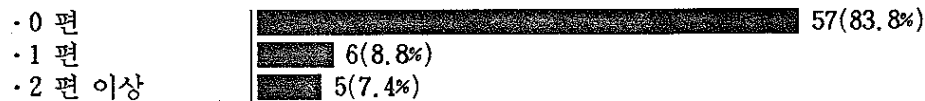
지난 한해동안 디자인분야 예술인 들은 1인당 평균 7.4점의 작품 발표를 한것으로 집계되었다. 3-4점의 작품을 발표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26.5%) 나타났다.

<표 5-3-9> 디자인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부 문	평균논문수/간행책수
건축	0.4 (27)
시각	0.0 (19)
산업	0.0 (17)
평론	6.2 (5)
계	0.6 (68)

평론(6.2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간행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9> 디자인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응답수 : 68 무응답수 : 15

지난 한해동안 간행활동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약 84%)을 차지하고 있다. 2편 이상의 경우는 1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4. 양악분야

(1) 양악분야의 활동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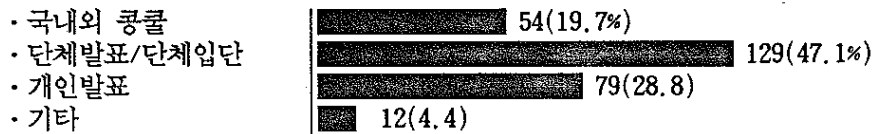
<표 5-4-1> 양악분야의 활동부문

부 문	빈도수 (%)
성 악	85 (29.8)
건 반 악	64 (22.5)
현 악	52 (18.2)
관 악	32 (11.2)
타 악	9 (3.2)
작 곡	29 (10.2)
평 론	3 (1.1)
지 휘	5 (1.8)
기 타	6 (2.1)
무 응 답	4 -
계	289 (100.0)

양악분야에 활동중인 예술인중 성악이 가장 많고(29.8%), 그 다음으로 건반악(22.5%), 현악(18.2%), 관악(11.2%), 작곡(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양악분야의 첫 활동방식

<그림 5-4-1> 양악분야의 첫 활동방식



응답수 : 285 무응답수 : 4

양악분야의 첫 활동방식은 단체발표 및 단체입단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47.1%), 공개적인 경쟁방식인 국내외 콩쿨을 통해 시작한 경우는 적게(19.7%) 나타났다. 개인발표회(28.8%)도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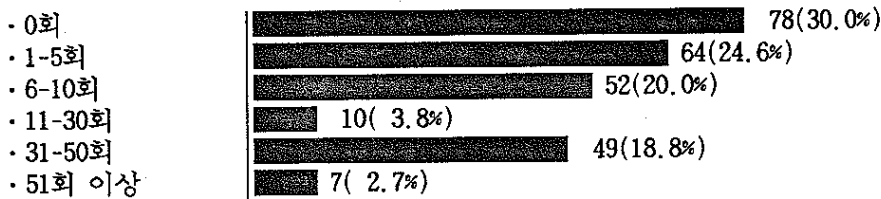
(3) 양악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표 5-4-2> 양악분야 부문별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부 문	평균개인작품발표회수
성 악	11.5 (79)
건 반 악	19.9 (54)
현 악	4.7 (50)
관 악	26.4 (31)
타 악	25.8 (9)
작 곡	24.7 (28)
평 론	0.7 (3)
지 휘	140.0 (5)
기 타	0.0 (1)
계	17.9 (260)

통산 평균 개인작품발표회수를 살펴보면 지휘 부문이 가장 많은 140회를 차지하고 있고 관악이 26.4회, 타악이 25.8회 그리고 작곡이 24.7 회으로 나타났다.

<그림 5-4-2> 양악분야 1인당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응답수 : 260 무응답수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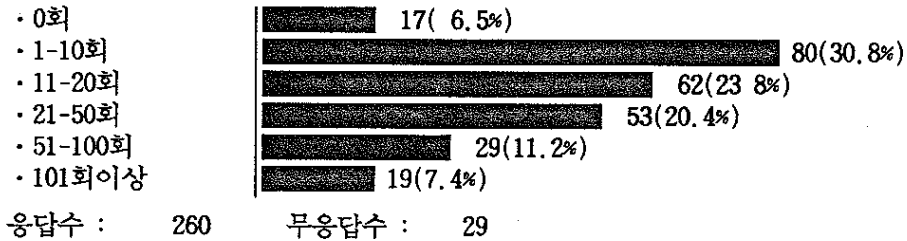
양악분야의 1인당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를 살펴보면 한번도 개인발표회를 갖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30.0%), 그 다음으로 1-5회(24.6%), 6-10회(20.0%), 31-50회(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3> 양악분야 부문별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부 문	평균단체작품발표회수
성 악	28.9 (79)
건 반 악	43.7 (54)
현 악	71.9 (50)
관 악	57.2 (31)
타 악	32.3 (9)
작 곡	52.8 (28)
평 론	0.3 (3)
지 휘	37.4 (5)
기 타	10.0 (1)
계	46.08 (260)

통산 평균 단체작품발표회수를 살펴보면 현악이 71.9회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관악이 57.2회, 작곡이 52.8회 그리고 건반악, 지휘가 각각 43.7회, 37.4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4-3> 양악분야 1인당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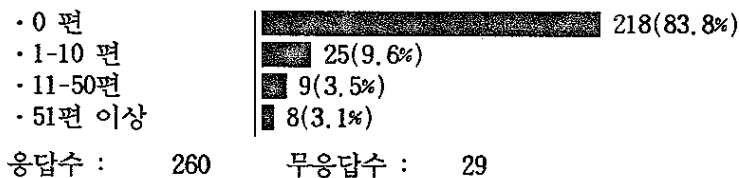
양악분야의 1인당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를 보면 1-10회가 가장 많고(30.8%), 그 다음으로 11-20회(23.8%), 21-50회(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00회 (0.4%), 999회 (0.8%)의 특별한 경우도 있다.

<표 5-4-4> 양악분야 부문별 통산 창작작품수

부 문	평균창작작품수
성 악	0.4 (79)
건 반 악	1.1 (54)
현 악	4.7 (50)
관 악	1.2 (31)
타 악	0.2 (9)
작 곡	37.6 (28)
평 론	2.0 (3)
지 휘	1.2 (5)
기 타	0.0 (1)
계	5.5 (260)

양악분야의 통산 창작작품수를 보면 작곡이 가장 많은 37.6편을 나타내고 있고, 현악이 4.7편, 평론이 2편을 차지하고 있어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5-4-4> 양악분야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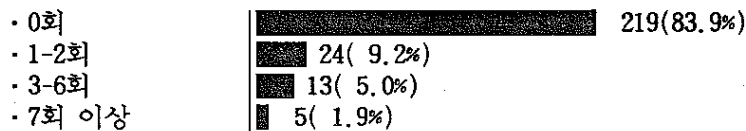
양악분야의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1-10편(9.6%), 11-59편(3.5%), 51편 이상인 경우(3.1%)로 나타난 반면, 한편의 창작작품활동도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83.8%).

<표 5-4-5> 양악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부 문	평균논문수/간행책수
성 악	0.2 (79)
건 반 악	1.9 (55)
현 악	1.0 (50)
관 악	0.1 (31)
타 악	0.1 (9)
작 곡	5.1 (28)
평 론	0.7 (3)
지 휘	0.0 (5)
기 타	0.0 (1)
계	1.2 (261)

양악분야의 통산 평균 논문수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작곡이 가장 많은 5.1편을 차지하고 있고, 건반악이 1.9편, 현악이 1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4-5> 양악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응답수 : 261 무응답수 : 28

양악분야의 1인당 통산 논문수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한편의 논문 및 책발간 활동이 없는 경우(83.9%)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7편 이상은 소수(1.9%)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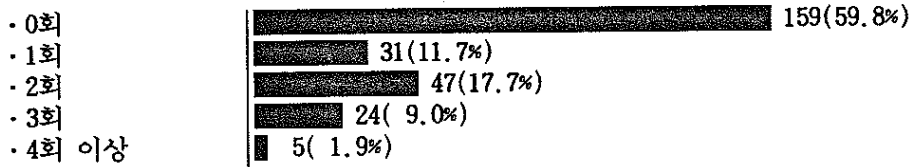
(4) 양악분야 연간(1990.7.1-1991.6.30) 작품활동

<표 5-4-6> 양악분야 부문별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부 문	평균개인작품발표회수
성 악	1.1 (79)
건 반 악	0.4 (58)
현 악	0.3 (51)
관 악	1.8 (31)
타 악	2.8 (9)
작 곡	1.1 (29)
평 론	0.0 (3)
지 휘	0.8 (5)
기 타	0.0 (1)
계	0.9 (266)

연간 평균 개인작품발표회수를 보면 타악 부문이 2.8편으로 가장 많고, 관악이 1.8편, 성악과 작곡이 똑같이 1.1편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개인작품활동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6> 양악분야 1인당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응답수 : 266 무응답수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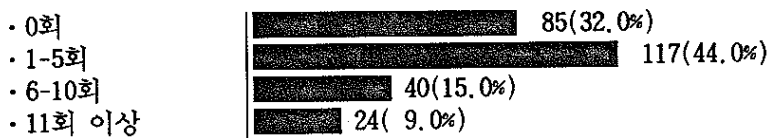
양악분야의 1인당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를 살펴보면 작품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59.8%), 4편 이상인 경우는 소수(1.9%)에 불과하다.

<표 5-4-7> 양악분야 부문별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부 분	평균단체작품발표회수
성 악	6.1 (79)
건 반 악	4.8 (58)
현 악	7.7 (51)
관 악	5.0 (31)
타 악	0.2 (9)
작 곡	6.9 (29)
평 론	0.0 (3)
지 휘	3.0 (5)
기 타	2.0 (1)
계	5.7 (266)

연간 평균 단체작품발표회수를 살펴보면 현악이 가장 많은 7.7편을 차지하고 있고, 작곡이 6.9편, 성악이 6.1편이며, 평론과 타악의 경우는 단체작품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7> 양악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응답수 : 266 무응답수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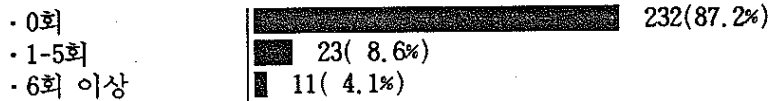
양악분야의 1인당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를 살펴보면 1-5편이 가장 많고(44.0%), 6-10편(15.0%), 11편 이상(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8> 양악분야 부문별 연간 창작작품수

부 문	평균창작작품수
성 악	0.1 (79)
건 반 악	0.1 (8)
현 악	0.5 (5)
관 악	0.2 (1)
타 악	0.3 (9)
작 곡	10.6 (2)
평 론	0.0 (3)
지 휘	0.0 (5)
기 타	0.0 (1)
계	1.3 (266)

양악분야의 연간 평균창작작품수를 보면 작곡부문이 10.6편을 나타내는 반면, 그 외의 부문은 거의 창작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4-8> 양악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



응답수 : 266 무응답수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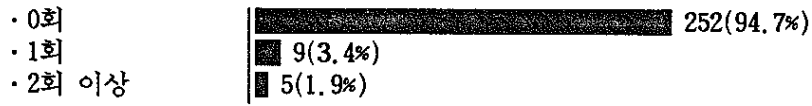
양악분야의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1-5편(8.6%), 6편 이상(4.1%)를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나머지(87.2%)는 창작작품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4-9> 양악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부 문	평균논문수/간행책수
성 악	0.0 (79)
건 반 악	1.3 (58)
현 악	0.0 (51)
관 악	0.0 (31)
타 악	0.1 (9)
작 곡	0.2 (29)
평 론	0.3 (3)
지 휘	0.0 (5)
기 타	0.0 (1)
계	0.3 (266)

양악분야의 연간 논문수 및 간행책수를 살펴 보면 건반악이 1.3편을 나타내는 반면, 그 외의 부문은 논문 및 책발간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4-9> 양약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응답수 : 266 무응답수 : 23

양약분야의 1인당 연간 논문 및 간행활동은 1편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94.7%)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국악분야

(1) 국악분야의 활동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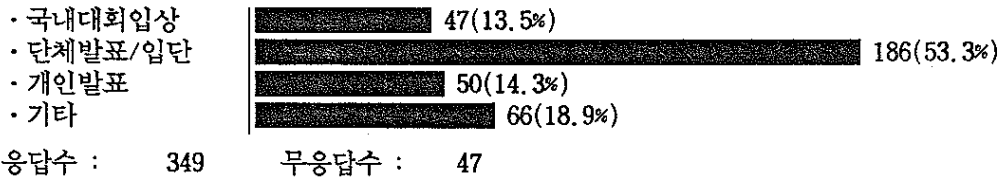
<표 5-5-1> 국악분야의 활동부문

부 문	빈도수 (%)
시 조	25 (6.4)
국 극	3 (0.8)
농 악	60 (15.3)
창 악	20 (5.1)
기 악	138 (35.2)
무 용	53 (13.5)
민 요	61 (15.6)
가 야 금	22 (5.6)
평 론	2 (0.5)
기 타	8 (2.0)
무 응 답	4 -
계	396 (100.0)

국악분야에서 활동중인 예술인중 기악이 가장 많고(35.2%), 그 다음이 민요(15.6%), 농악(15.3%), 무용(13.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악분야의 첫 활동방식

<그림 5-5-1> 국악분야의 첫 활동방식



국악분야의 첫 활동방식을 살펴보면 단체발표 및 단체입단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고(53.3%), 개인발표(14.3%)와 국내대회입상(13.5%)이 그 다음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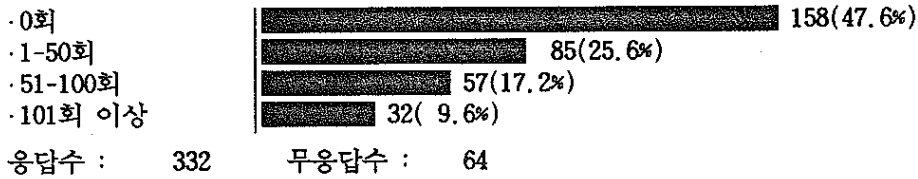
(3) 국악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표 5-5-2> 국악분야 부문별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부 문	평균개인발표회수
시 조	11.1 (16)
국 극	0.7 (3)
농 악	0.0 (45)
창 악	8.6 (19)
기 악	86.9 (136)
무 용	1.8 (46)
민 요	2.1 (44)
가 야 금	2.9 (15)
평 론	1.0 (1)
기 타	0.3 (6)
계	37.4 (331)

국악분야의 부문별 통산 평균개인발표회수를 살펴보면 기악이 86.9회으로 가장 많고, 시조가 11.1회, 민속극이 8.6회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극, 농악부문은 한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5-2> 국악분야 1인당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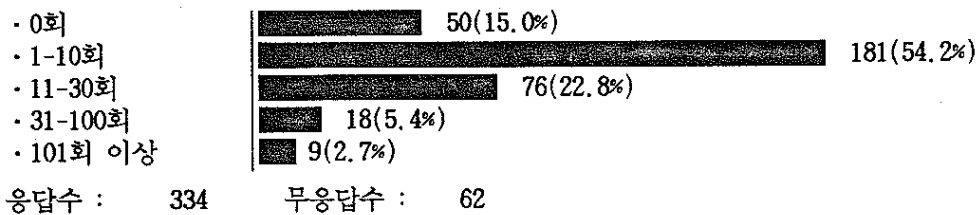
국악분야의 1인당 통산개인발표회수를 살펴보면 개인활동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7.6%), 그 다음은 1-50회(25.6%), 51-100회(17.2%)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1인당 평균 37회정도(37.4회)로 나타났다.

<표 5-5-3> 국악분야 부문별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부	문	평균단체발표회수
시	조	11.8 (16)
국	극	24.3 (3)
농	악	10.8 (45)
창	악	14.8 (19)
기	악	10.0 (136)
무	용	34.7 (46)
민	요	54.2 (44)
가	야	22.1 (17)
평	론	5.0 (1)
기	타	3.7 (6)
계		20.4 (333)

국악분야의 부문별 통산 평균 단체발표회수를 살펴보면 민요가 가장 많은 54.2회으로 나타나고있고, 그 다음으로 무용 34.7회, 국극 24.3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론을 제외한 다른 부문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5-3> 국악분야 1인당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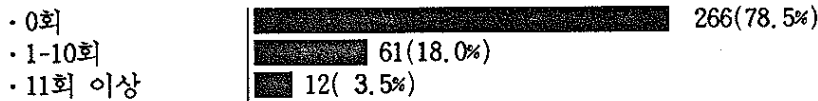
국악분야의 1인당 통산 단체발표회수를 살펴보면 1-10회이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54.2%), 그 다음은 11-30회(22.8%) 이었으며, 1 회의 단체활동도 하지않은 경우가 (15.0%)를 나타내고 있다. 국악인들은 개인별로 통산, 20회정도 단체작품발표회 (20.4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4> 국악분야 부문별 통산 창작작품수

부 문	평균창작작품수
시 조	0.1 (17)
국 극	4.7 (3)
농 악	0.3 (47)
창 악	4.7 (19)
기 악	1.5 (136)
무 용	6.0 (47)
민 요	0.1 (45)
가 야 금	6.5 (17)
평 론	1.0 (1)
기 타	27.2 (6)
계	2.6 (338)

국악분야 부문별 통산 평균창작작품수를 살펴 보면 기타부문이 가장 많은 27.2회를 나타내고 있고, 시조와 농악 그리고 민요부문은 창작활동이 거의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4> 국악분야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



응답수 : 339 무응답수 :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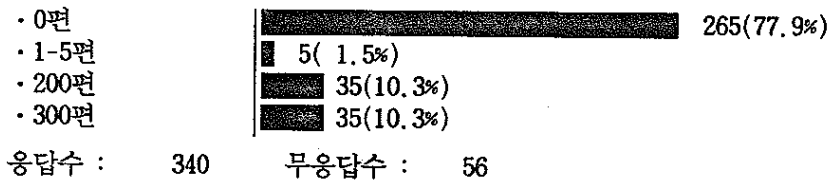
국악분야의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는 한 회의 창작활동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78.5%), 11회 이상이 소수(3.5%)를 차지하고 있다. 국악인들의 1인당 평균 통산 창작작품수는 3회 미만(2.6회)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표 5-5-5> 국악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부 문	평균논문수/간행책수
시 조	0.1 (17)
국 극	0.0 (3)
농 악	0.1 (47)
창 악	0.1 (19)
기 악	128.7 (136)
무 용	0.0 (47)
민 요	0.0 (45)
가 야 금	0.0 (18)
평 론	0.0 (1)
기 타	0.0 (6)
계	51.7 (339)

국악분야 부문별 통산 평균논문수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기악부문이 가장 많은 128.7편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의 모든 부문은 논문과 책발간 활동이 거의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5> 국악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국악분야 1인당 통산 논문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논문 및 책저술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77.9%), 200편과 300편이 똑같은 비율(10.3%)을 차지하고 있다. 국악인들은 개인별로 통산 50편 이상의 논문 및 책(51.7편)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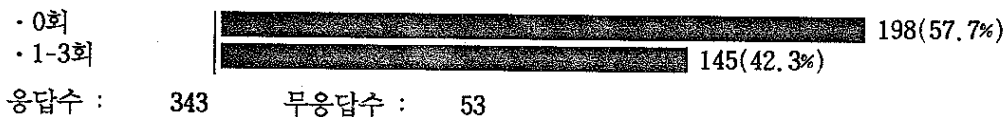
(4) 국악분야의 연간(1990.7.1-1991.6.30) 작품활동

<표 5-5-6> 국악분야 부문별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부	문	평균개인발표회수
시	조	0.6 (17)
국	극	0.0 (3)
농	악	0.0 (49)
창	악	0.2 (19)
기	악	4.6 (136)
무	용	0.1 (48)
민	요	0.2 (45)
가	야	0.1 (18)
평	론	0.0 (1)
기	타	0.3 (6)
계		1.9 (342)

국악분야 부문별 연간 평균개인발표회수를 살펴보면 기악부문만이 4.6회를 나타내고 있고 그 외의 모든 부문은 개인작품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6> 국악분야 1인당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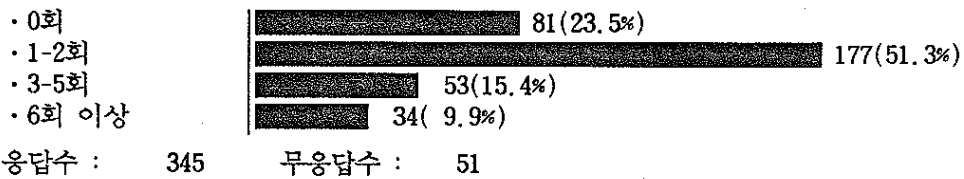
국악분야 1인당 연간 개인발표회수를 살펴보면 1-3회인 경우(42.3%)보다는 개인작품활동이 없는 비율(57.7%)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인들은 평균 2회정도(1.9회)의 개인발표회를 지난 해에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7> 국악분야 부문별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부	문	평균단체발표회수
시	조	0.6 (18)
국	극	2.0 (3)
농	악	3.9 (49)
창	악	2.1 (19)
기	악	1.1 (136)
무	용	4.4 (48)
민	요	7.7 (46)
가	야	1.9 (18)
평	론	2.0 (1)
기	타	0.0 (6)
계		2.9 (344)

국악분야의 부문별 연간 평균단체발표회수를 살펴보면 민요부문이 가장 많은 7.7회를 나타내고있고, 그 다음으로 무용이 4.4회, 농악이 3.9회 평론과 국극부문이 2.0회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5-7> 국악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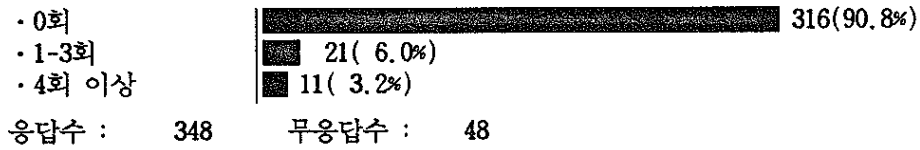
국악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는 1-2회이 과반수이상 이었으며(51.3%), 6회 이상인 경우는(9.9%) 소수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1인당 평균 단체작품발표회수는 3회정도(2.9회)으로 나타났다.

<표 5-5-8> 국악분야 부문별 연간 창작작품수

부	문	평균창작작품수
시	조	0.0 (19)
국	극	0.3 (3)
농	악	0.2 (49)
창	악	0.6 (19)
기	악	0.0 (136)
무	용	2.0 (49)
민	요	0.0 (46)
가	야	0.3 (18)
평	론	0.0 (1)
기	타	0.0 (7)
계		0.4 (347)

국악분야 부문별 연간 평균 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무용이 2.0편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그 외의 부문은 창작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8> 국악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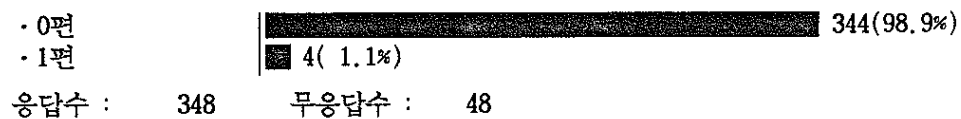
국악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1-3회(6.0%), 4회 이상(3.2%)이 소수를 나타낸 반면, 그 나머지 대부분(90.8%)은 창작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9> 국악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부 문	평균논문수/간행책수
시 조	0.15 (19)
국 극	0.00 (3)
농 악	0.02 (49)
창 악	0.00 (19)
기 악	0.00 (136)
무 용	0.02 (49)
민 요	0.00 (46)
가 야 금	0.00 (18)
평 론	0.00 (1)
기 타	0.00 (7)
계	0.01 (347)

국악분야의 부문별 연간 평균논문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모든 부문이 논문 및 책발간 활동을 거의 하지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5-9> 국악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국악분야 1인당 연간 논문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거의 모든 사람(98.9%)이 논문 및 책발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무용분야

(1) 무용분야의 활동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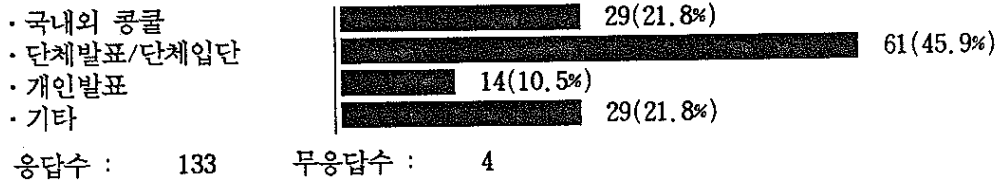
<표 5-6-1> 무용분야의 활동부문

부 문	빈도수 (%)
한국무용	83 (60.6)
발 레	10 (7.3)
현대무용	31 (22.6)
기 타	13 (9.5)
계	137 (100.0)

무용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중 한국 무용이 대부분(60.6%)이었고, 발레부문에서 활동하는 경우(7.3%)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2) 무용분야의 첫 활동방식

<그림 5-6-1> 무용분야의 첫 활동방식



무용분야의 첫 활동방식은 단체발표 및 단체입단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5.9%), 국내의 콩쿨이 그 다음순(21.8%)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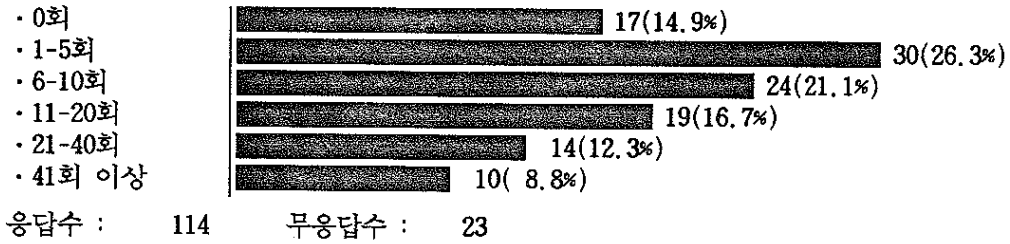
(3) 무용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표 5-6-2>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부 문	평균개인발표회수
한국무용	14.6 (69)
발 레	20.6 (10)
현대무용	12.4 (26)
기 타	5.3 (8)
계	13.9 (113)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평균개인발표회수는 발레가 약간 많지만(20.6회), 한국무용이 14.6회, 현대무용이 12.4회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5-6-2> 무용분야 1인당 통산 개인작품발표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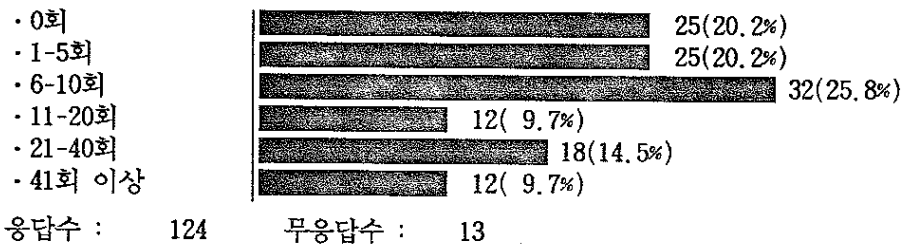
무용분야 1인당 통산 개인발표회수를 살펴보면 1-5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6.3%), 그 다음으로 6-10회(21.2%), 11-20회(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통산 13.9회의 개인작품발표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3>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부 문	평균단체발표회수
한국무용	12.1 (77)
발 레	21.1 (10)
현대무용	16.7 (27)
기 타	14.9 (9)
계	14.1 (123)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평균단체발표회수는 발레 21.1회 이외에,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은 평균작품수인 14.1회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5-6-3> 무용분야 1인당 통산 단체작품발표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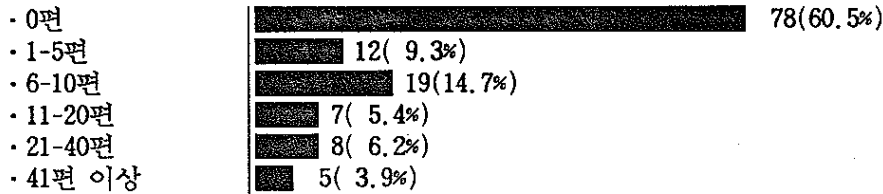
무용분야 1인당 통산 단체발표회수를 살펴보면 6-10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8%), 단체활동이 전혀없는 경우와 1-5회인 경우가 똑같은 비율(20.2%)로 나타났다. 무용분야 전체적으로는 1인당 평균, 통산 14회 정도(14.1회)의 단체발표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4>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창작작품수

부 문	평균창작작품수
한국무용	5.7 (79)
발 레	10.9 (10)
현대무용	7.3 (29)
기 타	5.6 (10)
계	6.4 (128)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평균창작작품수를 살펴 보면 발레가 가장 많은 10.9편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현대무용 7.3편, 한국무용 5.7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6-4> 무용분야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



응답수 : 129 무응답수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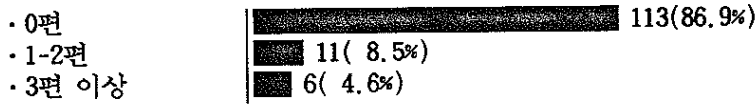
무용분야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전혀 창작활동을 하지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60.5%)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통산 1인당 평균 6편 정도의 작품(6.4편)을 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5>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부 문	평균논문수/간행책수
한국무용	0.3 (80)
발 레	1.5 (10)
현대무용	0.7 (29)
기 타	0.1 (10)
계	0.4 (129)

무용분야 부문별 통산 평균논문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발레가 1.5편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부문은 논문 및 책발간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5> 무용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응답수 : 130 무응답수 : 7

무용분야 1인당 통산논문 및 간행책수는 1-2편(8.5%), 3편 이상(4.6%)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 나머지(86.9%)는 전혀 논문과 책발행 활동을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분야 전체적으로도 평균으로 나타내면 수치상으로 1편 미만(0.4편)의 저술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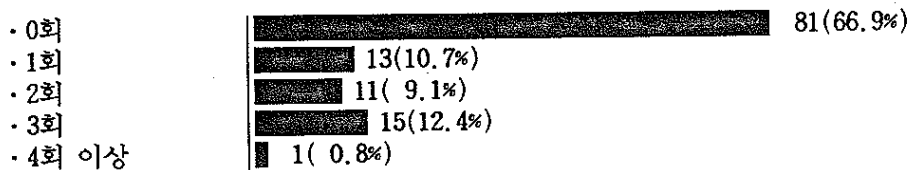
(4) 무용분야의 연간(1990. 7. 1-1991. 6. 30) 작품활동

<표 5-6-6> 무용분야 부문별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부 문	평균개인발표회수
한국무용	0.9 (76)
발 레	0.4 (7)
현대무용	0.5 (27)
기 타	0.0 (10)
계	0.7 (120)

무용분야 부문별 연간 평균개인발표회수를 살펴보면 모든 부문의 개인작품활동이 거의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6> 무용분야 1인당 연간 개인작품발표회수



응답수 : 121 무응답수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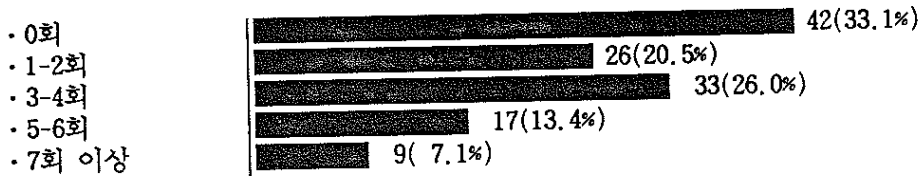
무용분야 1인당 연간 개인발표회수를 보면 개인발표활동을 전혀 하지않은 경우가 대다수(66.9%) 였고, 그 나머지는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년동안 평균 1회에 못미치는(0.7회) 개인발표 활동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표 5-6-7> 무용분야 부문별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부 문	평균단체발표회수
한국무용	3.7 (79)
발 레	3.7 (9)
현대무용	3.0 (28)
기 타	0.7 (10)
계	3.3 (126)

무용분야 부문별 연간 평균단체발표회수를 살펴보면 한국무용과 발레가 3.7회으로 같고, 현대무용도 3.0회으로 나타나 모든 부문이 거의 비슷한 단체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6-7> 무용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발표회수



응답수 : 127 무응답수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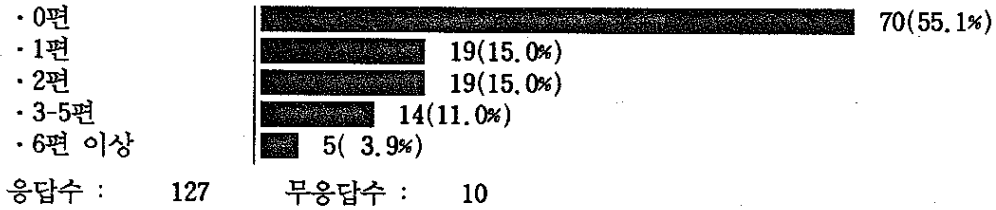
무용분야 1인당 연간 단체발표회수를 살펴보면 단체작품활동이 전혀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차지했고(33.1%), 그 다음은 3-4회(26.0%), 1-2회(20.5%)순으로 나타났다. 무용인들은 1인당 연간 3회정도의 단체발표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8> 무용분야 부문별 연간 창작작품수

부 문	평균창작작품수
한국무용	0.7 (79)
발 레	2.7 (9)
현대무용	2.0 (28)
기 타	1.0 (10)
계	1.2 (126)

무용분야 부문별 연간 평균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발레가 가장 많은 2.7편, 그 다음이 현대무용 2.0편이며, 한국무용은 한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8> 무용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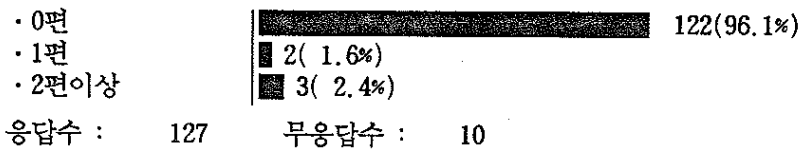
무용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1편 및 2편이 같게 나타났으며 (15.0%), 그 나머지 대다수는(55.1%)는 창작활동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인들은 연간 1편정도의 작품(1.2편)을 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9> 무용부문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부 문	평균논문수/간행책수
한국무용	0.04 (79)
발 레	0.44 (9)
현대무용	0.04 (28)
기 타	0.00 (10)
계	0.06 (126)

무용분야 부문별 연간 평균논문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모든 부문이 논문과 책발간활동을 거의 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9> 무용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무용분야 1인당 연간 논문 및 간행책수는 논문과 책발행 활동이 없는 경우(96.1%)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연극분야

(1) 연극분야의 활동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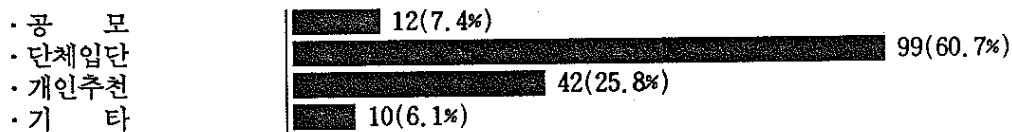
<표 5-7-1> 연극분야의 활동부문

활동부문	빈도수(%)
연출	29 (17.7)
연기	101 (61.6)
극작	4 (2.4)
스텝	18 (11.0)
기획	8 (4.9)
평론	2 (1.2)
기타	2 (1.2)
무응답	1 -
계	165 (100.0)

응답자 총 165명의 각 활동부문별 비율을 살펴보면, 연기부문이 61.6%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연출, 스텝, 기획 순으로 집계되었다.

(2) 연극분야의 첫 활동방식

<그림 5-7-1> 연극분야 첫 활동방식



응답수 : 163 무응답수 : 2

연극인들의 입단은 대체로 단체입단의 경우가 보편적인(60.7%)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추천, 공모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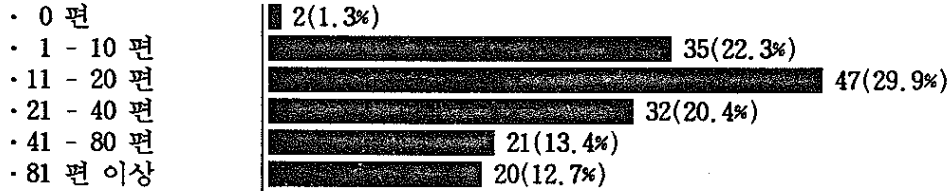
(3) 연극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표 5-7-2> 연극분야 부문별 통산 발표 및 참여작품수

활동부문	평균 발표/참여작품수
연출	45.0 (26)
연기	34.9 (97)
극작	11.5 (4)
스텝	54.4 (18)
기획	35.1 (8)
평론	0.0 (2)
기타	2.0 (2)
계	37.3 (157)

가장 작품활동이 활발한 부문은 스텝으로 54.4편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연출, 연기, 기획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반적으로 작품활동 분포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7-2> 연극분야 1인당 통산 발표 및 참여작품수



응답수 : 157 무응답수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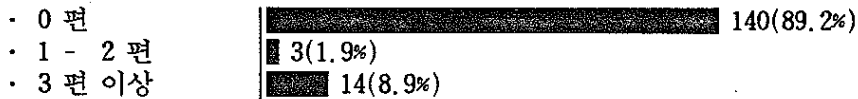
연극인들의 1인당 평균 작품활동은 37.3편으로 집계 되었다. 11-20편 사이의 분포가 가장 높게(29.9%) 나타났다. 활동분포는 비교적 고른분포를 보여, 한편도 참여 또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1.3%).

<표 5-7-3> 연극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활동부문	평균 논문수/간행책수
연출	2.0 (26)
연기	0.9 (97)
극작	3.3 (4)
스탭	0.0 (18)
기획	0.0 (8)
평론	14.0 (2)
기타	0.0 (2)
계	1.1 (157)

관련서적 및 논문 간행활동은 평론부문이 14편으로 가장 높게 집계 되었다. 그 외에는 연출과 극작분야를 제외하고는 간행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5-7-3> 연극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응답수 : 157 무응답수 : 8

연극관련 서적 및 논문 간행활동은 극히 저조하여 평균 1.1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도 간행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89.2%)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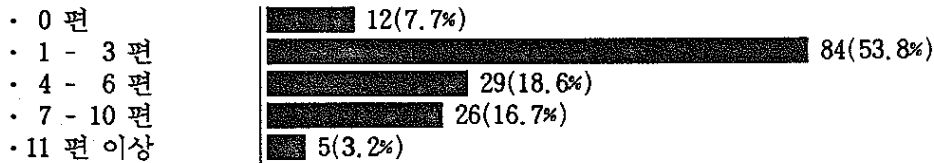
(4) 연극분야의 연간(1990. 7.1-1991. 6. 30) 작품활동

<표 5-7-4> 연극분야 부문별 연간 발표 및 참여작품수

활동부문	평균 발표/참여작품수
연출	5.3 (26)
연기	3.4 (96)
극작	2.8 (4)
스텝	12.2 (18)
기획	4.4 (8)
평론	0.0 (2)
기타	1.5 (2)
계	4.7 (156)

지난 한해동안 가장 많은 작품활동을 한 분야는 12.2편으로 집계된 스텝부문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연출, 기획, 연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7-4> 연극분야 1인당 연간 발표 및 참여작품수



응답수 : 156 무응답수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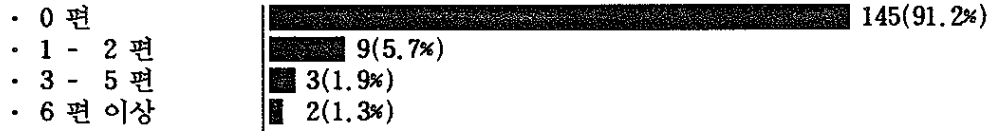
지난 한해동안의 1인당 평균 작품활동은 4.7편으로 집계되었다. 1-3편에 발표 및 참여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분포(53.8%)를 보이고 있다.

<표 5-7-5> 연극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활동부문	평균 논문수/간행책수
연출	0.7 (26)
연기	0.2 (99)
극작	1.8 (4)
스텝	0.0 (18)
기획	0.0 (8)
평론	1.0 (2)
기타	0.0 (2)
계	0.3 (159)

지난 한해동안 부문별 관련서적 및 논문 간행 활동은 전반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극작부문이 1.8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평론, 연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7-5> 연극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응답수 : 159 무응답수 : 6

지난 한해동안 연극분야 관련서적 및 논문 간행은 1인당 평균 0.3편으로 집계 되었다. 한편도 간행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91.2%) 것으로 나타났다.

8. 영화분야

(1) 영화분야의 활동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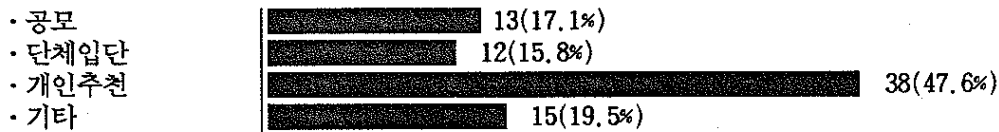
<표 5-8-1> 영화분야의 활동부문

부 문	빈도수 (%)
감독	5 (5.7)
연기	44 (50.6)
스텝	28 (32.2)
기획	4 (4.6)
평론	5 (5.7)
기타	1 (1.1)
계	87 (100.0)

영화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87명은 연기 (50.6%), 스텝(32.2%), 감독과 평론(5.7%) 기획 (4.6%)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2) 영화분야의 첫 활동방식

<그림 5-8-1> 영화분야의 첫 활동방식



응답수 : 78 무응답수 : 9

영화분야의 첫 활동방식은 개인추천을 통한 경우(47.6%)가 다른 분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거의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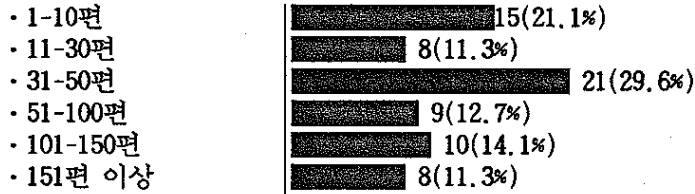
(3) 영화분야의 통산 작품활동

<표 5-8-2> 영화분야 부문별 통산 발표 및 참여작품수

부 문	평균발표/참여작품수
감독	43.4 (5)
연기	34.6 (32)
스텝	170.0 (24)
기획	28.0 (4)
평론	8.4 (5)
기타	150.0 (1)
계	80.4 (71)

영화분야 부문별 통산 평균발표 및 참여 작품수를 살펴보면 스텝이 170.0편으로 가장 많고, 기타가 150.0편, 감독이 43.4편, 연기가 34.6편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림 5-8-2> 영화분야 1인당 통산 발표 및 참여작품수



응답수 : 71 무응답수 : 16

영화분야 1인당 통산 발표 및 참여작품수는 31-50편이 최대의 비율(29.8%)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개인당 평균 80편정도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3> 영화분야 부문별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부 분	평균논문수/간행책수
감 독	0.6 (5)
연 기	0.1 (36)
스 탭	0.0 (24)
기 획	0.0 (4)
평 론	14.0 (5)
기 타	0.0 (1)
계	1.0 (75)

영화분야 부문별 통산 평균논문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평론이 14.0편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문은 논문과 책발행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8-3> 영화분야 1인당 통산 논문수/간행책수



응답수 : 75 무응답수 : 12

영화분야 1인당 통산 논문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거의 대다수(90.7%)가 논문과 책발행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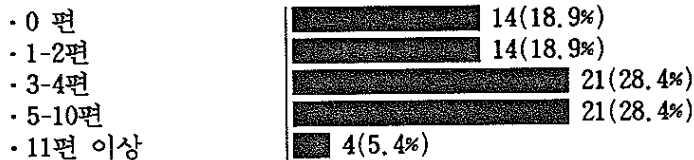
(4) 영화분야의 연간(1990.7.1-1991.6.30) 작품활동

<표 5-8-4> 영화분야 부문별 연간 발표 및 참여작품수

부 문	평균발표/참여작품수
감독	3.8 (4)
연기	5.7 (36)
스텝	4.2 (24)
기획	1.8 (4)
평론	0.0 (5)
기타	0.0 (1)
계	4.4 (74)

영화분야 부문별 연간 평균발표 및 참여작품수를 살펴보면 연기가 가장 많은 5.7편을 차지했고, 스텝이 4.2편, 감독이 3.8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5-8-4> 영화분야 1인당 연간 발표 및 참여작품수



응답수 : 74 무응답수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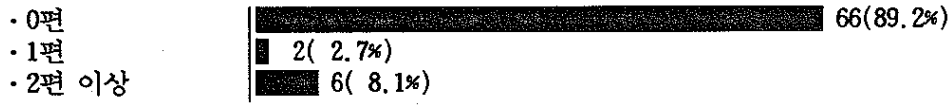
영화분야 1인당 연간 발표 및 참여작품수를 살펴보면 3-4편과 5-10편이 5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지난 한해동안 영화인들은 평균 4편정도(4.4%)의 작품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5> 영화분야 부문별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부 문	평균논문수/간행책수
감독	0.3 (4)
연기	0.2 (36)
스텝	0.0 (24)
기획	0.0 (4)
평론	1.4 (5)
기타	0.0 (1)
계	0.2 (74)

영화분야 부문별 연간 평균논문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평론만이 1.4편으로 나타났고, 그 나머지 부문은 논문과 책발행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8-5> 영화분야 1인당 연간 논문수/간행책수



응답수 : 74 무응답수 : 13

영화분야의 1인당 연간 논문 및 간행책수를 보면 1편 및 2편 이상은 소수(10.9%)에 불과했고, 나머지(89.2%)는 논문과 관련서적 발행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연예분야

(1) 연예분야의 활동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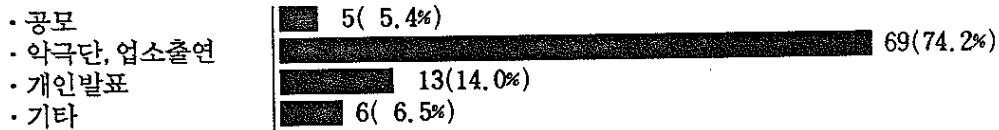
<표 5-9-1> 연예분야의 활동부문

부 문	빈도수 (%)
가 수	16 (17.0)
무 용	16 (17.0)
연 주	40 (42.6)
연 기	9 (9.6)
창 작	9 (9.6)
기 타	4 (4.3)
계	94 (100.0)

연예분야의 활동부문은 연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2.6%), 그 다음으로 가수와 무용이 같은 비율(17.0%)을 차지하고 있다.

(2) 연예분야의 첫 활동방식

<그림 5-9-1> 연예분야의 첫 활동방식



응답수 : 93 무응답수 : 1

연예분야의 첫 활동방식은 악극단 및 업소출연이 가장 많고(74.2%), 그 다음으로 개인발표(14.0%), 공모(5.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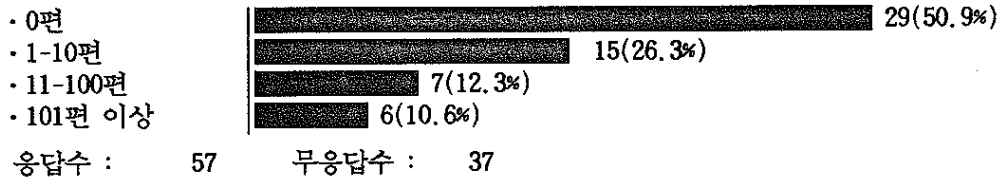
(3) 연예분야 통산 작품활동

<표 5-9-2> 연예분야 부문별 통산 창작작품수

부 문	평균창작작품수
가 수	1.3 (11)
무 용	2.6 (9)
연 주	81.3 (20)
연 기	154.3 (8)
창 작	6.0 (5)
기 타	0.0 (4)
계	51.3 (57)

연예분야 부문별 통산 평균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연기부문이 154.3편으로 가장 많고, 창작이 6.0편, 무용이 2.6편, 가수가 1.3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5-9-2> 연예분야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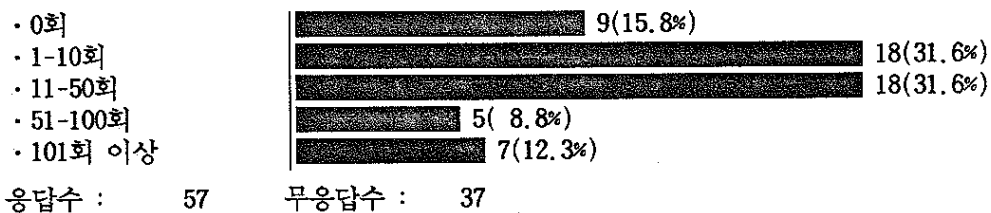
연예분야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창작활동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이상(50.9%)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1-10편(16.3%), 11-100편(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예분야의 예술인 1인은 통산 51편 정도의 작품(51.3%)을 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3> 연예분야 부문별 통산 방송프로그램 출연수

부 문	방송프로그램 출연수
가 수	50.7 (11)
무 용	35.8 (9)
연 주	94.2 (20)
연 기	85.0 (8)
창 작	0.6 (5)
기 타	15.0 (4)
계	61.5 (57)

연예분야 부문별 통산 평균 방송프로그램 출연수를 살펴보면, 연주가 94.2회, 연기 85.0회, 가수 50.7회, 무용이 35.8회으로 나타났다.

<그림 5-9-3> 연예분야 1인당 통산 방송프로그램 출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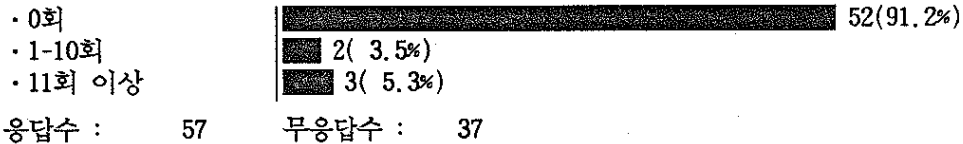
연예분야의 1인당 통산 방송프로그램 출연수는 1-50회가 대다수(63.2%)였으나, 방송프로그램 출연활동이 없는 경우(15.8%)도 상당부분 되었다. 연예인들은 개인별로 통산, 평균 60회정도의 방송프로그램(61.5회)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4> 연예분야 부문별 통산 공개행사 출연수

부 문	평균공개행사출연수
가 수	0.0 (11)
무 용	0.0 (9)
연 주	0.1 (20)
연 기	0.0 (8)
창 작	19.2 (5)
기 타	0.0 (4)
계	1.7 (57)

연예분야 부문별 통산 평균공개행사출연수를 살펴보면 창작부문이 19.2회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부문은 이들의 첫 활동방식이 악극단사업소출연을 통해 이루어진 이유로 인해, 공개행사 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4> 연예분야 1인당 통산 공개행사 출연수



연예분야 1인당 통산 공개행사 출연수를 살펴보면 11회 이상 및 1-10회는 소수(8.8%)였으며, 공개행사 활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들은 개인별로 통산, 평균 2회정도의 공개행사(1.7회)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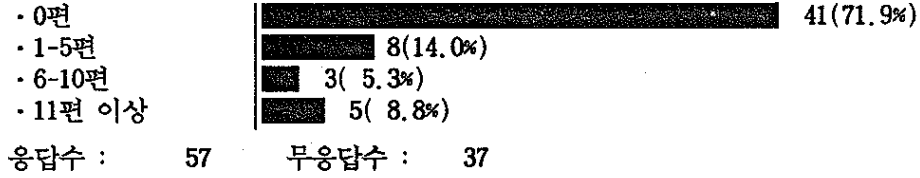
(4) 연예분야 연간(1990.7.1-1991.6.30) 작품활동

<표 5-9-5> 연예분야 부문별 연간 창작작품수

부 문	평균창작작품수
가 수	0.3 (11)
무 용	11.4 (9)
연 주	2.3 (20)
연 기	8.0 (8)
창 작	0.0 (5)
기 타	0.0 (4)
계	3.8 (57)

연예분야 연간 평균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무용이 11.4편, 연기가 8.0편, 연주가 2.3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5-9-5> 연예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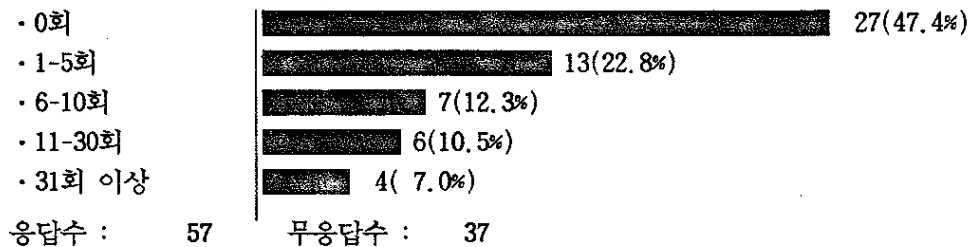
연예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에 대한 응답자 분포는 창작활동을 전혀 하지않는 경우가 대다수(71.9%) 였으며, 그 다음은 1-5편(14.0%), 11편 이상(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들은 개인별로 지난해에 평균 4편정도의 작품(3.8편)을 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6> 연예분야 부문별 연간 방송프로그램 출연수

부 문	방송프로그램 출연수
가 수	14.4 (11)
무 용	9.8 (9)
연 주	7.3 (20)
연 기	12.5 (8)
창 작	0.2 (5)
기 타	0.0 (4)
계	8.6 (57)

연예분야 연간 평균방송프로그램 출연수를 살펴보면 가수 14.4회, 연기 12.5회, 무용 9.8회, 연주가 7.3회으로 나타났다.

<그림 5-9-6> 연예분야 1인당 연간 방송프로그램 출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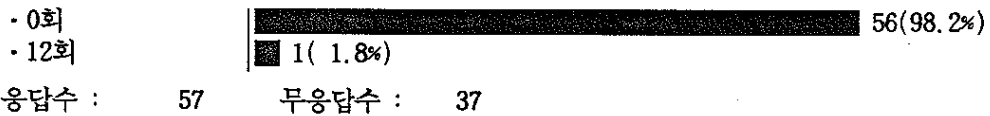
연예분야 1인당 연간 방송프로그램 출연수를 살펴보면 방송프로그램 활동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47.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1-5회(22.8%), 6-10회 (12.3%), 11-30회(10.5%), 31회 이상(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들은 개인별로 지난해에 평균 9회정도 방송프로그램(8.6회)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7> 연예분야 부문별 연간공개행사 출연수

부 문	평균공개행사 출연수
가 수	0.0 (11)
무 용	0.0 (9)
연 주	0.0 (20)
연 기	0.0 (8)
창 작	2.4 (5)
기 타	0.0 (4)
계	0.2 (57)

연예분야 연간 평균공개행사 출연수를 살펴 보면 창작부문만이 2.4회를 차지할 뿐 나머지 부문은 공개행사활동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7> 연예분야 1인당 연간 공개행사 출연수



지난 한해동안 1인당 공개행사 출연수를 살펴보면, 응답자 대부분(98.2%)이 공개행사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분석결과의 요약

(1)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1) 지역별 분포

응답자의 현거주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전체 응답자의 거의 절반(40.5%)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7.6%), 부산(7.3%), 전북(6.5%), 경남(5.5%), 광주(4.7%), 인천(4.3%), 대구(4.0%), 강원(3.7%), 전남(3.6%), 대전(3.1%), 충남(2.9%), 충북(2.4%), 경북(2.3%), 제주(1.6%)의 순이다.

2) 연령별 분포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대에서 50대가 대부분(75.1%)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가 14.8%, 60대 이상이 9.4% 포함되어 있고, 극소수이지만 10대(0.7%) 연령층도 분포되어 있다.

3) 학력분포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다수(62.4%)이고, 고졸수준도 상당수(26.1%) 있으며, 중졸이하의 소수(11.4%)에 불과하다.

한편 활동분야별로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국악, 영화, 연예 분야는 고졸이 가장 많고 그외 모든 분야는 대졸이상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중에서도 무용과 연극분야에 비해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양악 분야는 대졸이상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

4) 종교별 분포

응답자의 종교분포를 보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1.7%), 불교(21.5%)와 개신교(21.1%)가 다음으로 엇비슷한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천주교(15.1%), 유교(9.0%)의 순으로 나타났다.

5) 활동분야별 표본비율

응답자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형예술(27.9%)과 국악분야(20.3%)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양악(14.8%), 연극(8.4%), 문학(8.1%), 무용(7.0%), 연예(4.8%), 영화(4.5%) 디자인(4.2%)의 순이다.

(2) 생활환경 및 경제적 여건

1) 정규직장

응답자의 정규직장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72.4%)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부분(27.6%)에 달했다. 이를 활동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국악과 영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는 정규직장을 가졌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이다. 영화는 정규직장을 갖지 못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46%), 특히 국악은 정규직장을 갖지 못 했다는 응답자가 가졌다는 응답자보다 오히려 높은 비율(59.8%)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규직업의 종류를 보면, 교수와 교사등 교직이 가장 많으며(33%) 그다음으로 문화예술단원, 학원경영, 중소기업, 회사원, 학원강사, 공무원의 순이며, 기타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사람도 상당수(16.2%)이다.

2) 월평균 수입

응답자의 지난 일년간(1990.7.1-1991.6.30) 월평균 수입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50만원 이하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151만원 이상의 고소득 응답자도 소수 있다. 40만원 이하의 저소득 응답자는 20.8이고, 41-70만원이 19.9%, 71-100만원이 25.8%, 101-150만원이 1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활동분야별로 월평균 수입을 파악해 보면, 문학, 조형예술, 양악, 연예 분야는 71-1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디자인과 무용 분야는 101-150만원 사이의 응답률이 가장 높아 비교적 고소득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연극, 영화, 그리고 국악 분야에서는 비교적 저소득이라 할 수 있는 70만원 이하의 응답

자 비율이 높다. 특히, 최저소득인 4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매우 높은 비율(58.9%)을 차지하고 있는 국악분야는 본 조사에서 다른 우리나라 문화예술인 후생차원의 여러 측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불리한 여건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수입

예술활동과 관련된 월평균수입에 있어서는 10만원 이하가 다수(44%)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는 11-30만원(18.5%), 70-100만원(13.3%), 31-50만원(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수입에 있어서 예술활동관련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활동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 걸쳐 10만원 이하의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디자인, 무용, 영화, 연예 분야는 높은 수입으로 볼 수 있는 7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타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주거형태 및 주택소유

응답자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38.7%)과 아파트(45.3%)가 대부분인 가운데, 주택소유에 있어서 자가라는 응답이 많지만(77%) 전세, 월세, 기타 등의 무주택유형으로 응답한 사람도 상당수(23%)에 이른다.

(3)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태도

1) 가장 발전된 문화예술분야

응답자가 인식하는 문화예술분야별 발전정도는 음악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30.5%) 그다음으로 문학(14.5%), 연예(13.6%), 영화(13.3%) 등의 순이다.

한편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활동분야와 교차분석해 본 결과, 대체로 자기가 속한 분야를 가장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예외적으로 무용인들은 영화(46%)분야를, 연극인들은 문학(21%)분야를, 그리고 연예인들은 음악(약 24%)분야를 가장 발전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발전된 예술분야에 관한 연령별 의견을 보면,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음악을 가장 발전된 분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10대에서는 영화(38.5%)가 가장 발전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예와 문학이 최빈 응답 범주가 되고 있다. 한편, 음악 다음으로 응답이 많은 분야는 20대는 디자인, 30대는 연예, 40대 이상은 문학이 되고 있다.

2)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대우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41.7%). 그리고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다고 한 경우가 38.9%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대다수는 자신의 사회적 대우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분야별로 사회적 대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분야는 디자인과 양악이었으며, 나머지 분야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국악은 대다수가(41.3%)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인 가운데 사회적 대우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예술인은 양악인들인 반면, 사회적 대우에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예술인은 국악인들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대우에 관한 연령별 의견을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그저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대체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로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30-50대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이는 특히 50대(23.7%)에서 그러하다.

성별과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의견을 교차분석한 결과, 남자보다는 오히려 여자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사회적 대우에 있어 상대적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문화예술인에 관한 한 남녀의 차별대우 현상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3) 생활수준

응답자의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60.2%)이다. 그리고 넉넉한 편이라는 응답보다는 가난한 편이라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분야별로 보면 국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악은 「가난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양악, 무용은 생활수준이 넉넉한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국악, 연극, 영화, 연예 분야는 가난한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는 많은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은 넉넉한 편보다는 「가난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4) 작품발표기회

응답자의 작품발표기회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족하다」고 한 경우가 절반이상(58%)이고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경우도 높은 비율(32.5%)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대다수는 작품발표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활동분야별 작품발표기회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디자인과 양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국악분야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작품발표 기회에 대한 연령별 평가를 보면, 10-40대까지는 「부족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50대 이상은 보통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작품발표 기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다.

5) 직업만족도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활동분야에 대해 갖는 직업으로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또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대부분(87.6%)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은 사회적 대우나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에 비해 직업만족도가 훨씬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분야별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은 분야에 상관없이 자신의 활동분야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대우, 생활수준 및 작품발표 기회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국악분야에서조차 직업으로서의 만족도가 높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직업만족도에는 외적인 보상보다는 예술활동자체에서 얻는 내적인 만족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만족스러운 편」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 연령층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6)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이 인식하는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은 정책적 제도적 지원미비(29.2), 사회적 인식부족(27%), 경제적 여유부족(22%)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기타가 상당비율(12%)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시간부족, 복수응답 등이 대부분이다.

활동분야별로 볼 때, 문학, 디자인, 양악, 연극, 연예 분야는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조형예술과 국악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영화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에, 무용은 「기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작품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겠고, 특히 조형예술과 국악분야의 경우 우리 국민의 사회문화적 예술수용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분야별 예술활동 실태

1) 문학분야

문학인은 전문지나 동인지 추천으로 등단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38.7%)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학잡지 및 동인지 발표, 신춘문예 등에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문학분야가 비교적 많은 전문지를 갖고 있고 추천방식이 다원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개인창작집 발표는 11.6%에 불과해 문학인의 등단 유형이 신춘문예등 주로 공개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인들의 통산 발표작품수는 1인당 평균 약 121편으로 집계되었다. 통산 평균이 50편 이하인 작가가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학인은 등단 이후 1인당 평균 6.4권의 책을 간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등단 이후 1권도 발표하지 않은 작가도 있으며(5.2%), 5권이하인 작가가 대부분(65.6%)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다작으로 볼 수 있는 21권이상을 발표한 작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연간(1990.7.1-1991.6.30) 1인당 평균 발표작품수는 24.3편으로 집계 되었다. 51편 이상으로 다작한 작가가 비교적 높은 비율(19.0%)을 차지하고 있으나, 1편도 발표하지 않은 작가도 적지않은 비율(12.4%)을 차지하고 있어 작품활동의 편중성이 엇보인다. 전체의 6할 이상이 연간 10편이하의 작품발표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권 이상의 창작집을 간행한 작가는 7할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전체평균은 1인당 1.3권을 간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권도 간행하지 않은 작가도 상당히 높은 비율(27.3%)을 차지하고 있다.

2) 조형예술

조형예술인들의 활동 시작은 공모전출품에 의한 경우가 높은 비율(52.7%)을 점하고 있다. 이는 매우 높은 공개 경쟁을 통한 입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단체전 출품이 비교적 높은 비율(36.3%)인데 반하여, 개인전 발표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6.9%) 단체활동이 두드러지는 면을 보여준다.

조형예술인의 1인당 평균 통산 개인전수는 2.7회로 집계 되었다. 그러나 한번도 개인전을 갖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비율(39.5%)을 보이고 있어 개인전 활동이 매우 소

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1인당 평균 통산 단체전수는 49.8회로 집계 되었다. 개인전과는 달리 단체전 활동은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고, 101회 이상이 비교적 높은 비율(11.2%)을 차지하고 있어, 조형예술분야의 예술활동이 단체전의 양상으로 보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형예술분야의 1인당 평균 통산 작품수는 약 143점으로 집계 되었다. 100점 이하가 대부분을(약 60%) 차지하고, 301점 이상 다작의 경우는 10.6% 이다. 조형예술인의 1인당 평균 책 또는 간행활동은 약 1.8편으로 집계 되었다. 조형예술인의 간행활동은 매우 저조하여 1편이라도 발간한 경우는 16.8%에 불과했다.

한편 연간 1인당 평균 개인 작품전수는 0.2회로 집계되었다. 개인전 활동은 매우 저조하여 거의 대다수(79.8%)가 개인전을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인당 평균 단체전 활동은 5.4회로 집계되었다. 5회이하가 대부분(71.3%) 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간 1인당 평균 발표작품수는 18.3점으로 집계 되었다. 10점 이하에 많은 분포(약 60%)를 보이고 있으며, 한 점도 발표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관련서적 및 논문 간행활동은 약 0.2편으로 집계되었다. 1편이라도 발간한 조형예술인은 5.6%에 불과했다.

3) 디자인

디자인 분야 예술인들은 공모전 출품과 단체전 출품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방식이 대부분(약 75%)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개인전 보다는 공개경쟁이나 집단활동 방식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분야 활동인들은 개인전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52%) 것으로 집계 되었다. 디자인 분야 예술인들이 개인전에 상당히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통산 단체전수는 32.3회로 집계되었다. 단체전 활동은 회수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한번도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분포(20.6%)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작품수는 20점 이하가 대부분(약 56%)이나, 101점 이상인 경우도 비교적 높은 분포(약 24%)를 보이고 있다. 간행활동을 보면 전혀 간행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60.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1편 이상을 간행한 경우는 1할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의 개인전 활동은 1인당 평균 0.2회로 집계되었다. 한번도 개인전 경험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82.6%)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1인당 평균 단체전 활동은 5.2회 정도로 집계되었다. 1-2회가 가장 많은 비율(29.4%)로 나타났다. 단체전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높은 비율(29.4%)을 차지하고 있으나, 11회 이상의 경우도 비교적 높은 분포(17.6%)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디자인 분야 예술인 들은 1인당 평균 7.4점의 작품 발표를 한것으로 집계되었다. 3-4점의 작품을 발표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26.5%) 나타났다. 간행활동에 있어서는 지난 한해동안 간행활동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약 84%)을 차지하고 있다. 2편 이상의 경우는 1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4) 양악 분야

양악분야의 첫 활동방식은 단체발표 및 단체입단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47.1%), 공개적인 경쟁방식인 국내외 콩쿨을 통해 시작한 경우는 적게(19.7%) 나타났다. 또한 모든경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개인발표회(28.8%)도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악분야의 1인당 통산 개인전수를 살펴보면 한번도 개인전을 갖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30.0%), 그 다음으로 1-5회(24.6%), 6-10회(20.0%), 31-50회(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악분야의 1인당 통산 단체전수를 보면 1-10회가 가장 많고(30.8%), 그 다음으로 11-20회(23.8%), 21-50회(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악분야의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1-10편(9.6%), 11-59편(3.5%), 51편이상인 경우(3.1%)로 나타난 반면, 한편의 창작작품활동도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83.8%). 양악분야의 1인당 통산 논문수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한편의 논문 및 책발간 활동이 없는 경우(83.9%)가 가장많이 차지하고 있고, 7편 이상은 소수(1.9%)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양악분야의 1인당 연간 개인작품수를 살펴보면 작품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59.8%), 4편 이상인 경우는 소수(1.9%)에 불과하다. 양악분야의 1인당 연간 단체작품전수를 살펴보면 1-5편이 가장 많고(44.0%), 6-10편(15.0%), 11편 이상(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악분야의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1-5편(8.6%), 6편 이상(4.1%)를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나머지(87.2%)는 창작작품

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악분야의 1인당 연간 논문수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논문과 책발간활동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94.7%)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국악분야

국악분야의 첫 활동방식을 살펴보면 단체발표 및 단체입단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고(53.3%), 개인발표(14.3%)와 국내대회입상(13.5%)이 그 다음순으로 나타났다.

국악분야의 1인당 통산개인발표회수를 살펴보면 개인활동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7.6%), 그 다음은 1-50회(25.6%), 51-100회(17.2%)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1인당 평균 37회정도(37.4회)로 나타났다. 국악분야의 1인당 통산 단체발표회수를 살펴보면 1-10회이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54.2%), 그 다음은 11-30회(22.8%)이었으며, 1 회의 단체활동도 하지않은 경우가 (15.0%)를 나타내고 있다. 국악인들은 개인별로 통산, 20회정도 단체작품발표회(20.4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분야의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는 한 회의 창작활동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78.5%), 11회 이상이 소수(3.5%)를 차지하고 있다. 국악인들의 1인당 평균 통산 창작작품수는 3회 미만(2.6회)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국악분야 1인당 통산 논문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논문 및 책저술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77.9%), 200편과 300편이 똑같은 비율(10.3%)을차지하고 있다. 국악인들은 개인별로 통산 50편 이상의 논문 및 책(51.7편)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분야 1인당 연간 개인발표회수를 살펴보면 1-3회인 경우(42.3%)보다는 개인작품활동이 없는 비율(57.7%)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인들은 평균 2회정도(1.9회)의 개인 발표회를 지난 해에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분야 1인당 연간 단체작품발표수는 1-2회이 과반수이상 이었으며(51.3%), 6회 이상인 경우는(9.9%) 소수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1인당 평균 단체작품발표회수는 3회정도(2.9회)으로 나타났다. 국악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1-3회(6.0%), 4회 이상(3.2%)이 소수를 나타낸 반면, 그 나머지 대부분(90.8%)은 창작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연간 논문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거의 모든 사람(98.9%)이 논문 및 책발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무용 분야

무용분야의 첫 활동방식은 단체발표 및 단체입단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5.9%), 국내외 콩쿨이 그 다음순(21.8%)을 차지하고 있다.

무용분야 1인당 통산개인발표회수를 살펴보면 1-5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26.3%), 그 다음으로 6-10회(21.2%), 11-20회(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무용분야 예술인들은 통산 14회(13.9회)의 개인작품발표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통산단체발표회수를 살펴보면 6-10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25.8%), 단체활동이 전혀없는 경우와 1-5회인 경우가 똑같은 비율(20.2%)로 나타났다. 무용분야 전체적으로는 1인당 평균, 통산 14회 정도(14.1회)의 단체발표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통산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전혀 창작활동을 하지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60.5%)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통산 1인당 평균 6편 정도의 작품(6.4편)을 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분야 1인당 통산논문 및 간행책수는 1-2편(8.5%), 3편 이상(4.6%)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 나머지(86.9%)는 전혀 논문과 책발행 활동을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분야 전체적으로도 평균으로 나타내면 수치상으로 1편 미만(0.4편)의 저술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연간개인발표회수를 보면 개인발표활동을 전혀 하지않은 경우가 대다수(66.9%)였고, 그 나머지는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년동안 평균 1회에 못미치는(0.7회) 개인발표 활동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단체발표회수를 살펴보면 단체작품활동이 전혀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차지했고(33.1%), 그 다음은 3-4회(26.0%), 1-2회(20.5%)순으로 나타났다. 무용인들은 1인당 연간 3회정도의 단체발표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1편 및 2편이 같게 나타났으며(15.0%),그 나머지 대다수는(55.1%)는 창작활동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인들은 연간 1편정도의 작품(1.2편)을 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논문 및 간행책수는 논문과 책발행 활동이 없는 경우(96.1%)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연극 분야

연극인들의 입단은 대체로 단체입단의 경우가 보편적인(60.7%)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추천, 공모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극인들의 1인당 평균 작품활동은 37.3편으로 집계 되었다. 11-20편 사이의 분포가 가장 높게(29.9%) 나타났다. 활동분포는 비교적 고른분포를 보여, 한편도 참여 또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1.3%). 연극관련 서적 및 논문 간행 활동은 극히 저조하여 평균 1.1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도 간행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89.2%)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한해동안의 1인당 평균 작품활동은 4.7편으로 집계되었다. 1-3편에 발표 및 참여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분포(53.8%)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연극 분야 관련서적 및 논문 간행은 1인당 평균 0.3편으로 집계 되었다. 한편도 간행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91.2%) 것으로 나타났다.

8) 영화 분야

영화분야의 첫 활동방식은 개인추천을 통한 경우(47.6%)가 다른 분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거의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영화분야 1인당 통산 발표 및 참여작품수는 31-50편이 최대의 비율(29.8%)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개인당 평균 80편정도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산 논문 및 간행책수를 살펴보면 거의 대다수(90.7%)가 논문과 책발행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발표 및 참여작품수를 살펴보면 3-4편과 5-10편이 5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지난 한해동안 영화인들은 평균 4편정도(4.4%)의 작품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논문 및 간행책수를 보면 1편 및 2편 이상은 소수(10.9%)에 불과했고, 나머지(89.2%)는 논문과 책발행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연예 분야

연예분야의 첫 활동방식은 악극단 및 업소출연이 가장 많고(74.2%), 그 다음으로 개인발표(14.0%), 공모(5.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예분야 1인당 통산 창작작품수를 살펴보면 창작활동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이상(50.9%)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1-10편(16.3%), 11-100편(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예분야의 예술인 1인은 통산 51편 정도의 작품(51.3%)을 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분야의 1인당 통산 방송프로그램 출연수는 1-50회가 대다수(63.2%)였으나, 방송프로그램 출연활동이 없는 경우(15.8%)도 상당부분 되었다. 연예인들은 개인별로 통산, 평균 60회정도의 방송프로그램(61.5회)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분야 1인당 통산 공개행사 출연수를 살펴보면 11회 이상 및 1-10회는 소수(8.8%)였으며, 공개행사 활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들은 개인별로 통산, 평균 2회정도의 공개행사(1.7회)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분야 1인당 연간 창작작품에 대한 응답자 분포는 창작활동을 전혀 하지않는 경우가 대다수(71.9%)였으며, 그 다음은 1-5편(14.0%), 11편 이상(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들은 개인별로 지난해에 평균 4편정도의 작품(3.8편)을 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방송프로그램 출연수를 살펴보면 방송프로그램 활동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47.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1-5회(22.8%), 6-10회(12.3%), 11-30회(10.5%), 31회 이상(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들은 개인별로 지난해에 평균 9회정도 방송프로그램(8.6회)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공개행사 출연수를 살펴보면 12회를 출연한 경우는 극소수(1.8%)인 반면에 거의 모든 사람(98.2%)은 공개행사 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과 제언

본 조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수립과 문화예술 진흥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각 분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내용은 각 분야 문화예술인들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문화예술에 관한 태도, 예술활동실태 등이었다. 이번 연구는 자료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1989년 문화발전연구소 선행연구의 조사항목을 근간으로 하여 주요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우선 이번 연구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보완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보다 샘플링의 근거가 되는 분야별 문화예술인 회원명부가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표집이 아닌 전 표본을 특정인들로 구체화해야 하는 본 조사에 있어 회원명부의 부정확성은 조사진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주거안정

도가 매우 낮다는 또다른 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편설문, 전화설문 등과 같은 신축성 있는 조사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설문문항 구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문항 17번 발전분야에 관한 질문에 대해 대체로 응답자들은 자기 활동분야를 응답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이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만으로 발전분야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예컨대, 자기 분야를 제외한 발전분야를 묻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자. 문항 22번 창작활동 장애요인에 관한 질문에서 기타란에 「시간부족」이라고 기입한 응답자가 다수 있었는데 차후연구에서는 이를 응답항목해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분야별 설문에선 2번 작품활동내역에 관한 문항이 자유기술형으로 되어 있어서 무응답이 상당수 있었는데 차후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선다형으로 구성하면 무응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작품발표 기회, 사회적 대우 등 제반 여건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적인 보상보다는 예술활동 자체가 주는 내적인 만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창작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곤란보다는 정책적·제도적 지원 미비와 사회적 인식이 보다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인들의 작품발표 및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 강화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고양을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분야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악인들이 다른 분야 예술인들에 비해 제반 예술활동여건에서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국악인들의 예술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은 시급하다고 보겠다.

부 록

- # 부록 1 : 기타 조사결과표
- # 부록 2 : 조사원 신분확인서
- # 부록 3 : 조사원 지침서
- # 부록 4 : 설문 해설서
- # 부록 5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표

부록 1 : 기타 조사결과표

I. 전체통계

° 활동분야별 성별분포

분야	성별		계
	남자	여자	
문 학	78.5	21.5	8.1
조형예술	77.1	22.9	27.7
디 자 인	79.5	20.5	4.3
양 약	40.8	59.2	14.8
국 약	63.4	36.6	20.3
무 용	19.0	81.0	7.0
연 극	72.1	27.9	8.5
영 화	86.2	13.8	4.5
연 예	68.1	31.9	4.8
계	64.6	35.4	100.0
Chi-Square	276.97601	D.F. 8	Significance .0000

° 활동분야별 연령분포

분야	연령	연령					60대 이상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문 학			7.5	17.6	26.4	28.3	20.1	8.1
조형예술			3.9	25.2	36.8	23.8	10.3	27.8
디 자 인			4.8	27.7	42.2	20.5	4.8	4.2
양 약			22.8	27.3	25.3	18.3	6.2	14.8
국 약	1.0	21.2	22.2	21.7	22.5	11.4		20.3
무 용	5.8	28.5	30.7	23.4	11.7			7.0
연 극	.6	21.2	37.6	26.1	12.7	1.8		8.4
영 화		9.2	28.7	16.1	27.6	18.4		4.5
연 예		21.3	40.4	21.3	7.4	9.6		4.8
계	.7	14.8	26.7	27.9	20.5	9.4	100.0	
Chi-Square	313.46778	D.F. 40	Significance	.0000				

° 활동분야별 거주지분포

분야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문 학	55.7	5.7	1.3	3.2	5.1	1.9	6.3	7.6	.6		1.3	2.5	8.9			8
조형예술	32.0	7.9	7.8	4.1	7.8	3.5	3.9	3.0	3.0	1.3	.2	10.7	10.5	3.3	1.1	27
디 자 인	45.8	13.3	2.4	1.2	1.2	3.6	16.9			7.2		1.2	6.0		1.2	4
양 악	50.9	5.5	2.8	8.7	3.1	3.5	2.1	.7	2.4	3.5	2.1	4.2	6.6	3.1	1.0	14
국 악	41.8	6.3	.5	4.8	.3	.3	10.4	5.3	2.3	6.8	6.8	.5	2.3	7.3	4.3	20
무 용	40.1	5.8	2.9	3.6	6.6	2.2	8.0	3.6	3.6	2.9	3.6	5.1	5.1	2.9	3.6	7
연 극	25.5	6.7	1.2	3.6	2.4	4.8	7.3	10.3	5.5	1.2	1.8	13.9	9.1	6.7		8
영 화	73.6	5.7					20.7									4
연 예	17.0	16.0	17.0		19.1	14.9	16.0									4
계	40.4	7.3	4.0	4.3	4.7	3.1	7.6	3.7	2.4	2.9	2.3	5.5	6.5	3.6	1.6	100
Chi-Square	745.09872		D.F. 112		Significance .0000											

° 활동분야별 행정단위거주분포

분야	단위: %			계		
	단위	대도시	중소도시			
문 학	72.3	20.1	7.5	8.1		
조형예술	63.2	32.8	4.1	27.8		
디 자 인	67.5	31.3	1.2	4.3		
양 악	75.3	22.6	2.1	14.8		
국 악	53.7	35.4	10.9	20.2		
무 용	82.5	17.5		7.0		
연 극	44.2	48.5	7.3	8.5		
영 화	79.3	16.1	4.6	4.5		
연 예	84.0	16.0		4.8		
계	65.5	29.4	5.1	100.0		
Chi-Square	143.26231		D.F. 16		Significance .0000	

° 활동분야별 종교분포

종교 분야	단위: %						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없음	기타	
문 학	15.7	23.9	15.1	8.8	34.6	1.9	8.1
조형예술	23.6	18.4	17.5	2.8	35.7	2.0	27.8
디 자 인	6.0	19.3	25.3	1.2	45.8	2.4	4.3
양 약	20.5	44.4	20.5	1.4	12.5	.7	14.8
국 약	27.0	10.4	8.3	33.6	19.2	1.5	20.3
무 용	20.4	11.7	10.9		55.5	1.5	7.0
연 극	10.9	20.0	21.2	2.4	43.6	1.8	8.5
영 화	27.6	20.7	10.3		41.4		4.5
연 예	27.7	22.3	4.3	4.3	39.4	2.1	4.8
계	21.5	21.1	15.1	9.0	31.8	31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621.63908	40		.0000				

° 성별 정규직장 유무

정규직장 성별	단위: %		계
	있다	없다	
남 자	69.9	30.1	64.7
여 자	76.8	23.2	35.3
계	72.3	27.7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0.07601	1		.0015

000

° 연령별 정규직장 유무

정규직장 연령	단위: %		계
	있다	없다	
10 대	30.8	69.2	.7
20 대	77.8	22.2	14.9
30 대	77.6	22.4	26.7
40 대	76.2	23.8	28.0
50 대	68.3	31.7	20.5
60대이상	49.2	50.8	9.3
계	72.4	27.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78.55203	5		.0000

° 학력별 정규직장유무

정규직장 학력	단위: %		계
	있다	없다	
국졸이하	26.3	73.7	3.9
중 졸	35.3	64.7	7.2
고 졸	67.4	32.6	26.1
대졸이상	81.5	18.5	62.8
계	72.3	27.7	100.0
Chi-Square	233.38344	D.F. 3	Significance .0000

° 활동분야별 정규직업의 종류

분야	직업	단위: %									계
		교사	교수	학원 경영	학원 강사	중소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문화예술 단원	기타	
문 학		38.7	27.4	1.9	2.8	6.6	13.2	1.9	.9	6.6	7.3
조형예술		22.3	20.6	15.3	4.2	12.0	7.9	5.5	3.1	9.2	31.6
디 자 인			47.4	7.7		37.2				7.7	5.4
양 악		20.2	25.1	9.1	8.4	1.1	.4	2.3	22.1	11.4	18.2
국 악		6.3		11.4	9.7	7.4	9.1	8.6	32.0	15.4	12.1
무 용		7.4	10.7	9.8	10.7	.8	1.6		5.7	53.3	8.4
연 극		16.0	2.5	1.7	1.7	10.9	15.1	1.7	28.6	21.8	8.2
영 화				1.9		19.2			53.8	25.0	3.6
연 예				4.1		1.4	4.1		66.2	24.3	5.1
계		16.3	16.7	9.7	5.3	9.1	6.2	3.5	17.1	16.2	100.0
Chi-Square		909.89394	D.F. 64	Significance		.0000					

° 성별 정규직업의 종류

성별	직업	단위: %									계
		교사	교수	학원 경영	학원 강사	중소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문화예술 단원	기타	
남 자		17.3	15.5	8.1	2.5	13.6	7.3	4.0	17.5	14.2	62.6
여 자		14.4	18.9	12.4	9.8	1.7	4.4	2.6	16.1	19.6	37.4
계		16.3	16.7	9.7	5.3	9.1	6.2	3.5	17.1	16.2	100.0
Chi-Square		110.09569	D.F. 8	Significance		.0000					

° 연령별 정규직업의 종류

연령	직업	단위: %								계	
		교사	교수	학원 경영	학원 강사	중소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문화예술 단원		기타
10대							25.0			75.0	.3
20대		5.2	.9	10.0	7.0	.4	7.9	6.1	43.2	19.2	15.8
30대		22.3	13.2	11.5	7.6	8.8	7.8	2.2	14.5	12.0	28.2
40대		14.4	21.2	9.2	3.5	9.6	6.8	3.8	11.5	20.0	29.4
50대		23.6	23.9	7.9	4.3	14.6	2.9	2.9	8.6	11.4	19.4
60대이상		5.0	29.0	9.0	2.0	13.0	2.0	3.0	16.0	21.0	6.9
계		16.3	16.7	9.7	5.3	9.1	6.2	3.5	17.1	16.2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307.08081		40	.0000							

° 학력별 정규직업의 종류

연령	직업	단위: %								계	
		교사	교수	학원 경영	학원 강사	중소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문화예술 단원		기타
국졸이하		4.0		8.0	8.0	20.0	16.0	4.0	20.0	20.0	1.7
중졸		1.6		18.0	4.9	14.8	6.6	11.5	24.6	18.0	4.2
고졸		4.2	.3	4.8	4.8	14.0	11.5	4.2	30.3	25.8	24.6
대졸이상		21.7	24.0	11.0	5.4	6.8	4.1	2.7	11.8	12.6	69.4
계		16.3	16.7	9.7	5.3	9.1	6.2	3.5	17.0	16.2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326.14668		24	.0000							

° 성별 월평균수입분포

성별	수입	단위: %					계	
		40만원 이하	41-70 만원	71-100 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만원 이상
남자		19.9	18.4	26.0	20.0	9.8	5.8	65.2
여자		22.7	22.7	25.2	19.7	6.1	3.6	34.8
계		20.9	19.9	25.7	19.9	8.5	5.1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6.88344		5	.0047				

° 연령별 월평균수입분포

연령	수입 대	단위: %					계	
		40만원 이하	41-70 만원	71-100 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만원 이상
10대		44.4	22.2		33.3		.5	
20대		29.4	29.7	23.8	9.8	4.5	2.8	15.1
30대		17.6	22.1	34.2	18.2	4.7	3.2	26.6
40대		14.5	18.4	28.0	22.2	12.0	4.9	28.0
50대		21.1	10.9	19.3	27.7	10.2	10.9	20.7
60대이상		34.1	22.0	13.9	16.8	11.6	1.7	9.1
계		20.8	19.9	25.8	19.9	8.5	5.1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98.97767		25		.0000				

° 학력별 월평균수입분포

학력	수입 종	단위: %					계	
		40만원 이하	41-70 만원	71-100 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만원 이상
국졸이하		74.3	13.5	6.8	5.4			3.9
중졸		52.1	22.9	10.7	9.3	4.3	.7	7.4
고졸		26.4	27.2	23.7	14.9	4.7	3.1	25.8
대졸이상		11.6	16.9	29.6	24.2	11.0	6.7	63.0
계		20.9	19.9	25.8	20.0	8.5	5.1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352.56315		15		.0000				

° 성별 예술활동관련수입

성별	수입 자	단위: %							계	
		10만원 이하	11-30 만원	31-50 만원	51-70 만원	71-100 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만원 이상
남		45.2	17.3	10.0	4.6	12.8	4.4	2.5	3.2	66.5
여		41.9	20.9	12.4	5.1	13.9	1.6	2.3	1.8	33.5
계		44.1	18.5	10.8	4.8	13.2	3.5	2.4	2.7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8.39652		7		.0103						

° 연령별 예술활동관련수입

		단위: %								
연령	수입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계
10대		55.6	11.1			33.3				.5
20대		34.6	17.9	12.5	7.5	22.1	1.8	.4	3.2	15.3
30대		43.7	16.6	10.6	5.6	14.6	4.2	3.2	1.4	27.3
40대		39.6	25.2	10.0	2.6	12.0	3.7	3.5	3.3	27.8
50대		57.4	11.8	10.2	4.1	8.5	2.5	1.6	3.8	19.9
60대이상		44.4	20.1	13.0	5.9	7.7	5.3	1.8	1.8	9.2
계		44.0	18.5	10.8	4.8	13.3	3.4	2.4	2.7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14.03365	35	.0000								

° 학력별 예술활동관련수입

		단위: %								
학력	수입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계
국졸이하		81.1	4.1	4.1	4.1	4.1	2.7			4.0
중졸		62.9	14.4	7.6	6.8	2.3	3.0	3.0		7.2
고졸		41.5	14.1	14.1	6.6	16.3	3.2	1.9	2.1	25.5
대졸이상		40.5	21.6	10.3	3.8	13.9	3.6	2.7	3.5	63.2
계		44.0	18.5	10.8	4.8	13.3	3.4	2.4	2.7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06.45015	21	.0000								

° 활동분야별 월평균지출

분야	단위: %						계
	지출: 40만원 이하	4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문 학	20.4	32.5	14.0	14.6	6.4	12.1	8.2
조형예술	23.7	27.9	22.6	14.8	5.4	5.6	28.0
디 자 인	8.0	29.3	12.0	30.7	10.7	9.3	3.9
양 악	13.0	30.6	26.1	15.5	13.0	1.8	14.8
국 악	38.4	52.5	4.4	1.0	1.6	2.1	20.0
무 용	12.7	20.1	57.5	3.7	3.0	3.0	7.0
연 극	43.6	23.6	13.9	13.3	5.5		8.6
영 화	36.8	16.1	14.9	10.3	10.3	11.5	4.5
연 예	24.5	41.5	12.8	18.1	2.1	1.1	4.9
계	25.8	32.9	19.2	11.8	6.0	4.4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504.64513	40		.0000				

° 성별 월평균지출

성별	단위: %						계
	지출: 40만원 이하	4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남 자	22.9	36.0	19.5	12.2	5.0	4.5	65.5
여 자	31.4	26.8	18.6	11.2	7.7	4.2	34.5
계	25.8	32.8	19.2	11.8	6.0	4.4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28.92873	5		.0000				

° 연령별 월평균지출

연령	단위: %						계
	지출: 40만원 이하	4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10대	54.5		27.3		9.1	9.1	.6
20대	49.0	19.2	24.1	4.2	1.7	1.7	14.9
30대	24.6	45.9	18.7	6.1	2.6	2.2	26.5
40대	17.5	31.3	18.9	14.9	11.7	5.7	27.7
50대	18.8	31.8	18.8	17.0	6.0	7.5	20.8
60대이상	30.0	26.7	14.4	20.0	5.0	3.9	9.4
계	25.8	32.9	19.2	11.8	6.0	4.4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263.99585	25	.0000					

° 학력별 월평균지출

학력	단위: %						계
	지출: 40만원 이하	4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국졸이하	30.3	60.5	5.3	3.9			4.0
중졸	34.7	50.0	6.3	4.9	.7	3.5	7.5
고졸	33.2	34.6	18.9	6.2	3.2	3.8	26.0
대졸이상	21.2	28.3	21.8	15.5	8.1	5.0	62.5
계	25.7	32.9	19.2	11.8	6.0	4.4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56.55676	15	.0000					

° 활동분야별 예술활동관련지출

		단위: %								
지출분야	지출: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계	
문 학	51.3	36.1	3.8	1.3		.6	6.3	.6	8.4	
조형예술	20.4	43.0	18.1	8.0	4.3	2.6	1.5	2.1	28.3	
디 자 인	16.0	39.5	22.2	9.9	6.2		1.2	4.9	4.3	
양 악	33.0	37.5	10.7	3.4	3.1	10.3	.4	1.5	13.8	
국 악	38.8	51.5	6.1	1.1	.8	.5	.3	1.1	20.0	
무 용	9.1	20.5	14.4	49.2	3.8	.8	1.5	.8	7.0	
연 극	31.1	28.7	18.3	9.1	6.1	4.3	.6	1.8	8.7	
영 화	18.4	49.4	5.7	10.3	2.3	4.6	9.2		4.6	
연 예	36.2	29.8	12.8	12.8	4.3	4.3			5.0	
계	29.0	40.0	12.6	8.8	3.2	3.2	1.7	1.5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614.47900	56		.0000							

° 성별 예술활동관련지출

		단위: %								
성별	지출: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계	
남 자	25.4	45.0	12.2	7.9	3.6	2.6	1.8	1.5	66.3	
여 자	36.3	30.0	13.3	10.7	2.4	4.4	1.6	1.4	33.7	
계	29.1	39.9	12.6	8.8	3.2	3.2	1.7	1.5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51.62066	7		.0000							

° 연령별 예술활동관련지출

연령	단위: %								
	지출: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계
10대	50.0	10.0	10.0	30.0					5
20대	35.2	38.4	9.9	10.9	.7	2.8	.7	1.4	15.0
30대	32.3	39.6	15.0	8.7	2.6	.4	.6	1.0	26.9
40대	22.0	36.6	15.4	11.3	3.2	8.4	.9	2.3	28.2
50대	24.3	49.1	10.1	5.3	5.1	.8	4.0	1.3	19.8
60대이상	39.8	37.0	7.2	5.0	5.0	1.1	3.9	1.1	9.6
계	29.0	40.0	12.6	8.8	3.2	3.2	1.7	1.5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78.63228	35	.0000							

° 학력별 예술활동관련지출

학력	단위: %								
	지출: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계
국졸이하	35.1	57.1	2.6	5.2					4.1
중졸	44.1	44.1	4.9	.7	1.4		4.2	.7	7.6
고졸	32.2	37.7	9.6	12.8	2.4	2.9	2.0	.4	26.0
대졸이상	25.5	39.4	15.4	8.4	3.9	3.9	1.4	2.1	62.4
계	29.0	40.0	12.6	8.8	3.2	3.2	1.7	1.5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03.01093	21	.0000							

° 성별 발전분야

발전분야	문	학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화연	예	단위: %
성별											계
남자	15.7	11.6	12.5	29.2	1.1	3.5	12.7	13.6			64.5
여자	12.3	9.0	7.2	32.9	6.2	4.7	14.3	13.3			35.5
계	14.5	10.7	10.7	30.5	2.9	3.9	13.3	13.5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60.54671	7		.0000								

° 학력별 발전분야

발전분야	문	학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화연	예	단위: %
학력											계
국졸이하	6.6	5.3	3.9	64.5	1.3	3.9	3.9	10.5			4.0
중졸	4.2	5.6	6.9	43.8	5.6	4.9	13.9	15.3			7.5
고졸	11.7	5.2	8.1	26.8	4.6	6.7	20.8	16.1			26.0
대졸이상	17.4	14.0	12.6	28.2	2.0	2.7	10.7	12.5			62.5
계	14.5	10.7	10.6	30.5	2.9	3.9	13.3	13.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71.91265	21		.0000								

° 학력별 사회적 대우

학력	대우	상당한 대우	괜찮은 대우	그저그런 편	좀부당한 대우	형편없는 대우	단위: %
계	1.9	17.4	41.8	22.1	16.8		100.0
국졸이하		9.2	14.5	21.1	55.3		3.9
중졸	2.8	4.8	36.6	28.3	27.6		7.5
고졸	2.4	10.3	40.8	24.5	22.1		26.2
대졸이상	1.7	22.5	44.5	20.4	10.9		62.4
Chi-Square	D.F.		Significance				
184.13042	12		.0000				

° 성별 생활수준

생활수준 성별	단위: %					계
	상당히 족족	넉넉한 편	보통	가난한 편	아주가난	
남 자	.6	10.9	60.2	26.3	2.0	64.7
여 자	1.5	26.4	59.9	11.1	1.2	35.3
계	.9	16.4	60.1	20.9	1.7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18.90867	4	.0000				

° 학력별 생활수준

생활수준 학력	단위: %					계
	상당히 족족	넉넉한 편	보통	가난한 편	아주가난	
국졸이하		1.3	33.3	57.7	7.7	4.0
중 졸		4.8	45.5	49.0	.7	7.5
고 졸	.8	4.7	61.8	30.3	2.4	26.1
대졸이상	1.2	23.6	62.9	11.2	1.2	62.4
계	.9	16.4	60.1	20.9	1.7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324.54196	12	.0000				

° 성별 작품발표기회

발표기회 성별	단위: %					계
	매우충분	충분한편	보 통	부족한편	매우부족	
남 자	1.0	7.6	32.7	40.3	18.2	64.8
여 자	.9	10.1	31.9	49.6	7.5	35.2
계	1.0	8.5	32.5	43.6	14.4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47.70889	4	.0000				

° 학력별 작품발표기회

발표기회 학력	단위: %					계
	매우충분	충분한편	보통	부족한편	매우부족	
국졸이하		7.7	14.1	24.4	53.8	4.0
중 졸	2.1	2.1	37.9	30.3	27.6	7.5
고 졸	1.2	6.5	26.3	48.8	17.2	26.1
대졸이상	.8	10.2	35.6	44.3	9.2	62.4
계	1.0	8.5	32.5	43.6	14.4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78.42800	12	.0000				

° 성별 직업만족도

성별	단위: %					계
	만족도 대단히 만족	만족스러 운 편	그저 그렇다	만족스럽 지 않은편	아주불만	
남 자	20.9	43.4	23.4	9.6	2.7	64.9
여 자	15.2	50.5	21.7	10.9	1.6	35.1
계	18.9	45.9	22.8	10.1	2.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5.84875	4	.0032				

° 학력별 직업만족도

학력	단위: %					계
	만족도 대단히 만족	만족스러 운 편	그저 그렇다	만족스럽 지 않은편	아주불만	
국졸이하	51.3	20.5	16.7	6.4	5.1	4.0
중 졸	29.2	32.6	25.0	10.4	2.8	7.4
고 졸	14.9	36.6	27.9	17.2	3.4	26.1
대졸이상	17.4	52.9	20.7	7.3	1.7	62.4
계	19.0	45.8	22.8	10.1	2.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48.67189	12	.0000				

° 성별 창작활동장애요인

장애요인 성별	단위: %						계
	경제적 여유가 없다	정부의 간섭이 많다	정책적 제도적 지원미비	지도자가 부족하다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기 타	
남 자	23.4	6.7	29.1	3.6	31.2	6.0	64.9
여 자	19.5	1.0	29.0	7.9	19.5	23.2	35.1
계	22.0	4.7	29.1	5.1	27.1	12.1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76.83969	5		.0000				

° 연령별 창작활동 장애요인

장애요인 연령	단위: %						계
	경제적 여유가 없다	정부의 간섭이 많다	정책적 제도적 지원미비	지도자가 부족하다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기 타	
10 대	7.7	7.7	15.4	7.7	30.8	30.8	7
20 대	23.4	15.5	18.0	7.6	22.3	13.3	14.5
30 대	24.9	3.3	27.4	5.4	26.1	12.8	26.8
40 대	20.1	2.2	32.7	5.2	24.5	15.3	28.2
50 대	20.5	3.5	32.3	2.8	34.8	6.1	20.6
60대이상	21.5	1.7	35.0	5.1	27.1	9.6	9.2
계	22.0	4.7	29.2	5.1	27.0	12.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48.99388	25		.0000				

° 학력별 창작활동 장애요인

장애요인 학력	단위: %						계
	경제적 여유가 없다	정부의 간섭이 많다	정책적 제도적 지원미비	지도자가 부족하다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기 타	
국졸이하	11.5	3.8	19.2	6.4	55.1	3.8	4.1
중 졸	14.3	2.9	25.7	7.9	45.0	4.3	7.3
고 졸	29.7	2.0	22.8	6.2	27.5	11.8	26.1
대졸이상	20.3	6.1	32.8	4.3	22.9	13.6	62.5
계	22.0	4.7	29.1	5.1	27.0	12.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18.49645	15		.0000				

II. 분야별 통계

1. 문학

° 부문별 성별분포

성별	단위: %		계
	남자	여자	
시	76.6	23.4	42.4
시조	70.0	30.0	6.6
소설	80.8	19.2	17.2
수필	76.7	23.3	19.9
희곡	80.0	20.0	3.3
아동 문학	81.3	18.8	10.6
계	77.5	22.5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67273	5	.9844	

° 부문별 연령분포

연령	단위: %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시	15.6	23.4	10.9	29.7	20.3	42.4
시조		20.0	40.0	40.0		6.6
소설	3.8		73.1	19.2	3.8	17.2
수필			30.0	33.3	36.7	19.9
희곡	20.0	20.0		40.0	20.0	3.3
아동 문학		56.3	6.3	25.0	12.5	10.6
계	7.9	17.9	26.5	29.1	18.5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79.15562	20	.0000				

° 부문별 학력분포

부문	단위: %			계
	학력 증졸	고졸	대졸이상	
시	1.6	21.9	76.6	42.4
시 조		30.0	70.0	6.6
소 설		7.7	92.3	17.2
수 필		3.3	96.7	19.9
회 곡			100.0	3.3
아동 문학		6.3	93.8	10.6
계	.7	13.9	85.4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2.35595	10	.2619		

° 부문별 직장유무

부문	단위: %		계
	직장 있다	없다	
시	73.0	27.0	42.0
시 조	80.0	20.0	6.7
소 설	38.5	61.5	17.3
수 필	53.3	46.7	20.0
회 곡	80.0	20.0	3.3
아동 문학	93.8	6.3	10.7
계	66.0	34.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9.11448	5	.0018	

° 부문별 직업의 종류

부문	단위: %										계
	직업 교사	교수	학원	학원	중소 회사원	공무원	문화예 기타	경영	자영업	술단원	
시	30.4	34.8	2.2	4.3	8.7	13.0				6.5	46.0
시 조	44.4				11.1	22.2	11.1			11.1	9.0
소 설	5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 필	18.8	56.3			6.3	12.5				6.3	16.0
회 곡	25.0				50.0		25.0				4.0
아동 문학	80.0	6.7	6.7							6.7	15.0
계	39.0	27.0	2.0	3.0	7.0	13.0	2.0	1.0	6.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70.74627	40	.0019									

° 부문별 월평균수입

부문	단위: %						계
	월평균 수입	40만원 이하	41-70 만원	71-100 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시	12.7	25.4	31.7	12.7	14.3	3.2	42.3
시 조	20.0	20.0	20.0	30.0		10.0	6.7
소 설	12.0	8.0	44.0	12.0	16.0	8.0	16.8
수 필	13.3	26.7	10.0	40.0	6.7	3.3	20.1
회 곡		20.0	40.0	40.0			3.4
아동 문학	6.3	12.5	25.0	56.3			10.7
계	12.1	20.8	28.2	24.8	10.1	4.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35.25335	25		.0837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수입

부문	단위: %								계
	월평균 수입	10만원 이하	11-30 만원	31-50 만원	51-70 만원	71-100 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시	41.3	46.0	12.7						42.0
시 조	60.0	40.0							6.7
소 설	15.4	61.5	3.8	3.8		3.8	3.8	7.7	17.3
수 필	43.3	56.7							20.0
회 곡	40.0	40.0				20.0			3.3
아동 문학	25.0	18.8	37.5	6.3	6.3		6.3		10.7
계	36.7	47.3	10.0	1.3	.7	1.3	1.3	1.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73.63415	35		.0001						

° 부문별 월평균지출

부문	단위: %						계
	월평균지출 40만원 이하	4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시	31.7	27.0	14.3	6.3	6.3	14.3	42.3
시 조	20.0	30.0	20.0	10.0	10.0	10.0	6.7
소 설	12.0	8.0	16.0	20.0	8.0	36.0	16.8
수 필	13.3	40.0	6.7	36.7	3.3		20.1
회 곡	20.0	60.0	20.0				3.4
아동 문학	6.3	75.0	12.5	6.3			10.7
계	20.8	32.9	13.4	14.8	5.4	12.8	100.0
Chi-Square	58.65559	D.F. 25	Significance .0002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지출

부문	단위: %								계
	월평균지출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7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시	58.7	22.2	3.2	1.6		14.3		42.0	
시 조	50.0	20.0	20.0				10.0	6.7	
소 설	19.2	73.1		3.8	3.8			17.3	
수 필	76.7	20.0	3.3					20.0	
회 곡	60.0	20.0	20.0					3.3	
아동 문학	25.0	75.0						10.7	
계	51.3	36.0	4.0	1.3	.7	6.0	.7	100.0	
Chi-Square	79.78381	D.F. 30	Significance .0000						

2.조형예술

° 부문별 성별분포

부문	성별		계
	남자	여자	
서양화	72.5	27.5	31.0
한국화	67.1	32.9	14.1
판화	25.0	75.0	1.5
서예	88.9	11.1	8.4
조각	72.9	27.1	8.9
공예	42.9	57.1	6.5
사진	94.2	5.8	29.0
평론	100.0		.4
기타	100.0		.2
계	77.0	23.0	100.0
Chi-Square	72.38698	D.F. 8	Significance .0000

° 부문별 연령분포

부문	연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서양화	5.4	28.0	39.9	21.4	5.4	31.1
한국화	7.7	24.4	30.8	26.9	10.3	14.4
판화			100.0			1.5
서예	2.2	8.9	42.2	20.0	26.7	8.3
조각	4.2	31.3	33.3	27.1	4.2	8.9
공예	2.9	40.0	40.0	14.3	2.9	6.5
사진	1.3	23.7	33.3	28.2	13.5	28.8
평론					100.0	.4
기타					100.0	.2
계	3.9	25.1	37.0	23.7	10.4	100.0
Chi-Square	82.77835	D.F. 32	Significance .0000			

° 부문별 학력분포

부문	단위: %				계
	학력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서양화	.6	.6	5.4	93.5	31.1
한국화	2.6		16.7	80.8	14.4
판화				100.0	1.5
서예	2.2	6.7	17.8	73.3	8.3
조각	2.1	2.1	4.2	91.7	8.9
공예	2.9	5.7	11.4	80.0	6.5
사진	3.8	5.1	41.0	50.0	28.8
평론				100.0	.4
기타				100.0	.2
계	2.2	2.8	18.5	76.5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06.46890	24		.0000		

° 부문별 직장유무

부문	단위: %		계
	직장 있다	없다	
서양화	79.8	20.2	31.2
한국화	76.9	23.1	14.5
판화	87.5	12.5	1.5
서예	80.0	20.0	8.3
조각	93.8	6.3	8.9
공예	84.8	15.2	6.1
사진	83.3	16.7	28.9
평론	100.0		.4
기타	100.0		.2
계	82.2	17.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7.78683	8		.4546

° 부문별 직업의 종류

부문	단위: %									계
	직업 교사	교수	학원 경영	학원	중수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문화예 술단원	기타	
서양화	35.3	22.3	22.3	7.2	1.4	1.4	2.9	2.2	5.0	30.5
한국화	16.4	39.3	23.0	3.3	1.6			8.2	8.2	13.4
판화		100.0								1.5
서예	23.7	2.6	39.5	10.5	7.9	5.3	5.3		5.3	8.3
조각	44.4	26.7	2.2		13.3	2.2	8.9		2.2	9.9
공예	10.0	50.0	16.7		3.3	3.3	16.7			6.6
사진	9.0	1.5	3.0	2.3	31.6	22.6	6.0	4.5	19.5	29.2
평론							100.0			.4
기타									100.0	.2
계	22.6	20.2	15.4	4.2	12.1	7.9	5.5	3.1	9.2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371.45289	64		.0000							

° 부문별 월평균 수입

부문	월평균 수입						단위: % 201만원 이상	계
	40만원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서양화	15.6	15.6	33.5	19.8	11.4	4.2	31.3	
한국화	8.2	23.3	26.0	24.7	13.7	4.1	13.7	
판화	12.5		37.5	25.0	25.0		1.5	
서예	2.2	24.4	37.8	26.7	4.4	4.4	8.4	
조각	14.6	6.3	37.5	16.7	16.7	8.3	9.0	
공예	8.6	17.1	14.3	42.9		17.1	6.6	
사진	5.8	24.0	22.7	26.6	11.0	9.7	28.9	
평론					100.0		.4	
기타					100.0		.2	
계	9.9	18.8	28.7	24.2	11.4	6.9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81.76533	40		.0001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수입

부문	월평균 수입								단위: % 201만원 이상	계
	10만원 이하	11-30 만원	31-50 만원	51-70 만원	71-100 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서양화	54.2	20.5	11.4	4.8	5.4		.6	3.0	31.4	
한국화	27.8	13.9	13.9	5.6	23.6	2.8	6.9	5.6	13.6	
판화	50.0	12.5	37.5						1.5	
서예	46.7	24.4	8.9	2.2	8.9		6.7	2.2	8.5	
조각	50.0	10.4	22.9		4.2			12.5	9.1	
공예	51.4	25.7	5.7	2.9	2.9	8.6		2.9	6.6	
사진	62.5	15.1	11.8	2.6	3.9	3.9			28.7	
평론			100.0						.4	
기타	100.0								.2	
계	51.6	17.6	13.0	3.4	7.4	2.1	1.7	3.2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35.88491	56		.0000							

° 부문별 월평균 지출

부문	월평균 지출	단위: %					계
		40만원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서양화	31.1	25.1	15.6	15.6	9.6	3.0	31.3
한국화	16.4	30.1	26.0	20.5	2.7	4.1	13.7
판화	25.0		37.5	37.5			1.5
서예	13.3	33.3	31.1	13.3	4.4	4.4	8.4
조각	25.0	29.2	20.8	10.4	4.2	10.4	9.0
공예	22.9	20.0	31.4	2.9	8.6	14.3	6.6
사진	22.7	29.9	24.7	13.6	2.6	6.5	28.9
평론				100.0			.4
기타			100.0				.2
계	23.8	27.4	22.9	14.8	5.4	5.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62.81555	40		.0121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지출

부문	월평균 지출	단위: %								계
		10만원 이하	11-30 만원	31-50 만원	51-70 만원	71-100 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만원 이상	
서양화	15.6	44.9	17.4	11.4	4.2	4.2	.6	1.8	31.3	
한국화	13.7	37.0	23.3	12.3	4.1	2.7	4.1	2.7	13.7	
판화		37.5	62.5						1.5	
서예	26.7	42.2	17.8	4.4	4.4	2.2	2.2		8.4	
조각	20.8	29.2	18.8	6.3	12.5		4.2	8.3	9.0	
공예	31.4	22.9	28.6	8.6	5.7			2.9	6.6	
사진	24.7	52.6	12.3	4.5	1.9	2.6	.6	.6	28.9	
평론		100.0							.4	
기타		100.0							.2	
계	20.1	43.2	18.2	8.1	4.3	2.6	1.5	2.1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79.73571	56		.0203							

3. 디자인

° 부문별 성별분포

부문	성별	단위: %		계
		남자	여자	
건	축	100.0		37.3
시	각	48.0	52.0	30.1
산	업	81.0	19.0	25.3
평	론	100.0		6.0
기	타	100.0		1.2
계		79.5	20.5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24.80517		4		.0001

° 부문별 연령분포

부문	연령	단위: %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건	축		12.9	48.4	29.0	9.7	37.3
시	각		52.0	24.0	24.0		30.1
산	업	19.0	23.8	57.1			25.3
평	론		20.0	40.0	20.0	20.0	6.0
기	타				100.0		1.2
계		4.8	27.7	42.2	20.5	4.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38.69059		16		.0012			

° 부문별 학력분포

부문	학력	단위: %		계
		고졸	대졸이상	
건	축	3.2	96.8	37.3
시	각		100.0	30.1
산	업		100.0	25.3
평	론		100.0	6.0
기	타		100.0	1.2
계		1.2	98.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69788		4		.7911

° 부문별 직장유무

부문	직장	단위: %		계
		있다 1	없다 2	
건	축	96.8	3.2	37.3
시	각	100.0		30.1
산	업	81.0	19.0	25.3
평	론	100.0		6.0
기	타	100.0		1.2
계		94.0	6.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8.70766		4		.0688

° 부문별 직업의 종류

부문	단위: %				계
	직업: 교수	학원경영	중 소 자영업	기 타	
건축	20.0	3.3	70.0	6.7	38.5
시각	76.0		24.0		32.1
산업	47.1	29.4		23.5	21.8
평론	80.0		20.0		6.4
기타			100.0		1.3
계	47.4	7.7	37.2	7.7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49.81139	12	.0000			

° 부문별 월평균 수입

부문	단위: %						계
	월평균: 40만원 수입: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201만원: 이상	
건축			6.5	32.3	29.0	32.3	40.3
시각	36.8		31.6	31.6			24.7
산업		19.0		42.9	38.1		27.3
평론			20.0		80.0		6.5
기타						100.0	1.3
계	9.1	5.2	11.7	32.5	27.3	14.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74.78117	20	.0000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수입

부문	월평균 수입	단위: % 201만원 이상						계
		10만원 이하	11-30	31-50	71-100	101-150	151-200	
건축	16.7	3.3	10.0	10.0	26.7	10.0	23.3	40.0
시각	50.0	16.7		33.3				24.0
산업		23.8	38.1	38.1				28.0
평론	40.0	60.0						6.7
기타	100.0							1.3
계	22.7	16.0	14.7	22.7	10.7	4.0	9.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69.91151		24		.0000				

° 부문별 월평균지출

부문	월평균 지출	단위: % 201만원 이상						계
		40만원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건축	6.5	6.5	3.2	51.6	9.7	22.6	41.3	
시각		64.7	35.3				22.7	
산업	19.0	42.9		19.0	19.0		28.0	
평론			40.0	40.0	20.0		6.7	
기타				100.0			1.3	
계	8.0	29.3	12.0	30.7	10.7	9.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62.53082		20		.0000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지출

부문	월평균 지출	단위: % 201만원 이상						계
		10만원 이하	11-30	31-50	51-70	71-100	151-200	
건축	16.1	25.8	12.9	12.9	16.1	3.2	12.9	38.3
시각	21.7	78.3						28.4
산업		19.0	61.9	19.0				25.9
평론	40.0	40.0	20.0					6.2
기타	100.0							1.2
계	16.0	39.5	22.2	9.9	6.2	1.2	4.9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65.35575		24		.0000				

4. 양악분야

° 부문별 성별분포

부문	성별	단위: %		계
		남자	여자	
성	악	64.7	35.3	29.8
건	반	9.4	90.6	22.5
현	악	25.0	75.0	18.2
관	악	46.9	53.1	11.2
타	악	11.1	88.9	3.2
작	곡	65.5	34.5	10.2
평	론	33.3	66.7	1.1
지	휘	100.0		1.8
기	타	16.7	83.3	2.1
계		40.7	59.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71.58496		8	.0000	

° 부문별 연령분포

부문	연령	단위: %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성	악	51.8	12.9	24.7	7.1	3.5	29.8
건	반	25.0	50.0	15.6	7.8	1.6	22.5
현	악	5.8	32.7	55.8	1.9	3.8	18.2
관	악	3.1	15.6	15.6	65.6		11.2
타	악	11.1	11.1	11.1		66.7	3.2
작	곡	3.4	24.1	6.9	55.2	10.3	10.2
평	론		100.0				1.1
지	휘			20.0	40.0	40.0	1.8
기	타		16.7	66.7	16.7		2.1
계		23.2	27.0	25.6	18.2	6.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265.96542		32	.0000				

° 부문별 학력분포

부문	학력	단위: %		계
		고졸	대졸이상	
성	악	3.5	96.5	29.8
건	반	3.1	96.9	22.5
현	악		100.0	18.2
관	악		100.0	11.2
타	악	22.2	77.8	3.2
작	곡	3.4	96.6	10.2
평	론		100.0	1.1
지	휘		100.0	1.8
기	타		100.0	2.1
계		2.8	97.2	100.0
Chi-Square		15.49536	8	Significance .0502

° 부문별 직장유무

부문	직장	단위: %		계
		있다	없다	
성	악	92.9	7.1	29.8
건	반	95.3	4.7	22.5
현	악	90.4	9.6	18.2
관	악	96.9	3.1	11.2
타	악	22.2	77.8	3.2
작	곡	96.6	3.4	10.2
평	론	66.7	33.3	1.1
지	휘	100.0		1.8
기	타	50.0	50.0	2.1
계		90.5	9.5	100.0
Chi-Square		67.98529	8	Significance .0000

° 부문별 직업의 종류

부문	직업	단위: %									계
		교사	교수	학원 경영	학원 강사	중소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문화예 술단원	기타	
성	악	20.3	12.7	5.1		2.5			53.2	6.3	30.3
건	반	11.3	22.6	22.6	33.9			1.6	6.5	1.6	23.8
현	악	22.9	10.4	2.1				4.2	12.5	47.9	18.4
관	악	19.4	58.1					6.5	16.1		11.9
타	악					33.3		33.3		33.3	1.1
작	곡	25.0	57.1	10.7	3.6				3.6		10.7
평	론	50.0		50.0							.8
지	휘	40.0	40.0	20.0							1.9
기	타	66.7						33.3			1.1
계		19.9	24.9	9.2	8.4	1.1	.4	2.3	22.2	11.5	100.0
Chi-Square		389.52472	64	Significance		.0000					

° 부문별 월평균수입

부문	월평균 수입	단위: %					계	
		40만원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210만원 이상
성	악	4.8	8.3	70.2	9.5	3.6	3.6	30.0
건	반	9.4	14.1	42.2	21.9	9.4	3.1	22.9
현	악	5.9	7.8	70.6	11.8	2.0	2.0	18.2
관	악		6.3	21.9	65.6	6.3		11.4
타	악	66.7	22.2			11.1		3.2
작	곡		11.1	29.6	44.4	3.7	11.1	9.6
평	론		66.7	33.3				1.1
지	휘			20.0	60.0	20.0		1.8
기	타	20.0	20.0	20.0	20.0		20.0	1.8
계		7.1	10.7	50.0	23.2	5.4	3.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52.89066	40	.0000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수입

부문	월평균 수입	단위: %							계	
		10만원 이하	11-30	31-50	51-70	71-100	101-150	151-200		201만원 이상
성	악	22.8	12.7	11.4	1.3	46.8	2.5	1.3	1.3	31.6
건	반	42.9	11.1	3.2	3.2	31.7	4.8	1.6	1.6	25.2
현	악	23.5	45.1	3.9	5.9	9.8	5.9	2.0	3.9	20.4
관	악	40.0	6.7	6.7		26.7	13.3	6.7		6.0
타	악	88.9	11.1							3.6
작	곡	54.5	9.1	9.1		13.6	4.5	9.1		8.8
평	론	66.7				33.3				1.2
지	휘	50.0	25.0			25.0				1.6
기	타	100.0								1.6
계		36.4	18.0	6.4	2.4	28.4	4.4	2.4	1.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94.23342	56	.0011								

° 부문별 월평균지출

부문	월평균 지출	단위: %					계
		40만원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성악	10.6	18.8	54.1	5.9	8.2	2.4	30.0
건반	21.9	46.9	14.1	12.5	3.1	1.6	22.6
현악	7.7	26.9	13.5	5.8	46.2		18.4
관악	3.2	22.6	9.7	58.1	6.5		11.0
타악	11.1	77.8	11.1				3.2
작곡	13.8	24.1	20.7	31.0	3.4	6.9	10.2
평론		100.0					1.1
지휘		60.0	20.0		20.0		1.8
기타	80.0			20.0			1.8
계	13.1	30.7	25.8	15.5	13.1	1.8	100.0
Chi-Square	203.48891	D.F.	40	Significance	.0000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지출

부문	월평균 지출	단위: %							계
		10만원 이하	11-30	31-50	51-70	71-100	101-150	151-200	
성악	17.9	60.7	7.1	3.6	2.4	7.1		1.2	32.3
건반	58.7	22.2	14.3	1.6				3.2	24.2
현악	28.8	15.4	7.7	5.8	1.9	40.4			20.0
관악	23.5	35.3	23.5		5.9		5.9	5.9	6.8
타악	22.2	66.7			11.1				3.8
작곡	30.4	34.8	17.4	8.7	8.7				8.8
평론	33.3	66.7							1.2
지휘	60.0	20.0			20.0				1.9
기타	50.0	25.0	25.0						1.8
계	33.1	37.3	10.8	3.5	3.1	10.4	.4	1.5	100.0
Chi-Square	149.78331	D.F.	56	Significance	.0000				

5. 국악

° 부문별 성별분포

부문	성별	단위: %		계
		남자	여자	
시 조		80.0	20.0	6.4
국 극		100.0		.8
농 악		75.0	25.0	15.3
창 악		45.0	55.0	5.1
기 악		96.4	3.6	35.2
무 용		7.5	92.5	13.5
민 요		44.3	55.7	15.6
가 야 금		13.6	86.4	5.6
평 른		100.0		.5
기 타		50.0	50.0	2.0
계		63.8	36.2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82.68348	9	.0000		

° 부문별 연령분포

부문	연령	단위: %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시 조				4.0	8.0	16.0	72.0	6.4
국 극					33.3	33.3	33.3	.8
농 악		1.7	25.0	26.7	26.7	10.0	10.0	15.3
창 악			20.0	15.0	15.0	25.0	25.0	5.1
기 악			6.5	27.5	26.1	39.1	.7	35.2
무 용		3.8	69.8	13.2	7.5	5.7		13.5
민 요		1.6	13.1	19.7	32.8	16.4	16.4	15.6
가 야 금			27.3	36.4	9.1	18.2	9.1	5.6
평 른			50.0				50.0	.5
기 타			37.5	25.0	12.5	25.0		2.0
계		1.0	21.2	22.2	21.7	22.7	11.2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258.91252	45	.0000						

° 부문별 학력분포

부문	학력	단위: %				계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시	조	20.0	32.0	40.0	8.0	6.4
국	국		66.7		33.3	.8
농	악	13.3	26.7	36.7	23.3	15.3
창	악	26.3	21.1	31.6	21.1	4.9
기	악	26.1	27.5	29.0	17.4	35.3
무	용		9.4	52.8	37.7	13.6
민	요	13.1	37.7	42.6	6.6	15.6
가	야금	9.1	22.7	50.0	18.2	5.6
평	론		50.0	50.0		.5
기	타		37.5	50.0	12.5	2.0
계		16.4	26.9	37.9	18.9	100.0
		Chi-Square 60.52524	D.F. 27	Significance .0002		

° 부문별 직장유무

부문	직장	단위: %		계
		있다	없다	
시	조	33.3	66.7	6.3
국	국	66.7	33.3	.8
농	악	57.6	42.4	15.4
창	악	70.0	30.0	5.2
기	악	10.1	89.9	36.0
무	용	81.1	18.9	13.8
민	요	37.9	62.1	15.1
가	야금	55.0	45.0	5.2
평	론	50.0	50.0	.5
기	타	83.3	16.7	1.6
계		40.2	59.8	100.0
		Chi-Square 111.64156	D.F. 9	Significance .0000

° 부문별 직업의 종류

부문	직업	단위: %							계	
		교사	학원 경영	학원 강사	중소 지영업	회사원	공무원	문화예 술단원		기타
시	조			25.0	25.0	12.5			37.5	4.6
국	극		50.0						50.0	1.1
농	악	15.8		2.6	18.4	10.5	13.2	15.8	23.7	21.8
창	악		12.5	12.5		6.3	6.3	37.5	25.0	9.2
기	악	6.7	13.3			20.0	13.3	26.7	20.0	8.6
무	용		9.3	7.0		4.7	7.0	72.1		24.7
민	요	6.5	22.6	12.9	9.7	6.5	6.5	19.4	16.1	17.8
가	야 금	7.1	14.3	35.7		7.1	14.3	14.3	7.1	8.0
평	론	100.0								.6
기	타		33.3		16.7	33.3		16.7		3.4
계		6.3	11.5	9.8	7.5	9.2	8.6	32.2	14.9	100.0
		Chi-Square 130.56536	D.F. 63	Significance .0000						

° 부문별 월평균수입

부문	월평균 수입	단위: %					계	
		40만원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201만원 이상
시	조	56.0	16.0	20.0	4.0	4.0	6.6	
국	극	33.3	33.3				33.3	
농	악	36.2	37.9	13.8	12.1		15.3	
창	악	31.6	36.8	26.3		5.3	5.0	
기	악	92.6	4.4	2.9			35.8	
무	용	50.9	30.2	3.8	1.9	3.8	13.9	
민	요	33.3	31.6	19.3	3.5	8.8	15.0	
가	야 금	35.0	45.0	20.0			5.3	
평	론	50.0		50.0			.5	
기	타	28.6	42.9	14.3		14.3	1.8	
계		58.9	22.6	10.8	2.9	2.6	2.1	
		Chi-Square 182.06329	D.F. 45	Significance .0000				100.0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수입

부문	월평균 수입	단위: % 201만원 이상						계	
		10만원 이하	11-30	31-50	51-70	71-100	151-200		
시	조	81.0	14.3	4.8				5.9	
국	극	66.7	33.3					.8	
농	악	80.0	11.1	6.7			2.2	12.7	
창	악	42.1	10.5	21.1	15.8	5.3	5.3	5.4	
기	악	94.9	2.2		.7	1.5		.7	
무	용	29.4	23.5	23.5	9.8	3.9	3.9	5.9	
민	요	49.0	19.6	21.6	3.9	2.0	3.9	14.4	
가	야금	52.6	26.3	5.3	15.8			5.4	
평	론	50.0	50.0					.6	
기	타	57.1	14.3		28.6			2.0	
계		69.8	12.1	9.0	4.5	1.7	1.7	1.1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50.19331		54		.0000					

° 부문별 월평균지출

부문	월평균 지출	단위: % 201만원 이상						계	
		40만원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시	조	64.0	36.0					6.5	
국	극	33.3	33.3				33.3	.8	
농	악	54.4	33.3	7.0	1.8	1.8	1.8	14.9	
창	악	33.3	55.6	5.6		5.6		4.7	
기	악	8.0	90.5	.7			.7	35.9	
무	용	54.7	24.5	5.7	3.8	3.8	7.5	13.9	
민	요	57.6	23.7	11.9	1.7	3.4	1.7	15.4	
가	야금	60.0	35.0	5.0				5.2	
평	론	100.0						.5	
기	타	50.0	50.0					2.1	
계		38.2	52.6	4.5	1.0	1.6	2.1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70.84842		45		.0000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지출

부문	월평균 지출	단위: %							계	
		10만원 이하	11-30	31-50	51-70	71-100	101-150	151-200		201만원 이상
시	조	64.0	28.0	8.0						6.6
국	극	66.7		33.3						.8
농	악	69.6	21.4	5.4	1.8	1.8				14.8
창	악	36.8	42.1	15.8	5.3					5.0
기	타	6.6	90.5	2.2			.7			36.2
무	용	41.2	37.3	9.8	2.0		2.0	2.0	5.9	13.5
민	요	63.8	25.9	5.2	1.7	3.4				15.3
가	야	52.6	36.8	10.5						5.0
평	론	100.0								.5
기	타	50.0	25.0	12.5					12.5	2.1
계		38.9	51.3	6.1	1.1	.8	.5	.3	1.1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95.73116		63		.0000						

6. 무용

° 부문별 성별분포

부문	성별	단위: %		계
		남자	여자	
한국무용		16.9	83.1	61.0
발레		50.0	50.0	7.4
현대무용		9.7	90.3	22.8
기타		25.0	75.0	8.8
계		18.4	81.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8.70598		3		.0335

° 부문별 연령분포

부문	단위: %					계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한국무용	3.6	21.7	38.6	28.9	7.2	61.0
발레		10.0	30.0	10.0	50.0	7.4
현대무용	16.1	35.5	19.4	16.1	12.9	22.8
기타		75.0	8.3	16.7		8.8
계	5.9	28.7	30.9	23.5	11.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43.59992 12 .0000

° 부문별 학력분포

부문	단위: %		계
	학력: 고졸	대졸이상	
한국무용	37.3	62.7	61.0
발레		100.0	7.4
현대무용	41.9	58.1	22.8
기타	66.7	33.3	8.8
계	38.2	61.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0.50523 3 .0147

° 부문별 직장유무

부문	단위: %		계
	직장: 있다	없다	
한국무용	95.2	4.8	61.0
발레	100.0		7.4
현대무용	77.4	22.6	22.8
기타	83.3	16.7	8.8
계	90.4	9.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9.99527 3 .0186

° 부문별 직업의 종류

부문	직업	단위: %							계	
		교사	교수	학원경영	학원강사	중소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기 타
한국무용		6.4	6.4	12.8	14.1	1.3	1.3	6.4	51.3	64.5
발레			22.2	11.1	11.1				55.6	7.4
현대무용		8.3	25.0	4.2			4.2	8.3	50.0	19.8
기타		20.0			10.0				70.0	8.3
계		7.4	10.7	9.9	10.7	.8	1.7	5.8	52.9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20.79144		21	.4717						

° 부문별 월평균수입

부문	월평균 수입	단위: %					계
		40만원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한국무용		13.3	16.9	13.3	51.8	4.8	63.8
발레		10.0	20.0	10.0	60.0		7.7
현대무용		7.7	19.2	15.4	46.2	11.5	20.0
기타		9.1	9.1	18.2	63.6		8.5
계		11.5	16.9	13.8	52.3	5.4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5.06460		12	.9558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수입

부문	월평균 수입	단위: %							계
		10만원 이하	11-30	31-50	51-70	71-100	101-150	151-200	
한국무용		20.0	12.5	7.5	6.3	50.0	1.3	2.5	64.5
발레		20.0	10.0	10.0	10.0	50.0			8.1
현대무용		24.0	4.0	12.0	12.0	48.0			20.2
기타			11.1	11.1		77.8			7.3
계		19.4	10.5	8.9	7.3	51.6	.8	1.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8.46469		18	.9709					

° 부문별 월평균지출

부문	단위: %						계
	월평균 지출	40만원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한국무용	14.5	22.9	55.4	3.6	2.4	1.2	62.4
발레		30.0	70.0				7.5
현대무용	14.3	14.3	57.1	3.6	7.1	3.6	21.1
기타	8.3	8.3	58.3	8.3		16.7	9.0
계	12.8	20.3	57.1	3.8	3.0	3.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6.18949 15 .3696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지출

부문	단위: %								계
	월평균 지출	10만원 이하	11-30	31-50	51-70	71-100	101-150	151-200	
한국무용	9.6	22.9	12.0	48.2	4.8	1.2	1.2		63.4
발레		20.0	40.0	40.0					7.6
현대무용	11.1	14.8	18.5	48.1			3.7	3.7	20.6
기타	9.1	18.2		63.6	9.1				8.4
계	9.2	20.6	14.5	48.9	3.8	.8	1.5	.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7.19466 21 .6992

7. 연극분야

° 부문별 성별분포

부문	성별	단위: %		계
		남자	여자	
연출		100.0		17.7
연기		60.4	39.6	61.6
극작		100.0		2.4
스텝		88.9	11.1	11.0
기획		87.5	12.5	4.9
평론			100.0	1.2
기타		100.0		1.2
계		72.6	27.4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29.33821		6	.0001	

° 부문별 연령분포

부문	연령	단위: %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출			6.9	48.3	27.6	17.2		17.7
연기		1.0	22.8	42.6	23.8	8.9	1.0	61.6
극작						75.0	25.0	2.4
스텝			27.8	22.2	22.2	22.2	5.6	11.0
기획			37.5	12.5	50.0			4.9
평론					100.0			1.2
기타			50.0		50.0			1.2
계		.6	20.7	37.8	26.2	12.8	1.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52.54927		30	.0066					

° 부문별 학력분포

부문	단위: %			
	학력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연출		31.0	69.0	17.7
연기	2.0	37.6	60.4	61.6
극작		25.0	75.0	2.4
스텝		38.9	61.1	11.0
기획		25.0	75.0	4.9
평론			100.0	1.2
기타		50.0	50.0	1.2
계	1.2	35.4	63.4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3.83712	12		.9862	

° 부문별 직장유무

부문	단위: %		
	직장	있다	없다
연출	75.9	24.1	17.7
연기	75.2	24.8	61.6
극작	50.0	50.0	2.4
스텝	61.1	38.9	11.0
기획	25.0	75.0	4.9
평론	100.0		1.2
기타	50.0	50.0	1.2
계	70.7	29.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2.32354	6		.0551

° 부문별 직업의 종류

부문	단위: %									
	직업	교사	교수	학원 경영	학원 강사	중소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문화예 술단원	기타
연출	31.8					9.1	13.6		40.9	4.5
연기	12.7	2.5	2.5	1.3	8.9	16.5	1.3	27.8	26.6	66.4
극작		50.0							50.0	1.7
스텝				9.1	36.4	9.1	9.1	27.3	9.1	9.2
기획									100.0	1.7
평론	100.0									1.7
기타						100.0				.8
계	16.0	2.5	1.7	1.7	10.9	15.1	1.7	28.6	21.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72.10834	48		.0138							

° 부문별 월평균수입

부문	월평균 수입	단위: %					계
		40만원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연출	3.4	13.8	51.7	13.8	3.4	13.8	17.7
연기	16.8	35.6	24.8	11.9	8.9	2.0	61.6
극작	25.0	25.0		25.0	25.0		2.4
스텝	33.3	22.2	22.2	16.7	5.6		11.0
기획	25.0	62.5			12.5		4.9
평론				50.0	50.0		1.2
기타	50.0				50.0		1.2
계	17.1	30.5	26.8	12.8	9.1	3.7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51.33081		30		.0090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수입

부문	월평균 수입	단위: %							계
		10만원 이하	11-30	31-50	51-70	71-100	101-150	151-200	
연출	31.0	6.9	6.9	6.9	27.6	6.9	3.4	10.3	17.8
연기	49.5	19.8	10.9	8.9	1.0	5.0	5.0		62.0
극작	33.3		33.3		33.3				1.8
스텝	50.0	33.3	5.6	5.6	5.6				11.0
기획	37.5	62.5							4.9
평론	100.0								1.2
기타	50.0	50.0							1.2
계	46.0	20.9	9.2	7.4	6.7	4.3	3.7	1.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66.23871		42		.0099					

° 부문별 월평균지출

부문	월평균지출	단위: %					계
		40만원 이하	41-70	71-100	101-150	151-200	
연출		34.5	20.7	27.6	17.2		17.7
연기		39.6	24.8	13.9	14.9	6.9	61.6
극작		50.0	25.0			25.0	2.4
스텝		61.1	33.3	5.6			11.0
기획		87.5	12.5				4.9
평론					100.0		1.2
기타		50.0				50.0	1.2
계		43.3	23.8	14.0	13.4	5.5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45.34487	24	.0053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 월평균지출

부문	월평균지출	단위: %							계	
		10만원 이하	11-30	31-50	51-70	71-100	101-150	151-200		201만원 이상
연출		10.3	24.1	13.8	10.3	6.9	24.1		10.3	17.3
연기		36.6	31.7	11.9	10.9	7.9		1.0		62.0
극작		33.3	33.3		33.3					1.3
스텝		33.3	16.7	50.0						11.0
기획			50.0	50.0						4.9
평론		100.0								1.2
기타		50.0		50.0						1.2
계		30.7	28.8	18.4	9.2	6.1	4.3	.6	1.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87.99204	42	.0000								

8. 영화

° 부문별 성별분포

부문	성별		계
	남자	여성	
감독	100.0		5.7
연기	72.7	27.3	50.6
스탭	100.0		32.2
기획	100.0		4.6
평론	100.0		5.7
기타	100.0		1.1
계	86.2	13.8	100.0
Chi-Square	13.60364	D.F. 5	Significance .0183

° 부문별 연령분포

부문	연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감독		20.0	40.0	40.0		5.7
연기	18.2	36.4	18.2	9.1	18.2	50.6
스탭		14.3	14.3	42.9	28.6	32.2
기획		100.0				4.6
평론				100.0		5.7
기타				100.0		1.1
계	9.2	28.7	16.1	27.6	18.4	100.0
Chi-Square	48.18014	D.F. 20	Significance .0004			

° 부문별 학력분포

부문	단위: %			계
	학력	중졸	고졸 대졸이상	
감독		20.0	80.0	5.7
연기	18.2	36.4	45.5	50.6
스탭	14.3	71.4	14.3	32.2
기획		100.0		4.6
평론		100.0		5.7
기타			100.0	1.1
계	13.8	52.9	33.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24.69791	10	.0059		

° 부문별 정규직장유무

부문	단위: %		계
	정규직장	있다 없다	
감독	40.0	60.0	5.7
연기	36.4	63.6	50.6
스탭	71.4	28.6	32.2
기획	100.0		4.6
평론	100.0		5.7
기타		100.0	1.1
계	54.0	46.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8.16999	5	.0027	

° 부문별 직업의 종류

부문	직업				계
	학원경영	중소 문화예술	자영업 단원	기타	
감독	50.0	50.0			3.8
연기			40.0	60.0	38.5
스탭			100.0		38.5
기획		100.0			7.7
평론		100.0			9.6
기타				100.0	1.9
계	1.9	19.2	53.8	25.0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99.28571	15	.0000			

° 부문별 월평균수입

부문	단위: %						계
	수입 40만원 이하	4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감독	20.0	20.0		60.0			6.0
연기	18.2	18.2	18.2	9.1	18.2	18.2	53.0
스탭	28.6	57.1				14.3	33.7
평론		100.0					6.0
기타						100.0	1.2
계	20.5	36.1	9.6	8.4	9.6	15.7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55.09993	20		.0000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수입

부문	단위: %								계
	수입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감독			20.0	20.0	20.0	40.0			5.7
연기		18.2	18.2		9.1	18.2	9.1	27.3	50.6
스탭			28.6	28.6	42.9				32.2
기획	100.0								4.6
평론		100.0							5.7
기타	100.0								1.1
계	5.7	14.9	19.5	10.3	19.5	11.5	4.6	13.8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167.84396	35		.0000						

° 부문별 월평균지출

부문	단위: %						계
	지출: 40만원 이하	4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감독		40.0		20.0	20.0	20.0	5.7
연기	36.4		18.2	18.2	9.1	18.2	50.6
스텝	57.1	28.6			14.3		32.2
기획		100.0					4.6
평론			100.0				5.7
기타						100.0	1.1
계	36.8	16.1	14.9	10.3	10.3	11.5	100.0
Chi-Square	90.96456	D.F. 25	Significance .0000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지출

부문	단위: %							계
	지출: 10만원 이하	11-30만원	31-50만원	5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감독		40.0		20.0	40.0			5.7
연기	27.3	27.3		18.2		9.1	18.2	50.6
스텝	14.3	71.4	14.3					32.2
기획		100.0						4.6
평론		100.0						5.7
기타			100.0					1.1
계	18.4	49.4	5.7	10.3	2.3	4.6	9.2	100.0
Chi-Square	91.11979	D.F. 30	Significance .0000					

9. 연예분야

° 부문별 성별분포

부문	성별		계
	남자	여자	
가수	37.5	62.5	17.0
무용		100.0	17.0
연주	97.5	2.5	42.6
연기	100.0		9.6
창작	66.7	33.3	9.6
기타	100.0		4.3
계	68.1	31.9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63.05099	5	.0000	

° 부문별 연령분포

부문	연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가수	31.3	56.3	6.3	6.3		17.0
무용	43.8	6.3	37.5	12.5		17.0
연주	15.0	55.0	20.0	2.5	7.5	42.6
연기		44.4	11.1		44.4	9.6
창작	22.2	11.1	33.3	33.3		9.6
기타		25.0	25.0		50.0	4.3
계	21.3	40.4	21.3	7.4	9.6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56.06557	20	.0000				

° 부문별 학력분포

단위: %

학력	국졸	중졸	고졸	대졸	계
부문	이하			이상	
가 수		12.5	87.5		17.0
무 용			93.8	6.3	17.0
연 주		2.5	80.0	17.5	42.6
연 기		44.4	33.3	22.2	9.6
창 작		11.1	55.6	33.3	9.6
기 타	50.0		25.0	25.0	4.3
계	2.1	8.5	74.5	14.9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73.56713	15		.0000	

° 부문별 정규직장유무

단위: %

정규직장	있 다	없 다	계
부문			
가 수	62.5	37.5	17.0
무 용	81.3	18.8	17.0
연 주	90.0	10.0	42.6
연 기	55.6	44.4	9.6
창 작	88.9	11.1	9.6
기 타	75.0	25.0	4.3
계	79.8	20.2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9.36903	5	.0952

° 부문별 직업의 종류

단위: %

직업	학원경영	중소	회사원	문화예술	기타	계
부문		자영업		단원		
가 수				100.0		13.5
무 용	15.4		7.7	69.2	7.7	17.6
연 주		2.8		52.8	44.4	48.6
연 기				100.0		5.4
창 작	12.5		25.0	50.0	12.5	10.8
기 타				100.0		4.1
계	4.1	1.4	4.1	66.2	24.3	100.0
Chi-Square		D.F.		Significance		
	36.27170	20		.0143		

° 부문별 월평균수입

부문	수입: 40만원 이하	단위: %					계
		4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가 수	12.5	18.8	43.8	12.5	12.5		17.8
무 용		75.0	25.0				17.8
연 주	12.5	17.5	40.0	22.5	5.0	2.5	44.4
연 기		20.0	40.0	20.0	20.0		5.6
창 작	11.1	11.1	22.2	11.1	33.3	11.1	10.0
기 타	50.0		25.0			25.0	4.4
계	11.1	26.7	35.6	14.4	8.9	3.3	100.0
Chi-Square	50.04838	D.F. 25	Significance .0021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수입

부문	수입: 10만원 이하	단위: %							계
		11-30만원	31-50만원	5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가 수			12.5	25.0	25.0	18.8	18.8		19.0
무 용	20.0	10.0	10.0	20.0	30.0		10.0		11.9
연 주	15.0	25.0	17.5	10.0	15.0	15.0		2.5	47.6
연 기				20.0	20.0	20.0	40.0		6.0
창 작	33.3	11.1	22.2	11.1	11.1	11.1			10.7
기 타				75.0		25.0			4.8
계	13.1	14.3	14.3	17.9	17.9	14.3	7.1	1.2	100.0
Chi-Square	45.26224	D.F. 35	Significance .1147						

° 부문별 월평균지출

		단위: %						
지출	40만원	41-70	71-100	101-150	151-200	201만원	계	
부문	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가 수	25.0	37.5	25.0	12.5			17.0	
무 용	12.5	37.5	12.5	37.5			17.0	
연 주	30.0	57.5	12.5				42.6	
연 기		33.3	11.1	44.4	11.1		9.6	
창 작	44.4	11.1		33.3	11.1		9.6	
기 타	25.0			50.0		25.0	4.3	
계	24.5	41.5	12.8	18.1	2.1	1.1	100.0	
Chi-Square	63.72377	D.F.	25	Significance	.0000			

° 부문별 예술활동관련지출

		단위: %						
지출	10만원	11-30	31-50	51-70	71-100	101-150	계	
부문	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가 수	6.3	50.0	12.5	12.5	6.3	12.5	17.0	
무 용	25.0	6.3	25.0	43.8			17.0	
연 주	52.5	35.0	7.5	2.5	2.5		42.6	
연 기	44.4		22.2	11.1	22.2		9.6	
창 작	44.4	22.2	11.1	11.1		11.1	9.6	
기 타		75.0				25.0	4.3	
계	36.2	29.8	12.8	12.8	4.3	4.3	100.0	
Chi-Square	59.03479	D.F.	25	Significance	.0001			

부록2 : 조사원 신분확인서

확 인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학생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으로 문화부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임을 확인합니다.

1991년 10월 21일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 장 서 정 갑

부록 3 : 조사원 지침서

조사원 지침

1. 설문서 상의 지난 일년이란 1990년 7월 1일 부터 1991년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2. 가능한 한 무응답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조사원들은 조사대상자에게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공손한 태도로 설문지 내용에 관해 친절히 설명해 줄 것.
4. 각 조사원은 설문지와 동봉된 조사대상자 명단을 휴대하고 주소 및 전화번호를 참조하여 조사대상자를 찾아갈 것.

조사원은 설문이 끝날때마다 휴대한 조사대상자 명단에 응답자를 표시하고, 연구소에 설문지 반환시(반환장소 : 연희관 210호 최평길 교수실) 조사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함께 제출할 것.

5. 설문지 제출기한: 1991년 11월 16일(토)까지
6. 지부(또는 지회) 조사원은 다음사항에 따라 조사에 임할 것.

(1)국악지부(또는 지회)의 경우

1) 지부(또는 지회)명단의 예시

국악 /지회(17) /윤일로 /43-3559 /충북 충주시 성내동 154-1

↓ ↓ ↓ ↓ ↓

분야 /대상자17명 /지회장 /전화번호 /지부(또는 지회) 주소

-> 이 경우는 국악협회 충주지회에서 설문 17부를 조사할 것.

2) 조사요령

- ① 지부(또는 지회)주소 및 전화번호를 통해 지부(또는 지회)를 방문하여 지부장(또는 지회장)을 만날 것.

② 공손히 신분을 밝히고 설문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 후 지부(또는 지회)의 회원명부를 입수하여, 회원명부상에서 *체계적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해 할당받은 설문지 부수만큼의 대상자를 정한 다음 조사에 착수할 것(*체계적 무작위추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할 것임).

(2) 연예지부의 경우

1) 국악지부(또는 지회) 조사원과 같은 요령으로 연예분야 설문조사에 임한다.

2) 단, 조사대상자의 분야별 구성비는 다음에 의한다.

① 대상자 수가 17명인 경우 : 가수4명, 무용4명, 연주4명, 연기2명, 창작3명

② 대상자 수가 16명인 경우 : 가수4명, 무용4명, 연주4명, 연기2명, 창작2명

부록 4 : 설문 해설서

설문 해설

1. 공통설문

- (2) 연령은 199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한 만 나이임.
- 1) 생일이 양력 6월 30일 이전인 경우
나이 = 기준년도 - 출생년도 (한국식 나이 - 1)
- 2) 생일이 양력 7월 1일 이후인 경우
나이 = 기준년도 - 출생년도 - 1 (한국식 나이 - 2)
- (3) 학력에 있어서 재학, 중퇴는 하위 졸업학력에 준하는 것으로 함.
- (5) 출신지역은 주요성장지역으로 만 20세이하의 나이를 가장 오랫동안 보냈던 곳.
- (6) 거주지역은 지난 1년간(1990. 7. 1 - 1991. 6. 30)을 대부분 거주했던 곳.
- (7) 행정단위 구분중 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의미함.
- (11)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일주일에 한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파악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규직장이라함은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의 일을 하며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을 의미한다. 고용주, 피고용인, 자영업자를 통칭하는 것임.
- (12)직업의 종류에 대한 설문. 교사는 초중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로서, 임시직을 포함. 교수는 전문대 교수까지를 포함, 학원경영은 관할 교육구청의 인가를 받은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 학원강사는 사설강습소의 직원을 의미함. 상업은 자영자, 피고용인, 고용주를 통칭. 문화예술단원은 정기적인 활동과 봉급 내지 급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
- (13)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총계로서 소득세등 諸세금을 제외한 월평균 가처분 소득.
- (14)월평균 총소득 중에서 예술활동의 직접적 결과로서 얻은 소득부분을 묻는 것임.
- (16)월평균 총지출에서 예술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지출부분을 묻는것임.

2. 분야별 설문

(1) 조형예술

1-1. 조형예술은 그림, 판화, 사진 등 일정한 형태를 시각적으로 창조하는 예술형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됨.

여기서 평론은 미술평론을 말함.

(2) 문학

2-1. 여기서 평론은 문학작품에 관한 평론임. 미술, 무용등에 관한 평론은 제외, 시조의 경우는 국악의 시조와 구분됨. 여기서는 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으로서의 시조이고, 국악의 시조는 창을 중심으로한 시조임.

(3) 디자인

3-1. 산업, 건축, 의상, 시각디자인과 평론을 포함함.

(4) 음악

4-1-1. 음악은 국악과 양악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국악의 경우 목소리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창악(판소리, 창, 고수), 가야금, 거문고, 해금등의 기악, 국악의 대중가요와 비유될 수 있는 민요, 농악, 연기(민속극, 국극), 시조등으로 구분된다.

4-2-1. 서양음악에서 성악은 독창 및 합창을 포함하며, 건반악은 피아노, 파이프 오르간 등을 포함한다.

(5) 무용

5-1. 한국무용은 전통무용을, 현대무용은 서양무용을 의미한다.

(6) 연극

6-1. 스텝 및 기술이라 함은 조명, 촬영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7) 영화

7-1. 스텝 및 기술이라 함은 조명, 촬영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8) 연예

8-1. 연예인이라함은 T.V와 방송, 야간업소등을 통해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인으로서 가수, 연기(탈렌트, 성우), 무용(무용수), 연주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연기자는 연극 및 영화연기자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사실상 T.V 연기자와 영화연기자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활동하는 분야에 따라 구분될 것이다.

부록 5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표 (설문지)

일 반 통 계
제132-21-04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문화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및 창작활동실태,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두 컴퓨터로 처리됩니다. 선생님을 방문한 조사원은 저희연구소에서 선발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입니다. 본 조사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실시 기관 : 문 화 부

연 락 처 : 문 화 발 전 연구소
전화 (02) 776-7493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화 (02) 361-3538
361-2961

조사원 성명	
전화 번호	

Ⅱ) 직업 및 수입

9. 귀하의 주거형태는?

-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타_____

10.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집의 소유형태는?

- 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타

11. 귀하께서는 199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정규직장(주 1시간 이상 근무하는 고정수입직)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가지고 있다 2) 가지고 있지 않다(13번으로 가십시오)

12.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업입니까?

- 1) 교사 2) 교수 3) 학원경영
4) 학원강사 5) 중소기업 6) 회사원
7) 공무원 8) 문화예술단원 11) 기타

13. 지난 일년간(1990. 7.1 - 1991. 6.30)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40만원 이하 2) 41-70만원 3) 71- 100만원
4) 101-150만원 5) 151-200만원 6) 201만원이상

14. 지난 일년간(1990. 7.1 - 1991. 6.30) 귀하의 수입중 예술활동과 관련된 월평균 수입(예술활동의 직접적 결과로서 얻은 수입)은 어느정도입니까?

- 1) 10만원 이하 2) 11-30만원 3) 31-50만원
4) 51-70만원 5) 71-100만원 6) 101-150만원
7) 151-200만원 8) 201만원 이상

15. 지난 일년간(1990. 7.1 - 1991. 6.30) 귀하의 월평균 지출은 어느정도입니까?

- 1) 40만원 이하 2) 41-70만원 3) 71- 100만원
4) 101-150만원 5) 151-200만원 6) 201만원이상

16. 지난 일년간(1990. 7.1 - 1991. 6.30) 귀하의 지출중 예술활동과 관련된 월평균 지출(예술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경비)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10만원 이하 2) 11-30만원 3) 31-50만원
4) 51-70만원 5) 71-100만원 6) 101-150만원
7) 151-200만원 8) 201만원 이상

Ⅲ)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태도

17. 귀하는 다음 문화예술분야 중 어느 분야가 가장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문학 2) 조형예술 3) 디자인 4) 음악 5) 무용
6) 연극 7) 영화 8) 연예

18. 귀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2)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다.
3) 그저 그런 편이다.
4)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5)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19. 귀하는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당히 풍족한 편이다. (上)
2) 넉넉한 편이다. (中上)
3) 보통이다. (中)
4) 가난한 편이다. (中下)
5) 아주 가난하다. (下)

20. 귀하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작품발표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충분하다. 2) 충분한 편이다. 3) 보통정도이다.
4) 부족한 편이다. 5) 매우 부족하다.

21. 귀하는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야를 직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대단히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러운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22. 귀하의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은?

- 1) 경제적 여유가 없다.
2) 창작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많다.
3)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
4) 배울 만한 지도자가 부족하다.
5)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6) 기타

II. 분야별 설문(문학)

1. 귀하의 구체적인 주요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1) 시 2) 시조 3) 소설
 4) 수필 5) 희곡 6) 시나리오
 7) 아동문학 8) 평론 9) 번역
 10) 기타_____

2. 귀하의 작품활동내역에 관한 설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창작作品集 및 작품수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1) 공식적인 최초의 작품발표(데뷔)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책(공동창작집포함)	총작품수
권	편

2) 1990년 7월 1일 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책(공동창작집포함)	총작품수
권	편

3. 귀하의 공식적인 첫활동(데뷔)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1) 신춘문에 2) 전문지나 동인지 추천
 3) 개인창작집 발표 4) 문학잡지 및 동인지에 발표
 5) 기타

4.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 이후의 활동기간(처음부터 1991.6.30까지)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개월

II. 분야별 설문(조형예술)

1. 귀하의 구체적인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1) 서양화 2) 한국화 3) 판화
 4) 서예 5) 조각 6) 공예
 7) 사진 8) 평론(이론) 9) 기타 _____

2. 귀하의 작품활동 내역에 관한 설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작품수 및 작품전(作品展) 횟수(*평론인 경우에는, 논문수 및 간행된 책수)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1) 공식적인 최초의 작품발표(데뷔)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작 품 전 횟 수		작 품 수	* 논문수/간행책수 (평론 및 이론)
개 인 전	단 체 전		
회	회	점	편 / 권

2) 1990년 7월 1일 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작 품 전 횟 수		작 품 수	* 논문수/간행책수 (평론 및 이론)
개 인 전	단 체 전		
회	회	점	편 / 권

3. 귀하의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1) 공모전 출품 2) 단체전 출품
 3) 개인전 발표 4) 기타

4.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 이후의 활동기간(처음부터 1991. 6. 30까지)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년 개월

Ⅱ. 분야별 설문(디자인)

1. 귀하의 구체적인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1) 건축디자인 2) 시각디자인
 3) 산업디자인 4) 의상디자인
 5) 평론(이론) 6) 기타 _____

2. 귀하의 작품활동 내역에 관한 설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작품수 및 작품전(作品展) 횟수(*평론인 경우에는, 논문수 및 간행된 책수)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1) 공식적인 최초의 작품발표(데뷔)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작 품 전 횟 수		작 품 수	* 논문수/간행책수 (평론 및 이론)
개 인 전	단 체 전		
회	회	점	편 / 권

2) 1990년 7월 1일 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작 품 전 횟 수		작 품 수	* 논문수/간행책수 (평론 및 이론)
개 인 전	단 체 전		
회	회	점	편 / 권

3. 귀하의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1) 공모전 출품 2) 단체전 출품
 3) 개인전 발표 4) 기타

4.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 이후의 활동기간(처음부터 1991. 6. 30까지)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II. 분야별 설문(음악: 국악편)

1. 귀하의 구체적인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1) 시조 2) 국극 3) 농악 4) 민속극
 5) 창악 6) 기악 7) 무용 8) 민요
 9) 고수 10) 가야금 11) 평론(이론)
 12) 기타 _____

2. 귀하의 작품활동내역에 관한 설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작품수 및 연주회 횟수(*평론인 경우에는, 논문수 및 간행된 책수)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1) 공식적인 최초의 작품발표(데뷔)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발표회 / 연주회		창 작 작 품 수	* 논문수/간행책수 (평론 및 이론)
개 인	단 체		
회	회	편	편 / 권

2) 1990년 7월 1일 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발표회 / 연주회		창 작 작 품 수	* 논문수/간행책수 (평론 및 이론)
개 인	단 체		
회	회	편	편 / 권

3. 귀하의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1) 국내대회입상 2) 단체발표/단체입단
 3) 개인발표 4) 기타

4.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 이후의 활동기간(처음부터 1991. 6. 30까지)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년 개월

II. 분야별 설문(음악: 양악편)

1. 귀하의 구체적인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 | | |
|-----------|--------|-------------|
| 1) 성악 | 2) 건반악 | 3) 현악 |
| 4) 관악 | 5) 타악 | 6) 작곡 |
| 7) 평론(이론) | 8) 지휘 | 9) 기타 _____ |

2. 귀하의 작품활동내역에 관한 설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창작 작품수 및 연주회 횟수(*평론인 경우에는, 논문수 및 간행된 책수)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1) 공식적인 최초의 작품발표(데뷔)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발표회 / 연주회		창 작 작 품 수	* 논문수/간행책수 (평론 및 이론)
개 인	단 체		
회	회	편	편 / 권

2) 1990년 7월 1일 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발표회 / 연주회		창 작 작 품 수	* 논문수/간행책수 (평론 및 이론)
개 인	단 체		
회	회	편	편 / 권

3. 귀하의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 | |
|-----------|--------------|
| 1) 국내외 콩쿨 | 2) 단체발표/단체입단 |
| 3) 개인발표 | 4) 기타 |

4.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 이후의 활동기간(처음부터 1991. 6. 30까지)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년 개월

II. 분야별 설문(무용)

1. 귀하의 구체적인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1) 한국무용 2) 발레
3) 현대무용 4) 평론(이론) 5) 기타 _____

2. 귀하의 작품활동내역에 관한 설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창작 작품수 및 발표회 횟수(*평론인 경우에는, 논문수 및 간행된 책수)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1) 공식적인 최초의 작품발표(데뷔)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발 표 회		창 작 작 품 수	* 논문수/간행책수 (평론 및 이론)
개 인	단 체		
회	회	편	편 / 권

2) 1990년 7월 1일 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발 표 회		창 작 작 품 수	* 논문수/간행책수 (평론 및 이론)
개 인	단 체		
회	회	편	편 / 권

3. 귀하의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1) 국내외 콩쿨 2) 단체발표/단체입단
3) 개인발표 4) 기타

4.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 이후의 활동기간(처음부터 1991. 6. 30까지)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년 개월

II. 분야별 설문(영화)

1. 귀하의 구체적인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1) 감독 2) 연기 3) 시나리오
 4) 스탭(기술) 5) 기획 6) 평론(이론)
 7) 기타 _____

2. 귀하의 작품활동내역에 관한 설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참여)하신 작품의 수(*평론인 경우에는, 논문수 및 간행된 책수)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1) 공식적인 최초의 작품발표(데뷔)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발표 및 참여작품수	* 평론 및 이론	
	논문수	간행책수
편	편	권

2) 1990년 7월 1일 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발표 및 참여작품수	* 평론 및 이론	
	논문수	간행책수
편	편	권

3. 귀하의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1) 공모 2) 단체입단 3) 개인추천 4)기타

4.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 이후의 활동기간(처음부터 1991. 6. 30까지)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개월

II. 분야별 설문(연예)

1. 귀하의 구체적인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1) 가수 2) 무용 3) 연주
 4) 연기(성우) 5) 창작 6) 기타 _____

2. 귀하의 작품활동 또는 연예활동 내역에 관한 설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작품의 수 또는 출연하신 횟수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1) 공식적인 최초의 작품발표(데뷔)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창 작 분 야 (작곡, 작사, 방송작가)	연 주, 무 용, 가 수, 연기(탤런트, 성우) 분야	
편	방 송 프 로 그 램 편	공 개 행 사 회

* 공개행사란 연주회, 발표회, 콘서트, 기타 방송외 공연을 말함.

2) 1990년 7월 1일 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의 작품활동

창 작 분 야 (작곡, 작사, 방송작가)	연 주, 무 용, 가 수, 연기(탤런트, 성우) 분야	
편	방 송 프 로 그 램 편	공 개 행 사 회

4. 귀하의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1) 공 모 2) 악극단,업소 출연 3) 개인발표 4)기타

5. 공식적인 첫 활동(데뷔) 이후의 활동기간(처음부터 1991. 6. 30까지)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년 개월